


3-28-2001

## 소그룹활동을 통한 복음화전략: 신흥대학 교직원을 중심으로

Byung Chul Kim 김병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병철, "소그룹활동을 통한 복음화전략: 신흥대학 교직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RATEGY OF SMALL GROUP EVANGELIZATION FOR SHINHEUNG COLLEGE**

written by

**BYUNG CHUL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Moon Sang Kwon

---

Seyoon Kim

March 28, 2001

**A STRATEGY OF SMALL GROUP EVANGELIZATION  
FOR SHINHEUNG COLLEGE**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YUNG CHUL KIM**

MARCH 2001

소그룹 활동을 통한 복음화 전략  
-신흥대학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김 병 철

2001년 3월

## Abstract

A Strategy of Small Group Evangelization for Shinheung College

Byung Chul Kim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zation through small groups has gained support in recent years and has been applied in a variety of ministry settings. Invitation and settling down of new comers, nurturing and training of existing church member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ministry and mission are effectively accomplished through small groups. This paper focuses on the ways that small groups can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schools, specifically a college.

Special emphasis is on the faculty and staff of Shinheung College, a Christian community college with a history of about 30 years. Faculty and staff of Christian colleges play a key role for development and evangelization of the colleges. They may spread the Gospel to their colleagues and further to students who come to the college every year. The evangelistic activities can be extended into ministry and mission for the regional society, the nation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ultimate goal of the mission society of Shinheung College is faithful obedience to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or discipling of all nations. Small groups are most effective for carrying out the 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mall group ministry, selecting and training of leaders are crucial. Worship celebration and small group activities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y interact in positive ways. Under the lay leadership various small groups will be nurtured and they will serve the ultimate

purpose--discipling of all nations.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D.

Moon Sang Kwon, Ph.D.

Seyoon Kim, Ph.D.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제 2 장 한국에서의 학원복음화의 역사 .....	3
제 1 절 학원복음화의 역사 .....	3
1. 복음의 전래와 선교 전략으로서의 학교사업 .....	3
2. 기독교학교 설립배경 .....	6
3. 기독교학교의 발전과 공헌 .....	8
4.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측면들 .....	14
5. 학생들의 복음 전도활동 .....	19
제 2 절 학원복음화 현황 .....	22
제 3 장 신흥대학의 복음화 현황 .....	28
제 1 절 지역사회 분석 및 신흥대학의 연혁 .....	28
1. 지역사회 분석 .....	28
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	28
나. 의정부시의 특성 .....	33
2. 신흥대학의 연혁 .....	37
제 2 절 기독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활동 .....	40
1. 신흥대학생 분석 .....	40
2. 복음의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 .....	44
가. 기독교의 이해 .....	43
나. 채플 .....	46
3. 기독교동아리의 복음활동 .....	49

가. S.C.M.의 연혁과 활동 .....	49
나. C.C.C.의 연혁과 활동 .....	51
다. 예향인의 연혁과 활동 .....	51
제 3 절 교직원선교회의 복음활동 .....	53
1. 교직원 분석 .....	53
가. 교수 분석 .....	55
나. 직원 분석 .....	56
2. 교직원선교회의 연혁과 선교활동 .....	57
제 4 장 신흥대학의 복음화 전략 .....	59
제 1 절 신흥대학의 구성과 복음화의 주체들 .....	59
1. 신흥대학의 구성원 .....	59
2. 복음화의 주체들 .....	60
제 2 절 복음화의 내용과 활동 .....	63
1. 학원복음화의 모델 .....	63
2. 복음활동의 내용 .....	65
제 5 장 소그룹을 통한 복음화 전략 .....	70
제 1 절 소그룹의 근본요소 .....	70
1. 소그룹의 본질 .....	70
가. 소그룹의 정의 .....	70
나. 소그룹의 성경적 배경 .....	73
(1)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	75
(2) 평신도 목회와 소그룹 .....	76
다. 소그룹의 효과와 사명 .....	78
2. 소그룹과 리더십 .....	80
가. 소그룹 리더의 역할 .....	80
나.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	81



다. 소그룹리더의 선발과 훈련	83
제 2 절 소그룹의 실제	85
1. 소그룹의 유형	85
2. 소그룹 목회의 사례	88
제 6 장 신홍대학 교직원의 소그룹 활동	90
제 1 절 소그룹활동의 연혁과 정착 전략	90
1. 소그룹활동의 연혁	90
2. 소그룹의 정착 전략	91
가. 소그룹의 목적	91
(1) 교직원 선교회의 목적	91
(2) 소그룹의 목적	92
나. 소그룹 리더의 선발과 훈련	93
다. 소그룹의 조직	94
제 2 절 소그룹과 정기예배	96
1. 정기예배의 의의	96
가. 신홍대학에서의 정기예배	97
나. 정기예배의 활성화 방안	98
2. 소그룹과 정기예배의 운용 전략	100
가. 정기예배에 관한 설문조사	101
나. 소그룹에 관한 설문조사	103
3. 방학중의 특별 프로그램	111
4. 학교당국의 지원사항	113
가. 선교회의 성격	113
나. 시간과 공간의 확보	113
제 3 절 소그룹의 발전단계와 사역	114
1. 소그룹의 발전단계	114
가. 시작단계	115

나. 성장단계 .....	115
다. 분할 및 확대 재생산단계 .....	116
2. 소그룹의 사역 .....	117
가. 학원복음화 .....	118
나. 지역사회봉사 .....	119
다. 전도와 선교 .....	119
제 7 장 결 론 .....	122
부록 1 .....	125
부록 2 .....	135
부록 3 .....	181
부록 4 .....	183
부록 5 .....	185
참고문헌 .....	189
VITA .....	192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학원복음화’는 기독교대학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문을 교수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의 유능한 일꾼으로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된 근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대학 중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가 1904년 9월에 제정한 이화학당의 최초의 학칙인 당칙을 보면 제1조의 목적은 “본 당은 한국 중학교령에 의하여 여자에게 중학과 교육의 베풀며 기독교 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기하여 교육과 아울러 기독교신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sup>1)</sup>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실행되어 왔으나 학교발전과 학원복음화의 핵심이요, 중요한 축인 교직원들에 대한 복음화전략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복음화전략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학원복음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의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원복음화와 연결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신흥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2장에서 다루는 한국에서의 학원복음화의 역사와 현황은 역사적 자료와 주요 기독교대학에 보낸 설문을 토대로 전개한다. 3장에서는 신흥대학의 복음화 현황에 대해 다루되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은 지방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64.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사용하며 신흥대학내의 복음활동에 대해서는 내부자료와 설문방법을 활용한다.

신흥대학의 복음화전략을 다루는 4장에서는 문헌연구 방법과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신흥대학의 상황에 부합하는 복음화 모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소그룹을 통한 복음화전략을 설문조사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수립한다. 부록에는 교직원소그룹을 통한 복음화전략의 개요와 소그룹 리더 훈련 교본을 수록하였다.

## 제 2 장

### 한국에서의 학원복음화의 역사

한국의 근대적 교육의 역사는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의료사업과 함께 교사들의 중요한 선교전략의 하나로 전개된 교육사업은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고 한국교회는 물론 근대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1절에서 선교 전략으로서의 교육사업과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학원 복음화의 역사를 고찰한다. 2절에서는 한국기독교대학의 일반적인 복음활동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 제 1 절 학원복음화의 역사

##### 1. 복음의 전래와 선교전략으로서의 학교사업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때는 1884년 9월로 이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이 된 지 꼭 100년이 지난 때였다. 따라서 1884년은 한국개신교선교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되었다. 개신교 첫 선교사의 영예를 얻은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이었다.<sup>2)</sup>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1884년 7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를 한국선교사로 공식 임명하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 언더우드와 함께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아펜젤러 부부가 제물포에 발을 디게 되었다.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그 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sup>3)</sup>

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91.

3) Ibid., 98.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펜젤러 부처와 언더우드의 상륙을 개신교 선교사의 공식적인 첫 상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약 50년 앞서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칼 구츨라프(Karl Gutzlaff)가 고대도4)에 한 달 이상 머물며 한문성경을 배포한 적이 있었으며 또한 조선의 외곽지대인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도가 이루어져 이미 한국인 신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5)

한국이라는 복음의 불모지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은 의료사업과 아울러 교육사업에 정열을 쏟았다. 교육사업은 모든 아이들과 배우지 못한 어른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의료사업보다도 더욱 포괄적이고 또한 직접 전도의 적당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에 개신교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의 초등교육기관은 겨우 서당 정도에 불과했다. 제일 먼저 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4)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는 의사이며 할레대학 출신의 유대교 독일인 칼 귀츨라프이다. 그는 처음에 네덜란드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동남아의 바타비아에서 선교를 하였는데 후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까지 가게 되었다. 그는 마카오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중 동인도회사 소속 무역선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 호가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지로 교역을 트기 위하여 항해를 하게 될 때에 통역의 자격으로 1833년 7월 서해안 백령도 근처 섬인 고대도에 상륙하여 한국에 온 첫 기독교목사가 되었다. 김병철 외, 기독교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0), 71.

5) 만주에서의 전도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한 것으로 그는 1874년에 백홍준, 이응찬 등 의주의 젊은 상인들에게 전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1876년 1월부터 성경을 번역하여 1882년에는 한글판 “누가복음”을 출판하였으며 1884년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번역, 출판하였다. 그는 또 1878년 신자가 된 서상륜, 서경조 등을 성서매서인으로 삼아 의주, 서울과 황해도 솔내 등지에 보내 선교하게 함으로써 1884년에 이미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설교당과 교회가 서울과 솔내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첫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에는 세례받기 원하는 신자가 이미 70여명이나 있었다. 일찍이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길버트 리이드나 조지, 닉스 같은 이들은 특별히 한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선교본부에 잇달아 청원을 보내면서 한결같이 교육기관의 설립과 의료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83년 닉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조선에 와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운다면 아마 굉장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교사와 한 사람의 의사를 보내기 시작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조선은 의술의 처녀지로서 혜택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할 일은 한국 수도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Foreign Missionary (January, 1884), 335.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4년 스크랜톤, 아펜젤러, 스크랜톤 부인 등이 선교사로 지명 받았다.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도 한국 입국 이전에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웠고 공식적으로 입국한 선교사들도 1885년 이수정이 번역한 성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만주 쪽에서 번역, 인쇄된 로스판 성경이 보급되고 있어 선교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37-38.

1886년 2월 정부의 허가를 얻어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고 고아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경신 중고등학교의 시초였다.<sup>6)</sup>

한국에 최초로 근대식 여학교를 세운 사람은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여사로서 그녀가 세운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이다. 스크랜튼 여사는 1885년 6월에 도착하여 서울 정동에 감리교 선교본부가 있던 지역에 20여 채의 초가집과 빈터가 있는 땅을 사서 '여자 학당'과 '부녀원'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들 건물이 1886년 11월에 완성되어 이 곳에 최초의 여학교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화여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시초이다. 아펜젤러는 교육에 뜻을 두고 한국 정부에 영어학교의 개설을 청원하는 서신을 보냈다. 정부는 이 청원을 허락하여 1886년 6월에 학교를 시작하여 6명이 최초의 학생이 되었고 1887년에 고종은 이 학교의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그 이름은 배재(培材)학당이다. 이 학교가 오늘날의 배재 중고등학교가 되었다.<sup>7)</sup>

선교사업은 선교 이외에도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대상국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건져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한말의 혼란기와 일제침략기를 맞아서 한국민에게 복음으로써 정신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근대적인 병원개설과 학교설립을 희구하게 되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원선교의 역사를 개관하면 1885년 세브란스는 1885년에 광혜원이란 이름으로 발족하여 1915년 4월에 개교한 연희전문학교와 해방 후 1957년 연세대학으로 합동되었고 여학교로는 1886년 5월 31일 스크랜튼 부인이 한 학생을 앞에 두고 가르침으로 시작된 이화여대가 한국여성 근대교육의 장을 열었다.<sup>8)</sup>

한편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북한 지역에서는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학교들이 속속 개교되었고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로 송실학당이 1897년에 창립되어 1905년 송실대학으로 발전하였고 1938년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자진 폐교한 뒤 해방 후 1954년 서울에서 다시 재건되었다. 해방 후에 자유로운 건학이념에 따라 명지대학과 같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학원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102-103.

7) Ibid., 105

8) Ibid., 25.

## 2. 기독교 학교 설립의 배경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독교 대학의 하나인 연세대학교는 그 역사가 1885년 광혜원(廣惠院)의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광혜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 N. Allen)이 고종의 위촉으로 개원한 왕립 병원이었다. 이곳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을 선발해서 서양의술을 학습케 하였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병원은 조선왕실과 선교사의 합작으로 이루어 졌고 또한 한국 최초의 서양의술이 교습되었다. 그후 광혜원은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무렵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서<sup>9)</sup>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병원만 전담할 청년의사 애비슨(O. R. Avison)을 파견하였다. 애비슨은 1893년 내한 이후 병원을 정비해서 그 이듬해에는 조선왕실과의 관계를 끊고 선교부에서 전적으로 담당, 관리하는 병원, 학교로 재조직하였다. 이 때부터 이 기관은 새로운 발전을 도모했다. 먼저 제중원 의학교를 두어서 광혜원 때부터 행해 온 의학교육을 실질화하였고 미국실업가인 세브란스(L. H. Severance)의 기부로 근대적인 병원을 신축하였으며 신교의 각 교파를 망라한 연합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의 운영과 학교의 교육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1910년대에는 병원과 학교의 시설이 확충되고 그 조직이 날로 커갔다.<sup>10)</sup>

세브란스는 1885년 광혜원이란 이름으로 발족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창립되었다. 그 첫째는 개화정신이다.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침체해 있던 한국의 제반 문물제도를 혁신하고 과학화하여 현대화하려는 개혁정신의 발로였다. 둘째, 기독교 정신이다. 애비슨이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라는 명예와 토론토의 YMCA 총무라는 중책을 버리고 처자와 함께 이역만리 낯설고 물선 한국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심에서였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에 와서 수고하는 중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현대의학과 기술을 가르칠 학교와 병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 교회를 돌아다니며 모금한 것도 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감에서였다. 필요한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클리블

9) 운영에 지장이 생긴 이유는 조선왕실에서 약속한 재정적 보조가 여의치 못했고 선교사업과 병원경영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vol.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3.

10) Ibid., 3-4.



랜드 시의 세브란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기관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져냄으로써 이 겨레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고 여기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도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의사나 간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로운 종으로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모여드는 학생이나 환자들은 단순히 교육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협동정신이다. 세브란스는 광혜원으로 설립될 때부터 건물시설과 운영 경비는 구한국정부 부담이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기술 진용은 미국 장로회 선교부에서 담당하는 한미 협동정신에 입각하였다.<sup>11)</sup>

한편 스크랜톤 부인은 한국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1886년 5월말 교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드디어 첫 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스크랜톤 부인이 학교를 열고 학생모집을 시작한 것은 훨씬 전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부인은 여학생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여학생 얻기가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우선 외부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규중 깊은 곳에 거하는 상류계층 집안의 딸들을 접촉한다는 것이 서양인으로서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류사회에서 여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스크랜톤 부인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고아들에게 눈을 돌렸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sup>12)</sup> 천신만고 끝에 학교는 시작되었고 1887년 2월 중순경 당시의 왕 고종이 외아문을 통하여 이화학당이란 교명을 하사하였는데 학교명의 하사는 정부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신임을 표시하는 일이었다.<sup>13)</sup>

이북의 평양에서는 1887년 10월 1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량에 의하여 송실학당이 세워졌다. 송실대학은 1906년 9월 15일에 송실학당을 모태로 하여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사업으로 설립되었다.<sup>14)</sup> 19세기말의 애국계몽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운동이었다. 정부는 일찍이 1886년에 근대적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을 설립하였고 갑오개혁 이후 1885년에는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

11)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25-6.

1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49.

13) Ibid., 53.

14)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vol. 1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7), 3.

국어학교 등 관립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대식 학교교육의 주류는 기독교 선교회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들이었다.<sup>15)</sup>

### 3. 기독교 학교의 발전과 공헌

종교운동 중 가장 두드러진 개신교의 경우, 전도의 한 수단으로써 의료 등의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바지한 바도 컸지만, 교육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자유주의를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앙양케 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개신교 계통의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등이 독립협회의 중심 인물로서 정치운동에 투신하였다. 선교회가 경영하는 사립학교는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나 교육뿐만 아니라 금주, 금연, 미신타파, 남녀평등, 일부 일처, 생활의 간소화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새로운 풍조를 일으켰다. 개신교는 주로 신흥 지식층이나 상공업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는데 특히 관서지방과 같은 신흥 상공업지대에서 그러하였다.<sup>16)</sup>

1904년 9월에 제정된 이화학당의 최초의 학칙인 당칙을 보면 1조의 목적은 “본당은 한국 중학교령에 의하여 여자에게 중학과의 교육을 베풀며 기독교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기하여 교육과 아울러 기독교 신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sup>17)</sup> 1915년 4월에 설립된 연희전문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여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며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서 국가와 민족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며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있었다. 연희의 교육은 설립 당초부터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민족과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치중하였고 교회를 위한 종교적 인물의 양성만을 기도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품격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 지력과 덕력

15) 1886년에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1890년에는 정신여학교, 1894년에는 평양에 광성학교 등이 세워졌고 1897년에는 평야에 송실학당이 1898년에는 배화학교, 1903년에는 평양에 송의학교, 1904년에는 개성에 호스돈학교, 1906년에는 대구에 계성학교와 선천에 신성학교, 1907년에는 선천에 보성학교, 광주에 수피아여학교, 대구에 신명여학교, 전주에 기전여학교, 1908년에는 전주에 신흥학교 등이 차례로 세워졌다.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22.

16) Ibid., 23. 1910년 7월 현재 전국학교 총 수 2,237개교 중 사립학교는 2082개 였는데 그 중 외국 선교회 계통의 학교로서 장로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755개였고 그 중 과반수가 관서지방에 세워졌다.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26.

17)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64

을 개발하며 체력을 발육시키는 데 두었다.18)

세브란스의 경우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 승격 청원이 1917년 5월 14일에 인가되었다. 당시의 재단법인 정관 제2조는 “차법인의 목적은 기독교 원칙에 따라서 차 기관의 설립과 유지를 위함에 있고 학교는 조선 총독부령에 의거하여 의학교육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다.19) 1926년 평양에서 설립된 송실전문학교의 정관에도 이화나 세브란스와 같이 기독교 학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반영하지만 그 목적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 제 2 조 목적

1.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독교 대학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 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확고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을 교수한다.
3. 이러한 목적의 장기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규 전임교수 전원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진실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4. 이 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독교인이나 또는 기독교인의 자녀들을 위한 기관이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절대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 기독교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은 아니다.20)

그후에 송실대학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스스로 학교를 폐교시키는데 송실대학 정관에 나타나 있듯이 기독교적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띠고 선교적 목적에 투철한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화학당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지만 비기독교 가정에서 온 학생들도 학교의 교육내용과 신앙적인 분위기에 의해 자연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믿게 되었다. 1888년 이미 학당내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조직되었고 매일의 채플이 학교생활의 일부가 되었다.21)

스크랜톤 부인이 여성교육사업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한국 소녀들로 하여금 외국

18)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51.

19) Ibid., 73.

20)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322

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96.

사람들의 생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화시키는데 있지 않고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만족하며 한국적인 것에 긍지를 갖는 한국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22)</sup> 1890년대에 가르쳐진 과목을 종합해 보면 영어(읽기, 쓰기, 작문), 산수, 생리학, 일반역사, 성경, 한문, 초등지리, 한글(읽기, 쓰기), 오르간, 노래, 재봉, 자수 등이었다.<sup>23)</sup> 1904년의 이화학당 당칙 제6조에 따른 이화학당 교과과정에 의하면 재학하는 4개 학년동안 매년 성경과목을 배우도록 되었다. 그러나 1915년에 마련된 “개정 사립학교 규칙”은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을 관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총독부가 발표한 제 학교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규정 외의 교과, 즉 성경, 지리, 역사 등의 과정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명시하여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15년의 ‘전문학교 규칙’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은 사학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였다. 일제는 이 규칙을 통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교육을 엮어매어 놓고 서서히 자기들의 의도하는 교육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사학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었던 만큼 민간인 사립학교는 주로 민족적 감정에서 일제의 이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 특히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없다는 일제의 명령에는 응할 수 없었다. 1915년 9월 개신교 선교부 연합공의회가 조선 총독에게 제출한 ‘개정 교육령에 관한 결의문’은 기독교학교의 고민과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결의문은 일본내의 교육제도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유독 한국내에서만 성경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하고 이같은 조치가 기독교학교를 전적으로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심각한 교육상의 폐해를 가져 올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sup>24)</sup>

대체로 이 때의 장로회의 견해는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독교의 포교에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유예기간 중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다가 실패하면 폐교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감리회는 성경과 종교의식을 방과후 과외로 가르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일제의 양보가 있는 만큼 총독부의 방침에 순응하여 학교를 계속하자는 현실론에 기울어지고 있었다.<sup>25)</sup>

22)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37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80에서 재인용.

2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70.

24) *Ibid.*, 123-124.

1915년의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계기로 사학, 특히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 점차 가중되는 압력이 행사되었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세계 제 2차 대전에 참전함을 계기로 점점 더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송실학당의 경우 1926년 전문학교로 승격되어 그 활동영역을 넓히기 전에도 기독교 학교로서 소임을 다하였다. 창립 때부터 전문학교로 승격하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 일별해 보기로 한다.

송실학당의 설립자 배위량(裴緯良, W. M. Baird)은 1891년 2월 1일 인천항을 거쳐 입국한 뒤 동년 9월부터 1896년 말까지 만 5년이 넘는 기간을 부산지방의 개척 선교사로서 일했다.<sup>25)</sup> 1897년 10월에 설립된 송실학교의 설립목적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교사와 교역자를 양성함에 있었다. 송실은 이러한 인재 길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 신앙의 생활화, 인격의 진지한 도야 그리고 학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탐구를 그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 정하였다. 송실학당은 선교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던 만큼 성경공부와 예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규율에 있어 주일에는 전교학생이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학교의 공적인 모임으로 예배가 있었다면 학생들의 자치적인 모임으로 기도회가 있었다.<sup>27)</sup>

학당초기부터 학생들의 학외활동은 활발하였는데 대체로 전도활동에 집중되었다. 당시 학당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선교사나 소속 교회의 한국인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만 입학할 허용했던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에 참여한 것은 학생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송실이 기독교이념으로 설립되었다는 점과 교사들 대부분이 선교사업을 제일 우선시하는 선교사들이라는 것, 그리고 학교가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이념을 구체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 등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에 더욱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203.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144에서 재인용.

26)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46.

27) Ibid., 103.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외활동도 자연스럽게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5년에는 학생들 가운데 약 삼분의 일 정도가 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개인적 전도활동과 함께 '거리 전도대'나 '마을전도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전도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처럼 기독교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은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나가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8)</sup> 송실에서 대학과정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5년부터이다. 송실대학교 내에 대학부가 설치된 것은 북장로교 선교부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리교와의 협동으로 이루어 졌다. 1905년 봄에 배위량은 서울에서 개최된 감리교 연차대회에 출석하여 한국 내 고등교육에 있어서 장로교와 감리교와의 합동방안을 제의하여 감리교 선교회는 별로 주저함 없이 찬동하였다.<sup>29)</sup>

송실대학의 경영에는 북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의 합동뿐 아니라 1912년에는 남장로교 선교부와 호주장로교 선교부도 협동에 참여하였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도 몇 해 뒤에 협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감리교와의 협동은 1917년 서울에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지속되다가 철회되었다.<sup>30)</sup> 일반적으로 송실대학은 미국 중서부의 소규모 종파대학(small denominational college)을 모델로 설립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파대학은 신학교의 준비교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대학설립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그 교육목적이 기독교 사회에 봉사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다.<sup>31)</sup> 참고로 1909-1910년의 대학 교과과정을 보면 성경과목이 4학년 내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정규대학을 목표로 설립된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4월 17일에 이르러 '사립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연합재단'과 '사립 연희전문대학'으로 인가되었다. 그 정관에는 분명히 기독교적 원리에 의한 전문학교의 설치 운영, 그리고 교직원은 모두 신앙교리를

28)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07-108

29) Ibid., 130.

30) Ibid., 132

31) Ibid., 140.

32) 1학년에는 신약사(1), 갈라디아서, 에베소서(2), 시편(2), 2학년에는 소예언서, 이사야서(3), 로마서(2), 레위기(3), 히브리서(2), 4학년에는 다니엘서(2), 요한계시록(3)등을 수강했다. 괄호안은 학점수를 의미한다. 성경과목들을 보면 신학교 못지 않게 심도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믿는 자라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었다.<sup>33)</sup> 연희의 학생모집 방침은 다른 기독교학교보다 진보적이었다. 당시 연희 전문학교 책임자들은 본교의 교육이 순전히 기독교적인 자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비기독교인들도 적당한 수를 받아들여 비교인의 수가 교인의 수를 넘지 아니할 것은 물론, 다수의 기독교인으로 소수의 비기독교 학생을 포섭 내지 동화함이 정당한 기독교 학교의 교육방침이라고 믿었다.<sup>34)</sup>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1920년 3월에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교과목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교원의 자격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종교의 분리주의를 변경하여 선교사들의 종교과목과 교육사업에도 다소 편의를 주었다.<sup>35)</sup> 1924년 연희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을 일별하면 문과는 매주 2시간씩 “성서”과목을 4년 동안 배우고, 신과는 동 과목을 매주 3시간씩 4년간 배우며, 상과는 3학년까지 매주 2시간, 수물(數物)과는 2시간씩 4년간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sup>36)</sup>

1925년 이후 단호하게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장로교 측은 기독교학교의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37년부터 종교계통학교의 탄압과 동시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이 해 9월에 대구에서 열린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종래 연전, 세의전, 송전에 파견하던 이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교계통 학교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기독교 특히 장로교에서는 극력 반대하였다. 1936년 10월에 북장로교 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는 1938년 3월까지 북장로교 계통의 학교를 폐쇄할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1936년 12월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교육인퇴에 대한 방안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10월 평양의 송실전문학교와 그 외의 북장로교 계통의 남녀 중학교 10개교, 남장로교 계통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8개교가 총독부에 폐교원을 내었다.

일제가 본격적인 신사참배 강요를 노골화한 것은 1935년 평양의 기독교학교에 대해 정기적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25년 송실대학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송실전문학교를 개편하였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스스로 학교의 문을 닫아야 하는 비운을 겪었다.<sup>37)</sup> 이 시기 동안에도 송실전문 학생들은 전도, 음악,

33)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144.

34) Ibid., 168.

35) Ibid., 171.

36) Ibid., 174-177.

37)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 시종 강경한 태도를 취한 선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였다. 그것

문예, 스포츠 등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전파했다.<sup>38)</sup>

1940년의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과목이 전무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신 윤리가 4년 내내 1학점씩 부여되었고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1학년에 2학점씩 부여되었다.<sup>39)</sup> 세브란스와는 대조적으로 연희전문학교의 경우 성서는 종래와 같이 문과는 2학점씩 4년간, 상과는 2학점씩 3년간, 이과는 2학점씩 4년간, 신과는 3학점씩 4년간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당시 연희전문학교나 송실전문학교가 다 같이 신사참배문제로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나 연전이 송전과 같이 폐쇄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송전이 미국 남장로교회 단독으로 세워졌음에 비해 연전은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연합관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41)</sup>

#### 4.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측면들

기독교 대학들은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화 학생들은 이화의 교육적 가치관이 기독교적 사랑의 실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활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학생들의 활동은 학교 안에서는 기독교적 종교활동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활동으로 집중되었다.<sup>42)</sup> 이화 학생들의 기독교 세례자의 수를 보면 1890-1891년 겨울에는 4명, 1900년에는 2명인데 1903년경에는 이화의 학생들 전부가 기독교 신자였다

은 미국 남장로교 외지 선교국의 태도가 강경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장로교 선교국 총무 풀톤(Fulton)은 1937년 2월에 내한하여 전주에서 남장로교 총회를 소집하여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라는 것을 엄격히 규명하고 폐교도 불사한다는 ‘풀톤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남장로교 선교회 계통 학교들은 신사참배에 불응하였으며 광주의 송일중학, 수피아 여학교, 목포의 영흥중학과 정명여학교, 순천 매산학교,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군산 영명학교 등 남장로교가 운영하는 10개의 학교는 모두 폐교되었다. 북장로교 선교회 본부도 1937년 10월 동선교회 경영의 학교들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지 않기로 최후결정을 보았다. 그리하여 현지선교회는 1937년 10월 29일 송실전문학교, 송실중학교, 송의여학교 등 3교의 폐교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송실전문학교는 1938년 3월로 폐교되었다.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1:496.

38) Ibid., 350.

39)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233.

40) Ibid., 257-262.

41) Ibid., 252.

4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633.



고 한다. 또 1908년의 한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기독교가정 출신이며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세례 받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다.<sup>43)</sup> 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학교의 채플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 졌다. 채플은 정해진 시간에 학교의 전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나마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이 채플만으로는 영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학생들과 선생들은 다시 부흥회를 마련하였다.

1911년에는 신학교 교수인 오기선 목사의 인도로 2주일 동안 부흥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갖는 기도 모임은 선교사 선생님들에 의해 인도되었다. 이 부흥회로 처음에는 냉랭했던 심령들이 점차 변화하여 학생들은 사죄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고 마지막 주일에는 126명의 기숙사 학생들 가운데 마지막 비신자로 남아있던 학생들까지도 신앙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sup>44)</sup> 학생들에 의해 스스로 결성된 이화 전도대는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을 맡은 김활란, 홍에스더, 윤성덕 등 7명의 전도대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20년 6월 20일 이었다. 서울을 떠나 주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평양, 신의주, 안주, 광산, 정주, 북진, 강서 등이었다.<sup>45)</sup>

학교의 설립 때부터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했던 송실의 경우 송실대학, 송실중학 기독교 학생회에서 1909년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 학생 전도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1910년에는 중국에, 1911년에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 선교활동의 첫 문을 열기도 했다. 평양송실은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어 수많은 교역자들을 배출하였고 일제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허덕이는 조선 민중에게 영적으로 소망을 주었으며 조선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전도활동과 농촌활동을 전개하여 민족에 봉사하는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sup>46)</sup>

해방을 계기로 기독교 대학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 선교사들에 의한 직접적인 운영으로부터 한국인에 의한 운영으로 점차 이양되었고 한국인에 의한 기독교 학교들의 설립이 크게 증가되었다. 해방 후 1946년 8월 15일 인가된 연희대학교의 학칙 1조는

4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625.

44) Ibid., 636.

45) Ibid., 641.

46) Ibid., 5.

다음과 같다.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기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하는 동시에 성실고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함.”<sup>47)</sup> 연희의 정신은 바로 기독교정신이며 이 기독교정신의 체득, 구현이 학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곧 연희의 설립목적이요 또한 교육목표였다. 더욱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도덕관의 해이와 퇴폐적인 풍조의 만연, 이러한 정신적 경향을 국난 극복의 신념과 부흥의 의욕으로 바로 잡아야 할 절실한 국민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때 인만큼 기독교 신앙교육의 강화가 더욱 요망되었다. 이 무렵의 기독교 신앙교육은 학교측 시책과 자발적인 학생활동의 두 가지 면으로 나뉘었다. 환도후의 기도회는 노천극장에서 한 주일에 세 차례 월, 수, 금요일에 전교 교직원과 학생이 모여 예배를 보았다. 이 예배시간에는 교목을 위시하여 교수, 국내외 내빈 혹은 초빙강사의 훈화설교를 경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의 인격을 순화하며 슬기로움을 닦아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는 소중한 도장이었다. 또한 이 예배시간은 연희의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 일을 논의하고 뜻을 모으는 모임이기도 했다. 1955년 신학년부터 학생 전원에게 필수 교양과목으로 6학점을 과하는 종교과목에 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기도회 및 종교학과 교육의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별기도회 혹은 특별 종교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신앙심의 심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1956년 4월에는 1주간에 걸쳐 교내 신앙부흥회를 연 것을 비롯하여 연례행사로 삼았다.<sup>48)</sup>

이화의 경우 1956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것 중의 하나가 종교교육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강당 건립을 계기로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집회 공간이 확보된 데에 힘입은 바 크다. 대강당 건립 후 이화에는 매일 12시부터 30분간 대강당 예배시간이 있었는데 전교생은 대학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격일로 참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오전 10시 20분부터 50분까지 학년별로 나누어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러나 본교생들의 신앙적 경험은 이 매일의 예배시간 외에도 1년에 한번씩 10월에 열리는 부흥회에서 강화되었고 심화되었다. 부흥회는 일제 말기에서 광복후의 혼란기를 통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6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부활하였다. 이 부흥회는 1956년도 한 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47)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358.

48) Ibid., 487-488.

때를 계기로 하여 연례행사로 고정시켜 계속해 나갔다는 데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sup>49)</sup>

1957년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기부행위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법인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는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 법령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sup>50)</sup> 연희와 세브란스가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의 새로운 발족과 더불어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여러 모로 이의 강화가 꾀하여졌다. 교수 및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 기독교인 여부를 중시하게 된 제1회 재단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정이라든지 혹은 신앙 강조주간의 설치가 모두 종교교육의 강화를 의도한데서 유래된 것이었다. 연세대학교의 모든 행사의 중심이요 이 학원에 봉사하는 모든 이의 신앙의 본거지인 채플시간은 학생들의 전원출석이 소망스러웠다. 이와 같은 학교당국의 종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책은 교직원 및 학생들간에 기독교신앙에 관한 관심을 높였으며 비록 신자가 아닐지라도 기독교정신을 은연중에 터득하고 감화되어 다른 대학 학생들과는 다른 기독교적인 연세인의 기풍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sup>51)</sup>

숭실대학의 재건운동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945년 9월초 숭실대학 졸업생 60여명이 평양시 서문밖교회에 모여 대학의 재건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재건안을 작성하여 다시 모이기로 했으나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고 공산당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평양에서의 재건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sup>52)</sup> 숭실대학은 1954년 4월 12일에 ‘재단법인 숭실대학’의 인가를 받았고 이어 4월 15일에는 ‘대학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1938년 3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된 지만 16년 만인 1954년 4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숭실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상의 대학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대학은 기독교 정신과 한국교육의 근본 이념에 기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성실 고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함.”<sup>53)</sup> 숭실에서는 필수 교양과목으로 성경을 어학 과목과 함께 주 2시간당 1학점으

4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344.

5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565.

51) Ibid., 618-619.

52)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백년사, vol. 2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 4.

53) Ibid., 7-8.

로 배당한 것이나 매일 30분씩 예배를 의무화한 것은 숭실대학의 특징으로서 그 건학 이념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4)</sup>

교수채용시에 받는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장로교의 헌법을 강조하고 술, 담배를 금한 것은 기독교 대학의 입장에서 당연한 방침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서약서가 교수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장로교헌법과 교리, 신조를 강조한 것은 소속 교파를 장로교에 국한시킨 것이고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은 교수 개인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애로로 말미암아 후에는 기독교인이라면 교파를 따지지 않고 사생활을 묻지 않는 범위에서 교수를 채용하게 되었다.<sup>55)</sup> 학교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채플은 1967년 10월 10일 준공, 봉헌되었으며 2층 건물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방 후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학교들 중의 하나가 명지대학이다. 1948년 7월 21일 재단법인 무궁학원이 설립되어 10년 가까이 운영되었으나 유상근 이사장은 경영난에 봉착하여 허덕이던 재단을 1956년 1월 23일에 인수하고 교육재단으로 설립정신과 교육방침 및 생활방침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라고 밝히고 있다.<sup>56)</sup>

명지대학은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3대 특성화교육 중 첫째로 기독교 신앙교육을 강조한다.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설립정신에 따라 특히 기독교교육을 교양교육의 역점으로 삼고 있는데 학생들은 3학년까지 채플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성서개론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sup>57)</sup> 오래 전부터 창설 예정이던 대학교회가 1964년 4월 1일 별관 4층에 마련되었다. 1968년에는 학장실에서 조도회를 갖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학장실에서 학장의 직접 주례하에 아침 기도회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sup>58)</sup>

54)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백년사, 2:30.

55) Ibid., 52-53.

56)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40년사(상)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9), 4.

57) Ibid., 3.

58) Ibid., 387.

### 5. 학생들의 복음 전도활동

학생들 스스로의 복음 전도활동은 학교 당국의 기독교적 여건 조성에 크게 좌우된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교 정책에 반영하며 학생들의 복음 전도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복음 전도활동의 전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의 역사에 있어 이화여대와 평양의 숭실대학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복음 전도활동을 전개해 갔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과거 기독교대학으로서 또한 여성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전통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의숙 총장의 취임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내세우는 중에 첫 번째로 기독교가치관에 입각한 인간교육의 강화를 표방했다. 이는 이화의 전통이 기독교적 지적 공동체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고 당시 점차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던 시대성을 뛰어 넘어 보다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기독교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종전의 교목실을 개편해서 교목실장 중심체제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종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로 종전의 기독교 문학을 보다 폭 넓은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인식으로 수용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심화시켰고 종교와 가치문화를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했으며 전교생에게 필수 교양과목으로서 몇 가지 중점 내용에서 변이도를 두어 각자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게 조치했다. 셋째로 교내의 기독교 종교서클과 그 밖의 종교관계 학생서클 활동의 지도를 교목실에 일임함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해서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도할 수 있게 했다. 넷째로 채플의 시간제를 합리화했고 채플내용을 다양하면서도 기독교적 신앙인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이처럼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화는 기독교적 신앙을 젊은 이화인들이 삶의 양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현실화로 나아갔다.<sup>59)</sup>

연세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종교활동은 S.C.A.(기독교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어떤 자치활동 분야보다 활발하였고 그 성과 또한 풍성했다. S.C.A.가 조직된 것은 연희의 창립과 때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간 학내외에서 신앙과 선교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

5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419-320.

다. S.C.A.에서는 매년 신입생 환영예배를 주최하였으며 때로 기도회에서 헌신예배를 주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내 활동 못지 않게 교외활동도 활발하였다. 1953년 하계 방학에 용인, 여주, 인천, 함안 등지에서, 1954년에 울릉도, 1955년에도 울릉도를 비롯하여 흑산도, 안면도, 용인, 과천 등지, 그리고 1956년에는 경기도 과천에 회원을 파견하여 농촌 계몽 및 전도사업을 전개했다.<sup>60)</sup>

1954년에는 전국 대학에 학도호국단이 구성되었는데 송실대학이 지닌 기독교적 배경은 학생활동에도 반영되었다. 학도호국단과는 별도로 재학생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기독교학생회는 전교적인 조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1957년 5월 7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학도 호국단과 기독교학생회가 통합되었다.<sup>61)</sup> 매년 학생회에서 학생 전도대를 파견하였고 1966년에는 총 30명의 대원이 6개 반으로 나뉘어 경북 영천군 안정면 오계동 일대와 강원도 삼척군 도계면, 북평면, 황준면 일대, 충남 아산군 염티면 일대, 충북 청원군 내수면 일대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하기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많은 전도집회를 열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sup>62)</sup>

1970년 송실대학과 대전대학이 통합되어 송전대학으로 바뀐 뒤에도 서울과 대전 캠퍼스에서는 각기 다양한 전도활동을 전개했다. 1982년 대전 캠퍼스가 분리해 나갔고 1986년 11월 1일에는 송실대학교 교명 환원이 문교부로부터 공식 승인되었다. 1995년에는 교과과정이 전면 개편되었는데 교양과목은 교양 필수과목과 교양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지며 필수과목은 기독교 과목, 법정 과목, 언어 표현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독교 과목은 기독교 개론, 성서 개론, 기독교 사상사 등 3과목 6학점과 채플이 있는데 채플은 6학기 동안 규정된 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따로 부여된 학점은 없었다.<sup>63)</sup> 종교분과로 기독교학생회, 카톨릭 학생회, 한국기독교학생회(IVF), 죠이선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이 있어서 활발하게 복음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지학원은 설립정신에 따라 교목실을 두었다. 교목실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앙 및 인격을 지도하며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교목실에서는 대학교의 예배, 성경공부, 기독교교육, 신앙지도 및 기독교학생회의 활동

6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1:618-619.

61)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백년사, 2:85.

62) Ibid., 108.

63) Ibid., 291.

후원, 상담, 대외기관과의 유대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sup>64)</sup>

연세대학교에서는 1962년에 교목실이 신설되어 기독교 행사에 대한 실무와 학생들의 개인적인 신앙문제를 담당하였다.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정기 행사로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채플, 직원과 용원들을 위한 별도의 채플, 그리고 신앙 강화주간과 교직원수양회가 있었다.<sup>65)</sup> 1962년 신학기 초부터 기도회시간표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매주 3회의 기도회시간이 2회로 줄어들었으며 각 단과대학별 기도회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게 되었다. 1969년 6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생 37.1 퍼센트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인데도 채플 출석이유에 대하여 41 퍼센트가 강제적이므로 참석한다고 하였으며 52 퍼센트가 채플 형식이 자유로운 학술강연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72 퍼센트가 채플이 연세인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970년 11월 26일 신과대학 학생회는 신과대학 채플시간에 최초로 학생 실습예배를 실시했으며 의무적 채플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예배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sup>66)</sup>

연세대학교의 대학교회는 1962년 4월 22일 부활절에 설립되었다. 학원내의 기독교 분위기 조성 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회는 1975년 1월 교목실에서 대학교회를 관장하면서부터 교목실장이 담임목사를 겸하고 있다.<sup>67)</sup> 기독교학생회는 매년 하계, 동계 방학에 지방 순회 계몽 전도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봉사반으로 나누어 지역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봉사, 여름 성경학교, 근로봉사, 문맹퇴치, 의료진료 봉사, 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하였다. 이 농촌 계몽활동은 본래 농촌 전도 계몽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농촌봉사활동으로 전개되었다.<sup>68)</sup>

자유출석제로 바뀐 1981년도 1학기 채플 출석률은 1980년 1학기의 36.2퍼센트보다 3.6퍼센트 증가된 39.8퍼센트였고 1982년 1학기에는 42.2퍼센트로 비교적 증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것은 70퍼센트를 넘는 1학년의 출석률에 거의 의존하는 기록이며 2, 3, 4학년의 출석률은 10퍼센트 이하였고 1 학기에는 비교적 높은 출석률은 2 학기

64) 명지학원 40년사, 814-5.

65)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2:180-181.

66) *Ibid.*, 183-184.

67) *Ibid.*, 188.

68) *Ibid.*, 219.

에는 20 퍼센트를 밀돌았다. 이러한 채플에 대한 무관심은 1983년 2학기에는 출석률 14.9 퍼센트를 기록하여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학생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실험채플은 채플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반면에 채플의 근본적 성격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연세대학의 재학생과 교직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초에 각각 약 40 퍼센트와 90 퍼센트를 보였다.<sup>69)</sup> 다른 일반대학의 기독교인의 비율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며 특히 교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기독교인인데 이는 채용과정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연세에서는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하여 기독교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정하여 “기독교 개론”은 3 학점 씩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1976년부터 실시되었고 그 이전에는 ‘종교 I’, ‘종교 II’로 나누어 각각 기독교란 무엇인가, 성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하였다.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기독교 과목 외에도 자유롭게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성서 연구모임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직원들을 위한 성서 연구모임도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70)</sup>

## 제 2 절 학원복음화의 현황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서는 어떠한 복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설문 자료를 분석하고 신흥대학의 복음화 전략수립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학원복음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2년제를 포함한 전국 40여 개의 대학에 보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0 퍼센트 정도로 다소 회수율이 저조하였으나 한국대학의 복음화 현황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설문의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관련 과목의 종류와 수강시기 및 학점에 관한 것이었다.

69)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2:657-658.

70) Ibid., 658.



<표 1> 귀 대학에서는 어떤 기독교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언제 수강해야 합니까?

대학	기독교과목 수강시기, 학점
계명문화대학	현대인과 성서 (2학점)
숭의여자대학	기독교와 문화(교양필수 2학점),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수강
인덕대학	1학년 1학기 중 1학기 이수(2학점)
전주공업대학	기독교 진리(1학년 1, 2학기, 각 1학점 필수), 결혼과 가정(2학년 2학기, 1학점 선택)
전주기전여자대학	기독교 문학(신, 구약 개론),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각 1학점 필수)
전주대학교	신약과 기독교(1학년 1학점), 구약과 기독교(2학년 1학점)
천안대학교	기독교의 이해(I, II): 1학년 교양필수, 1학점 성서와 인간(I, II): 2학년 교양필수, 1학점 기독교인의 생활윤리(I, II): 3학년 교양필수, 1학점 기독교와 현대사회(I, II): 4학년 교양필수, 1학점
한남대학교	현대인과 성서(1학년 3학점, 필수) 교양선택: 성경과 과학(3학점), 기독교 음악의 이해(2학점), 기독교 세계관(3학점), 기독교 교육의 이해(2학점)
신흥대학	기독교의 이해(2학점, 1학년 교양필수)

전주대학교, 천안대학교와 한남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설문에 응답한 학교들은 전부 전문대학이다. 전문대학은 짧은 수학 기간 중에 많은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다양한 기독교 과목들을 개설하기 힘들고 대개 1학년 중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교양과목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4년제 대학도 예외는 아니지만 한남대학교의 경우 교양 선택으로서 다양한 기독교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천안대학교는 매 학년마다 기독교 과목을 교양필수로 부과하여 기독교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질문은 채플에 관한 것이다.

<표 2> 귀 대학의 채플은 어떻게 진행되며 수강시기 및 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	채플의 수강시기 및 학점
계명문화대학	매주 1회 참석 (현대인과 성서 2학점 중 2시간 강의, 1시간 채플)
숭의여자대학	재학연한인 4학기 동안 출석, P학점
인덕대학	매주 화요일 5회 실시(주야 수업 중 1회 수강), 2학기 이수, P학점
전주공업대학	매주 1시간,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각 1학점
전주기전여자대학	매주 화요일 주간 1, 2학년과 야간학생을 대상(3회), 2학년 2학기까지 P학점
전주대학교	수업과 같이 진행됨, P학점
천안대학교	8학기 교양필수, 각 학기당 1학점
한남대학교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교양 필수, P학점
신흥대학	2년제 학과는 2학년 1학기까지, 3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까지, P학점

기독교 과목과는 달리 채플은 대개 p(pass)학점을 부여하며 학생들이 2학기 이상을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플은 1 주일에 1회 1시간 정도 진행되므로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도 없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들이 채플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과 교목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육성과 활용은 학원복음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의 주체는 결국 기독교동아리이므로 대학에서 기독교동아리를 어떻게 인식하며 동아리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학원복음화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교목실이 기독교동아리의 설립에 대한 인가를 포함하여 기독교동아리들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 기독교동아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외부의 선교 단체와 간사들이 학내에서 비

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교목실이 기독동아리들을 적극 지도, 지원하고 있으며 기독동아리들이 비교적 많은 대학에서는 기독연합학생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3> 귀 대학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합니까?

대학	기독동아리 활동
계명문화대학	교목실과 교수선교회에서 기독동아리 지원함. 바울, IVF, CCC, SFC, 비들합창 등
숭의여자대학	CCC, JOY, 한사랑 선교회의 3개 동아리 활동 교목실의 직접 지도를 받는 동아리: 성가대(글리 클럽)
인덕대학	기독학생회(ICA):교목실과 연계하여 선교활동, 채플시간 찬양 CCC: 자체 동아리
전주공업대학	기독학생회: 기독학생들의 대표적 기관으로 교목실 산하에 있음. 1부, 2부대로 나뉘어져 있음. 성경공부와 영성훈련, 학원선교 및 대내외 봉사활동 수행. 책임 봉사자 15명에게 매학기 신앙장학금 지급하며 졸업시 5명에게 신앙상 수여. 기독학생회는 독립적 자치기구임. CCC, SFC, DSM 선교회: 교목실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기독학생회와 협력하는 선교단체로서 교내 선교활동을 분담하며 각 선교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체 모임을 가짐. 각 선교회는 동아리로 소속되어 있으며 교목실의 지도, 후원을 받음.
전주기전여자대학	기독동아리가 있으며 교목실의 허락을 받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를 받도록 하며 선교활동에 기여함. 한편 기독학생회가 있어 동아리와 연계되어 있음.
전주대학교	기독학생회 산하에 크로스 합창단, 가스펠, CCC, ESF, 아가페, 한사랑등 17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음.
천안대학교	열린문, FOR LORD, CEM, CUM, CCC, IVF, 예수전도단, 임마누엘 태권도 시범단, 베리타스 등이 있으며 문서선교, 찬양선교, 어린이 선교, 신학연구 등의 활동을 위주로 교목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음.
한남대학교	15개 정도의 기독동아리가 자치적으로 활동하며 기독학생들로 구성된 기독학생 연합회가 교목실의 지도를 받아 활동함.
신흥대학	CCC, SCM, 예향인의 3개 동아리와 태동 중인 1개의 동아리가 교목실과 교직원 선교회의 지도와 지원하에 채플 찬양봉사 및 기타 자체적 선교활동을 전개함.

설문의 마지막 질문은 교직원선교회 조직과 대학교회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다. 교직원선교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학원복음화를 지원하고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때 궁극적으로 학원복음화는 앞당겨 질 수 있다. 학원복음화의 사명을 교목실과 기독교동아리에만 맡긴다면 학원 복음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다. 학생, 교직원, 교목실을 포함한 학교당국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원복음화를 추진해 나갈 때 풍성한 복음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교직원 선교회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교직원선교회가 없는 대학도 있고 교직원 선교회의 활동이 매우 왕성한 대학도 있다. 교직원선교회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학의 교직원의 복음 활동이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천안대학교는 채플을 포함한 기독교 교육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시행되는 대학중의 하나이며 교직원들이 대학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신우회조직이 없는 경우이다. 한남대학과 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이 확립된 대학들은 굳이 신우회가 없어도 제도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교직원 선교회나 신우회가 조직된 대학은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을 진작하고 학교에서 보다 큰 복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신흥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지만 적극적으로 선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인원은 적은 편이다. 과반수가 선교회에서 능동적인 복음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선교정책의 일환으로써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 중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들의 역사를 일별하였다. 선교와 교육과 사회봉사의 사명을 기독교 대학들은 훌륭하게 감당해 왔고 해방 이후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학원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수행했던 과거의 전통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학원복음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귀 대학의 교직원 신우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귀 대학에 대학교회가 있는지요? 대학교회와 신우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대학	신우회의 존재여부, 성격, 대학교회의 존재여부
계명문화대학	교수 선교회가 있으며 대구지역 교수 선교회와 전국교수선교회에 소속되어 매주 모이고 있음
숭의여자대학	교직원 신우회는 없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교직원이 기독교인이다. 1주일에 1회 교직원 예배를 드림(권장 사항). 학생 채플에 교수의 1/3 정도 참여함.
인덕대학	신우회는 없고 교직원 채플시간이 교수와 직원을 구분하여 다른 요일에 오전 8시 30분에 있으며 교직원은 필히 참석해야 함. 대학내에 인덕대학 교회가 있음.
전주공업대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직원으로 구성된 직장선교회가 있음(1989년에 조직). 활발하게 대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선교장학금을 지급. 월 1회 모여 예배, 월례회를 가짐. 대학내에 별도의 대학교회는 없음.
전주기전여자대학	신우회 조직이 없고 대학교회도 없음. 교수들간에 그룹성경공부가 있다.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와 직원신우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교회가 있으나 선교회(신우회)와는 무관하다. 선교회(신우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정기예배를 드림.
천안대학교	신우회는 없고 대학교회가 있다. 전 교직원은 대학교회에 출석하도록 한다.
한남대학교	신우회는 없고 매주 교직원 예배를 드림.
신흥대학	교직원 선교회가 있으며 매주 정기 예배를 드림. 교목실과 협조하여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대내외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대학교회는 없음.

## 제 3 장

### 신흥대학의 복음화현황

본 장에서는 신흥대학의 복음적 상황에 대하여 개관하려고 한다. 첫째로 신흥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분석하되 신흥대학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북부지역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서 의정부시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흥대학생의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학생 중심의 선교적 활동과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교직원 중심의 선교 활동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신흥대학의 복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친다.

#### 제 1 절 지역사회 분석 및 신흥대학 연혁

##### 1. 지역사회 분석

###### 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5퍼센트, 경기도 총 인구의 25퍼센트를 차지하나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평화 통일 기반 조성 and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조짐 등으로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은 같은 경기도에 속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의 부진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보다 높은 소득의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진출 가는 현상도 빚어졌고 각종 개발 부진에 따라 공업 및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주민생활수준은 날로 낙후되어 갔다.

1999년 4월 2일부터 11일 동안 경기 북부 10개 시, 군 및 김포시를 대상으로

2,425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sup>71)</sup> 시, 군을 떠날 생각을 한 사람이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66.3퍼센트였고 이주 원인의 첫 번째 이유로 생활불편이 9.4퍼센트, 직업, 직장 변경이 7.1퍼센트, 교육환경 열악이 6.4퍼센트, 경제적 어려움이 2.8퍼센트 등이었다. 타 지역 이주의 두 번째 이유로 교육환경의 불비가 8.1퍼센트, 생활불편이 6.2퍼센트, 직업, 직장의 변경이 2.3퍼센트였다. 대학 교육환경 만족도에 있어 불만족이 33.9퍼센트, 매우 불만족이 33.1퍼센트, 보통이 27.8퍼센트, 만족이 4.4퍼센트로 나타나 67퍼센트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유치산업으로 관광, 레저, 문화산업이 37.6퍼센트, 교육 산업이 15.5퍼센트, 첨단산업 12퍼센트, 환경친화 산업 11.3퍼센트, 향토 특화산업 9.4퍼센트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의 주민 70퍼센트 이상이 경기 남부지역보다 낙후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각 종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도 행정은 북부의 특수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반론적으로 일괄 처리되어 왔다. 이 지역의 불균형적 낙후성은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수도권역에 해당되면서도 수도권의 성장과실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국토의 균형개발 전략인 수도권 성장억제의 각 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접경지역<sup>73)</sup>으로서의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원 보호법, 그리고 개발제한의 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를 받았다.

특히 이 지역은 거의 전역에 걸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있어서 군사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악화는 물론 각 종 개발의 장애와 경제낙후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은 북한과의 대립상태로 말미암아 군사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북한에 대한 개방 유도식의 통일방안이 가닥을 잡으면서 이 접경지역을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

71) 신흥대학,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연구 (의정부: 대신기획, 1999).

72) Ibid., 31-39.

73) 접경지역이란 첫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 군 관할지역에 속하는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며 둘째로, 남북한계선과 민간인통제선 사이 지역 중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며 셋째로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경기도, 접경지역 지원법 (2000), 5.

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 변화는 휴전선 접경지역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즉 국방기지에서 통일의 전초기지로써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 지리적 여건이 서울에 근접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남부지역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규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경제활동 입지여건을 악화시킨 까닭에 일자리 부족, 잠재적 소득의 포기, 지역 이미지의 악화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다. 개발의 방향은 통일의 전초기지로써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작금에 이 지역상황이 타지역,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점을 고려할 때, 통일대비를 위한 지역개발은 급작스레 도래할지도 모르는 통일의 과도시기에 발생할 큰 혼란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전기한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통, 도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5퍼센트가 불만이었고 의료, 보건 환경은 42.2퍼센트가 불만, 문화시설, 활동에 대해서는 65.6퍼센트가 불만이었으며 시, 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서는 중앙 정부의 개발의지 및 재정지원 부족이 26.9퍼센트, 지역개발 여건미비가 25.6퍼센트, 교통불편이 13퍼센트, 도, 군의 개발의지부족이 12.2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시, 군 지역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유치산업은 관광, 레저, 문화산업이 37.6퍼센트, 교육산업이 15.5퍼센트, 첨단산업이 12퍼센트, 환경친화산업이 11.3퍼센트, 향토특화산업이 9.4퍼센트, 유통업이 7.3퍼센트를 차지했다. 시, 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로는 공원, 녹지조성이 12.4퍼센트, 자연생태공원이 10.6퍼센트, 공장이 8.2퍼센트, 의료시설이 6.9퍼센트, 철도가 6.6퍼센트, 레저시설이 6.1퍼센트로 조사되었다.<sup>74)</sup>

대학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는 불만족이 67퍼센트에 달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도내 33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포천의 대진대학, 포천 중문의과 대학, 고양시의 한국 항공대학교) 대학생 수도 12,000에 미달하여 경기도 전체 대학생수의 7.6퍼센트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47.1퍼센

74) 신흥대학,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연구, 32-34.



트가 불만족하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51퍼센트가 불만족,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50.2퍼센트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지역개발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39.6퍼센트, 지역특성을 살린 단지 및 상품개발지원이 22.7퍼센트,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분위기 조성이 14.8퍼센트, 개발보조금 지원이 9.9퍼센트, 경기북부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문화벨트 조성이 7.6퍼센트, 해외 및 외지인 투자유치가 4.1퍼센트였다.75)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우선적 반영사항으로 환경보존대책이 35.1퍼센트, 경제활성화 시책이 26.5퍼센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17.5퍼센트, 통일대비 거점마련이 7.3퍼센트, 세금 및 재정특혜가 7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상과 같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주민 스스로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각 종 객관적 통계자료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통계치를 통하여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5> 경기 남북지역의 일반현황 비교

자료: 경기도 북부출장소, 북부지역 주요통계(1996)

항목	계	경기남부	백분율	경기북부	백분율	비고
행정구역	31	21	68	10	32	시, 군
면적	10,163	5,854.92	57.6	4,308.08	42.4	km <sup>2</sup>
인구	7,438,262	5,819,242	57.6	4308.08	42.4	
인구밀도	690	994		376		km <sup>2</sup> 당
예산규모	64,104억	50,514억	78.8	13,590억	21.2	
자립도(평균)		59.2		46.8		

75) 신흥대학,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연구, 36-37.

〈표 6〉 경기북부지역의 인구현황과 추이

자료: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1999), 23

구분	1990년	1997년	증가율(백분율)	인구밀도
전국	42,869,000	45,991,000	1.0	463
경기도	6,155,632	8,514,716	4.7	836
경기북부지역	1,400,922	2,208,793	6.7	483
의정부시	212,368	307,751	5.4	3,754
동두천시	71,448	74,165	0.5	775
고양시	244,755	720,355	16.7	2668
구리시	109,418	164,887	6.0	4,952
남양주시	125,513	279,681	12.1	608
양주군	84,678	102,967	2.8	332
포천군	110,919	143,023	3.7	173
가평군	50,951	56,698	1.5	67
소계	1,010,050	1,849,527	9.0	633
파주시	185,046	178,367	-0.8	261
김포시	144,521	125,532	-2.0	453
연천군	61,305	55,367	-1.4	217
경기남부지역	4,783,337	6,306,073	4.0	483

그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 및 경기북부 현안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다. 경기도 제2청사가 설치되면 220만 북부지역 도민들의 민원불편이 해결되며 북부지역 현안에 대한 독자적 해결능력이 커진다.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한을 잇는 철도복원 사업 등이 제4차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1999년 10월 27일 209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여 동년 12월 1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제약에 묶여 발전이 부진하였으나 남북화해시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여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배려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 나. 의정부시의 특성

신흥대학이 위치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시와 더불어 재정자립도도 높고 인구도 많은 행정의 중심도시이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경기도 제2청사가 의정부관내에 건축 중에 있으며 2001년 말 준공예정인 제2청사가 준공되면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서울북쪽의 관문도시이자 경기북부의 교통, 산업,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 도시이다. 경원선과 평화로가 시가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교외선이 도봉산 서쪽 기슭을 감싸 돌며 43번 국도는 천보산 분수령을 넘어 철원방면으로 연결되는 등 한수 이북의 심장부를 형성하고 있어 의정부시는 옛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왔다. 한편 남쪽으로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와 시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양주군 주내면과 포천군 소흘읍, 서쪽으로는 양주군 장흥면,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의정부시의 관내 주요기관으로서 경찰서 본서 1개소, 파출소 11개소, 소방서 본서 1개소, 파출소 3개소, 의용소방대 3개소, 법원(지원) 1개소, 등기소 1개소, 검찰(지청) 1개소, 교도소 2개소가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시와 더불어 행정적,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시이다.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에서 의정부시로 승격되어 발전을 거듭해 온 의정부시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인구면에서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시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행정구역은 행정동 13개, 440개 통, 2,584 반으로 구성되며 시의 면적은 81.98km<sup>2</sup>에 달한다.<sup>76)</sup> 1999년 말 현재 토지는 임야가 50.12 km<sup>2</sup>(61.1퍼센트), 대지가 6.78km<sup>2</sup>(8.3퍼센트), 답이 7.69km<sup>2</sup>(9.4퍼센트),

76) 의정부시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0.8퍼센트를 차지한다. 참고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들로는 양평이 878.29 km<sup>2</sup>(8.6퍼센트), 가평이 843.59km<sup>2</sup>(8.3퍼센트), 포천이 827.11 km<sup>2</sup>(8.0퍼센트)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구리로서 33.30 km<sup>2</sup>(0.3퍼센트)이다.

전이 6.41km<sup>2</sup>(7.8퍼센트) 기타가 10.98 km<sup>2</sup>(13.4퍼센트)이다. 재정은 세외수입 41.67퍼센트, 지방세 23.13퍼센트, 지방양여금 2.76퍼센트, 지방채 13.28퍼센트, 지방교부세 3.8퍼센트이며 보조금은 15.36퍼센트로서 총재정은 220,615백만 원에 달했다.

의정부의 인구밀도는 2912명/km<sup>2</sup>으로 전국평균 인구밀도가 94년 현재 451.3명/km<sup>2</sup> 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며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서 장암지구, 신곡지구에 향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과중한 인구밀도가 계속되어 교통, 환경오염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의료인수는 인구 만 명당 39.8명으로 93년 말 현재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1인이 담당하는 의정부시 주민수는 1,273명으로 전국 평균 855명에 비해 상당히 뒤진다. 공원 녹지비율에 있어서도 도봉산과 수락산이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낮은 녹지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오, 민락지구 등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녹지면적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의 경우 인구 만 명당 4.36개로 도심에 많은 약국이 분포해 있으나 도시를 벗어난 변두리 주민들은 의료기관 혜택뿐 아니라 기본적인 약국혜택도 못 받고 있다.

교육복지면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47명으로 아파트 건립에 앞서 학교 부지확보와 학교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57.8퍼센트에 달하지만 의정부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없으므로 서울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4년제 대학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복지시설도 인구에 비해 전반적인 복지시설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81.5퍼센트로 타 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의정부시의 생활여건이 타 수도권 도시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주택보급률은 68.1퍼센트로 타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나 신곡, 장암, 호원동, 금오, 민락 지구 등에 아파트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시장, 백화점 수도 인구 만 명당 0.25개에 불과해 생필품 구입에 많은 불편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생필품이나 상품구입을 서울에 의존하므로 결과적으로 의정부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이나 의정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가 필요하다. 문화 공간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말 IMF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 의정부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44,780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6,351명이 증가했고 2000년 12월 31일 주민은 361,131명이다.

〈표 7〉 의정부시의 삶의 질 수준<sup>77)</sup>

평가분야	평가항목	데이터	순위	비고
건강한 생활	수질 오염도	32.2	59	별도지수
	의료인 수/인구 만 명당	39.8	41	단위: 명
	공원 녹지 비율	32.8	59	단위: 퍼센트
	약국 수/인구 만 명당	4.36	46	단위: 개
	대기 오염도	52.02	62	단위: 퍼센트
안전한 생활	화재발생건수/인구 만 명당	5.25	51	단위: 건
	유형업소/인구 만 명당	6.67	36	단위: 개
	범죄발생건수/인구 만 명당	373.24	51	단위: 건
	강력범죄발생건수/인구 만 명당	1.55	9	단위: 건
	교통사고 발생건수/인구 만 명당	65.06	16	단위: 건
	경찰관 수/인구 만 명당	18.92	45	단위: 명
	소방장비 수/인구 만 명당	1.30	43	단위: 대
교육복지	사설학원 수/인구 만 명당	9.06	61	단위: 개
	4년제 대학정원 수/인구 만 명당	0.00	47	단위: 명
	학급당 학생수	47.1	61	단위: 명
	복지시설 수용인/인구 만 명당	7.30	57	단위: 명
	사회 복지비	12,726	22	단위: 백만 원
	대학진학률	57.8	45	단위: 퍼센트
경제생활	재정 자립도	81.5	16	단위: 퍼센트
	1인당 예산규모	790,119	29	단위: 원
	시,군 통합여부	0	36	0:비통합1:통합
	25평 아파트 전세가격	3500	55	단위: 만원
	장바구니 물가	28,000	36	단위: 만원
	취업률	97.0	44	단위: 퍼센트
편리한 생활	주택 보급률	68.1	58	단위: 퍼센트
	상수도 보급률	86.4	54	단위: 퍼센트
	도시가스 보급률	30.0	19	단위: 퍼센트
	자동차 주행속도	30.0	37	단위: km/시
	시장, 백화점 수/인구 만 명당	0.25	52	단위: 개
	행정 서비스 수준	153	39	단위: 초
문화생활	음악, 연극무대 객석 수/인구 만 명당	30.09	46	단위: 석
	영화관좌석 수/인구 만 명당	47.63	52	단위: 석
	전시공간 면적/인구 만 명당	2.22	44	단위: 평
	공공도서관 장서수/인구만 명당	918.35	61	단위: 권
	서점 수/인구 만 명당	2.01	29	단위: 개

77)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1995).

1999년도의 의정부시의 사업비는 1728억 2천 3백만 원으로 국비 15,241백만 원, 도비 13,085백만 원, 시비 109,206백만 원, 기타 35,291백만 원으로 구성되었다.<sup>78)</sup> 주요 사업비로는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수해 복구사업 및 풍수해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했으며(도로 및 하천수해 피해복구 사업,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풍수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중랑천 정비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적극 지원으로 '으뜸 복지'시정을 구현했고(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지원, 장애인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청소년육성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도시공간의 재정비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용수공급 및 수질정화시설의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의정부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의 개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의 개설, 국도 3호선 국도대체 개설, 회룡가도교 확장, 송추길 확장, 국도 3호선(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의정부 경전철 건설 민자유치 사업, 의정부 1동 지하주차장 건립, 의정부교 교체 등이 그것이다.

또한 행정의 고품질화를 추진하여 기획보도, 지역현안 사항 설명회, 청사시설의 보완 및 확충, 민원종합행정 시스템구축, GIS(지리정보 시스템) 사업추진,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 등을 수립했다. 낙후된 문화, 예술,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문예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기타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무료전화의 개설, 인터넷 정보마당,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평가제 시행, 취득세 신고 이동 창구 운영, 시청사 상설 전시장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참고로 1996년 도정주요 통계(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각 시, 군의 전체 평균자립도는 71.3퍼센트이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74.6퍼센트, 고양시가 83.5퍼센트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과천시(95.1퍼센트), 수원시(93.3퍼센트), 안산시(90.8퍼센트) 등이며 도 전체재정자립도 평균 71.3퍼센트 이상이 되는 시, 군은 총 11개 시, 군으로 이

78) 제 37회 '99 통계연보, 의정부시.

중 남부지역에 9개 시, 군이 해당되며(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군) 북부지역은 의정부시와 고양시의 2개 시가 해당된다.

1999년 말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이 24.1퍼센트, 다세대 주택 10.8퍼센트, 연립주택 4.0퍼센트, 비거주용 건물은 2.9퍼센트이며 아파트는 58.2퍼센트로서 점점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2개, 고등학교 9개, 중학교 10개, 초등학교 19개, 유치원 49개 등 총 89개가 소재한다. 교원수는 전체 2,417명 학생은 72,158명이며 그 중 전문대학 교원수는 308명, 학생수는 9,525명이다. 전문대학으로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이 있으며 경민은 18학과 3,765명이 재적하고 있으며(남 2,207, 여 1,558) 신흥은 26학과 5,760명이 재적(남 2,694, 여 3,066)하고 있다. 교원 수는 경민이 117명, 신흥이 191명이며 사무직원은 경민이 30명, 신흥이 82명이다. 입학자수는 경민이 2,257명, 신흥이 3,296명이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종교상황을 보면 1998년 말 현재 기독교교회 254개, 교직자 468명, 천주교성당 7개, 교직자 11명, 불교사원 57개, 승려 123명, 천도교교당 1개, 교직자 1명, 원불교사원 1개, 승려 1명, 기타종교 교당이 12개, 교직자가 19명이었다. 의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망월사 등 사찰이 많고 기타 무속 종교가 강한 지역이다.

## 2. 신흥대학 연혁

신흥대학은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며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치기 위하여 인격의 완성,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교훈은 '신의, 실질, 근면'으로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의를 지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또 언제나 근면하게 임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신흥대학의 교육목표를 보면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실용교육, 인성교육, 전문인 교육으로 실무능력 배양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21세기 지식 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sup>79)</sup>

첫째, 실용교육이라 함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실용교육을 통한 특성화 교육과 교

79) 신흥대학, 대학요람 (2000), 1.

육이 생산화되고 생산이 교육화되는 실무교육을 의미하며 둘째, 인성교육은 신의와 근면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 및 생활인교육과 전통문화계승과 새 문화창조에 기여하는 민족교육을 의미하며 셋째, 전문인교육은 지역사회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재 양성교육과 산, 학, 관의 연계로 투철한 직업관을 지닌 전문직업인 양성을 의미한다.

신흥대학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에 재단법인 신흥학원이 설립되어 신흥농업 고등학교가 동두천에서 개교하였고 같은 해 초대 이사장에 강신경이 취임하였다. 1961년에는 신흥중학교가 설립인가되었으며 1963년에는 신흥농업고등학교가 신흥실업고등학교로 개편인가되었다. 1966년에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정관변경이 인가되었고 1967년에 신흥여자 중학교 및 신흥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 인가되었다. 1971년에 학교법인 신흥학원 신흥보건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임상병리과와 식품 영양과 각 40명씩 설치인가를 받아 드디어 1972년 3월 신흥보건전문학교의 역사적 개교를 보게 되었다. 보건 계통으로 시작한 신흥대학은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에는 교명을 신흥보건전문대학에서 신흥실업전문대학으로 바꿈으로써 보건분야뿐 아니라 실업분야 여러 과들을 유치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신흥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8년 5월에는 신흥전문대학을 현재의 신흥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0년 5월 1일 현재 신흥대학은 보건계, 간호계, 가정계, 공업계, 사회실무계, 예능계의 6개 계열에 총 24개 과(계열 포함)에 주간 1,920명, 야간 760명 총 2,680명의 입학정원을 보이고 있다. 대학기구로서는 대학본부에 교목실, 교수회,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장학심의 위원회, 학생지도 위원회, 취업지도 위원회, 교원 정년보장 심의 위원회, 대학발전 위원회, 정보화 추진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 예결산 자문 위원회, 학술연구 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대학본부에 속한 처급 행정기관으로 교무지원처, 산학협력처, 국제교류협력처, 사무처가 있다. 대학 부속기관으로는 문헌정보관, 신문사, 방송국, 예비군대대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3개의 부설연구소(지역사회 개발 연구소, 보건환경 과학연구소, 정보산업 연구소)가 있고 부설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이 있다.<sup>80)</sup>

2년제 사립전문대학인 신흥대학은 설립자이자 현 이사장인 강신경을 빼고 생각

80) 신흥대학, 대학요람, 3-4.



할 수 없다. 1995년 7월 1일자 크리스찬 라이프지는 강신경을 선교, 교육, 봉사로 헌신한 칠십 평생, 인간상록수로 소개한다. 강신경은 1929년 10월 9일 평양에서 출생하여 1945년 평양공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53년에는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육군군목으로 복무하였고 1953년 동두천에서 안흥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1960년 4월에 학교법인 신흥학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197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신흥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동두천시 기독교 연합회장을 역임했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 3,000여 교회의 연합회인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1960년 4월 학교법인 신흥학원을 설립했고 1960년 5월에 신흥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67년 12월에 보영여자중학교와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를 설립했다. 1971년 12월에 신흥대학을 설립했고 1978년에는 학교법인 신천학원을 설립과 함께 김천대학을 설립했다. 1983년에는 경기도 벽제에 소재한 지선중학교를 인수했고 1990년에는 벽제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94년에는 안산공과대학을 설립했고 1995년에는 외국인학교인 인디언헤드스쿨을 설립했다. 최근 들어 1999년에는 한북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선교사업으로 1953년 10월 안흥교회의 설립을 비롯, 1955년 금오리교회를 설립했고 1956년에는 늘목리교회, 1958년에는 성은교회, 1979년에는 신흥교회, 1980년에는 상월곡동교회를 설립했으며 1978년에는 한국선교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봉사활동으로는 1953년 사회복지법인 안흥보육원을 설립했고 195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안흥모자원을 설립했다. 이어서 1970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강제복지원을 설립했고 1992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신흥간병요양원을 설립했고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신망애 교육원을 설립, 건축 중에 있다. 강신경은 약 반세기에 이르는 선교, 교육,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1997년 11월에 한국기독교 선교대상에서 교육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신흥대학은 설립자 강신경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 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신흥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복음화에 대한 의지나 실질적 활동이 매우 빈약했다. 학원복음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채플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시행되었고 1998년부터는 교양필수로서 '기독교의 이해'가 개설되었다. 기독교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교직원선교회의 활동도 미미하였다. 2, 3 절에서는 각각 기독교 동아리와 신흥대학 교직원선교회의 복음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학원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교직원중심의 소그룹활동에 대한 배경을 삼고자 한다.

## 제 2 절 기독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활동

### 1. 신흥대학생 분석

복음전파의 주된 대상인 학생들의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대학 학생생활 연구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본 연구자가 '기독교의 이해' 시간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신흥대학생들의 제반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자료 공히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다소간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성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sup>81)</sup> 본 논문은 1999년 5월에 신흥대학 주간학생 전원과 야간학생 중 상담실내담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총 921명의 통계자료를 산출대상으로 삼았다. 신흥대학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로 매년 남학생 수보다 여학생 수가 더 많다. 1999년의 경우 입학생의 46.3퍼센트가 남학생이었고 53.6퍼센트가 여학생이었다. 1999년도 신입생연령은 18-19세가 주류를 이루고 20세 이상도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학생 중 2.5퍼센트를 제외하고 거의가 미혼이었다. 생활수준은 대부분이 중류층(59.3퍼센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3.8퍼센트, 불교가 15.6퍼센트, 천주교 7.7퍼센트, 유교 8퍼센트, 기타 순 이었고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이 40.4퍼센트나 되었다.<sup>82)</sup> 학생들의 흥미를 유형별로 따지면 현실형이 15.6퍼센트, 탐구형 8.3퍼센트, 예술형 23.2퍼센트, 사회형 28.1퍼센트, 진취형 14.9퍼센트, 관습형 9.9퍼센트 등이었다. 성실성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학생이 55퍼센트를 차지했고 유능성, 조직화 능력, 책임감, 목표 지향, 자기 통제력, 완벽성 등에서 과반수가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성, 불안, 분노,

81) 본 조사는 신흥대학, 학생생활연구, 제 2집 (신흥대학 학생생활연구실, 2000)을 기초로 한다.

82) 신흥대학, 학생생활연구, 2:6.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등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의식구조가 비교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학생들은 중층이나 중하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수준과 학생들의 의식구조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능력의 한계와 생활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총 968명의 응답자 가운데 “능력의 한계를 자주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8명,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30명, “보통”은 410명, “그렇다”가 222명, “매우 그렇다”가 28명이었다. 생활수준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생활수준이 중층 이하인 경우 능력의 한계를 자주 느끼는 빈도가 많았다.<sup>83)</sup>

그외에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2.6퍼센트, “그렇지 않다”는 17.4퍼센트였고 끊임없이 “미를 추구한다”는 응답이 55.8퍼센트, “아니다”가 44.2퍼센트였다. 지적인 토론에 대해 “좋아한다”가 50.8퍼센트, “아니다”가 49.2퍼센트였다. “사물을 이해하기 좋아한다”는 응답은 45.9퍼센트, “아니다”가 54.1퍼센트였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0.1퍼센트였고 “아니다”는 49.9퍼센트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른다”는 응답이 39퍼센트, “아니다”가 61퍼센트였다. “조립하는 제품을 즐겨 산다”는 응답은 39퍼센트였고 “아니다”가 61퍼센트였다. “연극, 전시회를 자주 간다”라는 응답은 33.4퍼센트, “아니다”라는 응답은 66.6퍼센트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애쓴다”라는 응답은 66퍼센트, “아니다”가 34퍼센트였다. “예술작품을 음미할 줄 안다”는 응답은 34.9퍼센트였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65.1퍼센트였다.

“지도자도 해볼 만 하다”라는 응답은 76.2퍼센트, “아니다”라는 응답은 23.8퍼센트였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응답은 89.6퍼센트, “아니다”라는 응답은 10.4퍼센트였다. “원리원칙대로 행동한다”에 대해서는 36.1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63.9퍼센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해진 규칙대로 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대답을 한 학생이 60.6퍼센트였고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39.4퍼센트였다.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다”는 응답이 60.1퍼센트, “아니

83) 신흥대학, 학생생활연구, 2:41.

다”가 39.9퍼센트였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5퍼센트,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5퍼센트였다. 권력과 부, 안정적인 지위 등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원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또한 “야망을 크게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5.5퍼센트,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4.5퍼센트였다.

2000학년도 1년 동안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이 594명이었고 여학생은 895명으로서 여학생이 전체의 60.1퍼센트에 달했다. 본 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는 서울이 768명, 비 서울이 672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중이 53.3퍼센트였다.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로(취업, 편입, 졸업)가 50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26명, 사후 세계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26명, 결혼이 23명,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학생이 23명이었고 그 외에 사회 적응, 학교생활, 군대, 통일, 경제 위기 등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학교생활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은 전문지식의 습득이 159명으로 응답자의 51.4퍼센트를 차지했다. 폭넓은 대인관계의 형성이 67명이었고 시설확충, 수업여건 개선, 학생의 자율보장 등 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46명, 바른 인격 형성이 21명, 건전한 대학문화가 16명, 그외에 동아리활성화, 봉사활동, 적극적 학교생활 등을 꼽는 학생들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신흥대학 학생들의 경제,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요약하면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전문대학생들이 갖는 심리적, 경제,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다수가 중류이거나 중하류에 속했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흥대학은 전문대학 중상위그룹에 속하는 중견대학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다. 나아가서 전문대학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전공분야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심리적 위축, 자기비하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방송통신대학 등의 과정을 통해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학사학위는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요즈음은 “취업”이 초

미의 관심사이므로 경쟁력있는 전문대학은 웬만한 4년제 대학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관심이 취업과 전문지식 습득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흥대학 학생들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개성과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보통의 신세대라고 할 수 있다.

## 2. 복음의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

신흥대학에서는 학원 복음화의 일환으로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의 이해는 1998년부터 교양필수과목이 되어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한편 채플은 2000년 1학기부터 필수과목이 되어 1학년 중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하지 않는 학기에 수강하며 2년제 학과는 2학년 1학기까지 3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까지 수강해야 한다. 재학 중 전 학기의 수강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의 특성상 졸업이 임박한 학기는 현장실습이나 취업활동이 집중되므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채플은 별도의 성적이 부여되지 않고 P학점으로 표시된다.

### 가.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의 이해는 약 200명씩 수강하는 대규모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기독교의 이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도에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1학기과 2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5월과 11월에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남학생 594명, 여학생 895명으로 총 1489명이었다. 참여학과는 임상병리과, 보건행정과, 환경관리과, 호텔조리과, 식품영양과, 컴퓨터 정보계열, 전자통신과, 환경위생과, 간호과, 행정과, 안경광학과, 영어통역과, 자동차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문예창작과, 실내디자인과, 지적과, 건축설계과, 건축설비과의 총 20개 학과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2000년 '기독교의 이해' 설문조사

성별	남: 594명 여: 895명 계: 1,489명
거주지	서울: 768명 비서울: 672명
현재 교회출석 여부	예: 355명 아니오: 1131명
예수영접	예: 465명 아니오: 999명
신앙생활 시작시기	모태신앙: 113명 기타: 318명
출석교회의 소속교파	1.장로교: 274명 2.감리교: 55명 3.침례교: 26명 4.천주교: 13명 5.성결교: 7명 6.순복음교회: 7명 7.기타: 22명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1.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직장생활, 피곤함, 게으름 등): 134명 2.교회에 대한 회의(지나친 강요, 인간관계 부조리 등): 58명 3.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41명 4.집안의 반대로: 16명 5.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15명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가?	예: 276명 아니오: 773명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매우 긍정적: 102명 2.긍정적: 419명 3.그저 그렇다: 610명 4.부정적: 131명 5.매우 부정적: 64명 6.모르겠다: 139명
'기독교의 이해' 과목에 대한 견해	1.매우 필요: 57명 2.다소 도움이 됨: 398명 3.그저 그렇다: 419명 4.별로 도움이 안됨: 353명 5.시간낭비: 273명
'기독교의 이해' 수강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태도 변화	1.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함: 135명 2.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음: 374명 3.별다른 변화가 없음: 699명 4.기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었음: 130명 5.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었음: 80명
'기독교의 이해'와 관련된 건의사항	1.강의(타종교 무시, 어려움, 과제 많음, 지루함, 발표의 점수화): 168명 2.강의실 환경(칠판 안보임, 냉방시설, 조명시설, 좌석불편): 167명 3.인원이 많아 소란하고 집중 안됨: 39명 4.수업 종료시간의 엄수: 28명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은 전체의 23.8퍼센트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31.2퍼센트였다.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기독교인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비록 신홍대학이 기독교대학이지만 기독교인 학생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입학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현재 교회에 출석중인 학생들의 소속교파를 보면 장로교가 전체응답자의 67.8퍼센트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에 감리교(13.6퍼센트), 침례교(6.4퍼센트), 천주교(3.2퍼센트), 성결교(1.7퍼센트), 순복음교회(1.7퍼센트), 기타(5.6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난다.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73.7퍼센트가 압도적으로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기독교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과목의 의도와는 달리 기독교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 뿐 아니라 2학년 혹은 3학년에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독교 과목을 개설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35.6퍼센트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13.3퍼센트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기독교인 뿐 아니라 비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대해 중립적 혹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교활동에 고무적인 현상이다. ‘기독교의 이해’ 과목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혹은 “다소 도움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이 30.3퍼센트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혹은 “시간낭비”라고 응답한 학생이 41.7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기독교의 이해”과목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보다 학생들의 삶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기독교의 이해’를 통해 35.9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고 14.8퍼센트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이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의 이해’ 과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나 ‘기독교의 이해’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수 학생의 동감, 현재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27퍼센트에 달하는 학생이 언젠

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의 발견 등은 '기독교의 이해'가 나름대로 학원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더욱 보완,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 나. 채플

약 30년의 신흥대학 역사에 '채플'의 개설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신흥대학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가진 기독교대학이었지만 학생채플은 없었고 다만 소수의 교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999년에 교목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채플과목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드디어 2000년에 '채플'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2000년도에 채플은 약 500명 단위로 드렸고 찬양, 기도, 설교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었다. 찬양은 교내 기독교동아리가 순서를 정하여 봉사하였고 기도는 채플을 드리는 학과의 교수들이 담당하였다. 설교는 '기독교의 이해'를 강의하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담당하였다. '채플'은 가능하면 교내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사료되어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2000년 1, 2학기에 채플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플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총 설문대상자는 1,552명으로 그중 남학생이 708명(45.6퍼센트), 여학생이 844명(54.4퍼센트)이었다. 이는 신흥대학생의 여학생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861명(55.5퍼센트), 기타가 691명(44.5퍼센트)으로 학생들의 과반수가 서울에 거주함으로써 인해 학생들이 신흥대학의 소재지인 의정부시에 대해 애착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기 힘든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더군다나 '취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학생들의 입장에 비추어 애교심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판단된다.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은 1학년 재학 중 수강하도록 규정되었고 1학기 때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했다면 2학기에는 "채플"을 수강하며 이와 반대로 1학기 때 '채플'을 수강한 학생은 2학기 때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해야 한다. 결국 1학년 학생들은 '채플'



과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하게 되지만 군입대,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1, 2 학기의 학생들의 구성에 변동이 있다.

〈표 9〉 2000년 '채플' 설문조사

성별	남: 708 명    여: 844 명    계 1552 명
거주지	서울: 861 명    기타 691 명
현재 교회 출석 여부	예: 311 명    아니오: 1041명
예수 영접 여부	예: 363 명    아니오: 1025 명
신앙생활 시작시기	모태신앙: 115 명    기타: 322 명
출석하는 교회의 교파	1.장로교: 299명    2.감리교: 58명    3.침례교: 22명 4.순복음교회: 15명    5.성결교 13명    6.천주교 42명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1.시간적 여유 부족(직장생활, 학업): 27명 2.신앙심의 부족: 12명 3.타종교를 무시하는 경향(강압, 강요): 10명 4.개인적인 사정과 믿음에 대한 실망: 8명 5.집안의 반대(예: 불교 집안): 5명 6.너무 원칙적인 분위기이다: 2명 7.교회 분위기(두려움): 2명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예: 108명    아니오: 956명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매우 긍정적: 79명    2.긍정적: 347명    3.그저 그렇다: 793명 4.부정적: 85명    5.매우 부정적: 46명    6.모르겠다: 222명
'채플'에 대하여	1.매우 필요하다: 72명    2.다소 도움이 된다: 322명 3.그저 그렇다: 776명    4.별로 도움이 안됨: 189명 5.시간낭비: 142명
'채플' 수강 후 기독교에 대한 태도변화	1.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독실한 신앙인 으로 살기 원함: 165명 2.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음 280명 3.별다른 변화가 없음: 678명 4.기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됨: 78명 5.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됨: 88명
채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설교: 332명    2.찬양: 212명    3.예배의 질서: 131명 4.예배의 환경: 112명

채플 설문조사의 결과는 '기독교의 이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했으나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소 낮았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전체응답자의 20퍼센트였고 예수를 영접한 학생은 23.4퍼센트였다. 출석하는 교회의 교파는 장로교가 66.6퍼센트, 감리교가 12.9퍼센트, 침례교가 4.9퍼센트 등의 순이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적 여유 부족을 제시했고 신앙심부족, 타종교를 무시하는 경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0.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의 27퍼센트가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채플'을 수강한 학생의 절반은 이미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했고 나머지 절반은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하기 앞서 '채플'을 먼저 수강하였다. '기독교의 이해'를 '채플'에 앞서 수강했는가 아니면 후에 수강했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채플' 수강 후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주목 할 사항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7.1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3퍼센트만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채플'에 대해서는 26.2퍼센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22.1퍼센트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채플' 수강 뒤 기독교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 34.5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12.9퍼센트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채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설교(42.2퍼센트), 찬양(26.9퍼센트), 예배의 질서(16.6퍼센트), 예배의 환경(14.3퍼센트) 순이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와 찬양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설교의 내용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기독교의 결신여부가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채플'과 관련된 건의사항 중 설교 내용이 타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찬양인도가 미숙했다(27명), 찬양시간이 부족하다(25명),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18명), 제 시간에 채플이 끝났으면 좋겠다(16명), 예배장소를 바꾸었으면 좋겠다(12명), 수업 분위기가 너무 강제적이다(9명),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9명), 설교시간이 좀 더 길었으

면 좋겠다(9명), 공감할 수 있는 설교(8명), 찬양 인도자들의 봉사활동이 좋았다(5명), 채플시간이 너무 이르다(5명), 강제적으로 채플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5명)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채플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램과 음향설비의 개선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설문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교과 내용이나 예배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갈 때 학원 복음화에 더욱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이다.

### 3. 기독교동아리의 복음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활동에 있어서 기독교동아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제 2 장 2 절에서 소개한 기독교대학의 현황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 의식을 가지고 학원복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들은 많은 기독교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학교의 공식기구로서 기독교학생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신흥대학에서는 현재 3개의 기독교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동아리가 금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들 동아리들은 '채플' 찬양봉사와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학술제인 '범골제' 기간 중 기독교동아리 연합행사로 진행되는 '범골 찬양제'를 통해 연합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선교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가. S.C.M.(Student Christian Movement)의 연혁과 활동

신흥대학의 기독교동아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는 S.C.M.으로서 1980년에 신흥대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흥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소명을 알아감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S.C.M.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하며 또한 장래 직장인으로서 직장 내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S.C.M.은 그 목적을 "신흥의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교제를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소명감을 알아감으로 자신의 몸과 다른 이들을 주님께 드리

는데 준비한다”고 명시한다. S.C.M.의 신앙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것임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 셋째,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 소명으로 한다. 넷째,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관(성경적 윤리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한 사회에 반영하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 다섯째, 우리는 초교파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노선을 따른다. 여섯째, 우리는 진리 수호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한다.

또한 그들이 천명하는 교육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M.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실천한다. 둘째, S.C.M.은 제자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한국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셋째, S.C.M.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한다. 넷째, S.C.M.은 대중문화를 연구하고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를 개발한다. 다섯째, S.C.M.은 지속적인 기도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한다. 여섯째, S.C.M.은 직업과 소명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일곱째, S.C.M.은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훈련을 통해 교회로 사회로 세계로 파송한다.

이 동아리의 정기행사 내용을 보면 신입생과 함께하는 신앙연수, 제자여행, 단기 여름사역, 신앙연수 등이 있고 겨울 방학중의 정기 M.T.가 있다. 가장 큰 행사로는 11월에 열리는 찬양과 연극 행사인 ‘하나제’가 있고 기독교동아리의 연합행사인 ‘범골 찬양제’에도 참여한다.

S.C.M.은 자체적인 조직이므로 지도교수와 지도목사(전도사 혹은 간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대학은 대개 2년제 혹은 예외적으로 3년제이며 학생들이 취득해야 할 학점이 비교적 많고 직업교육 위주이므로 학생들이 동아리에 소속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면 취업과 졸업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대개 1년밖에 되지 않는다.

S.C.M.은 지도교수와 간사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교제 중심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기독교동아리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담당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지도 교역자가 새로 교체되면서 기독교동아리의 본질적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C.C.C.(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연혁과 활동

신흥대학 내의 또 다른 기독교동아리는 C.C.C.이다. C.C.C.는 1951년 미국 UCLA 교수였던 윌리엄 브라이트(William R. Bright)에 의해 창설되었고 오늘날 전 170여 개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 세계적 선교단체이며 한국에서는 1958년 김준곤에 의해 창설되었다. C.C.C.는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초신자들을 전도, 육성, 훈련, 파송함으로써 지역 교회를 간접적으로 돕는 사역을 전개한다.

신흥대학에서도 1989년에 C.C.C.가 설립되어 간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동아리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부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학교와의 연계성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신흥 C.C.C.의 목적은 “우리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천명한다. 신흥 C.C.C.의 훈련의 목적은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이다. 지역 교회를 섬기고 교회성장과 교회개혁을 도움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 내에서 전도, 제자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관련된 사역에 효과적인 자료와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표준화되고 단순하며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려 한다.

C.C.C.의 연중계획을 보면 순장수련회, 전국대학생 수련회, 예수대행진 등 행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며 대신 순모임을 통한 꾸준한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례 기독교동아리 연합행사로 ‘범골찬양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C.C.는 교제와 행사중심의 S.C.M.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 다. 예향인의 연혁과 활동

가장 최근에 생긴 기독교동아리는 예향인이다. 예향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2000년 3월에 창단된 선교회이다. 이 선교회는 채플헌신, 단기선교, 제자양성, 사회봉사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예향인 선교회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향인 선교회는 신흥대학의 복음화를 위하여 채플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예향인선교회는 새 천년을 맞이한 21세기에 단기선교를 담당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셋째,

예향인 선교회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넷째, 예향인선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예향인은 지도교수와 지도목사의 리더십과 협조가 세 동아리 중 가장 탁월하며 위의 네 가지 설립목적을 균형있게 수행하고 있다. 예향인은 2000년 12월에는 약 1주일간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세 동아리 중 가장 활발하게 채플 찬양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아동 임시보호소, 시온의 집 등)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동아리 뿐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향인 선교회의 비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향인선교회는 채플과 찬양, 드라마 등을 통해 신흥캠퍼스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모든 캠퍼스복음화의 비전이 있다. 둘째, 예향인선교회는 태국 단기선교의 첫발을 내딛고 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미얀마, 라오스 등을 통해 의료팀과 연합하여 세계 50개국으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비전이 있다. 셋째, 예향인 선교회는 제자양성을 통해 일꾼을 양성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교재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정서에 맞는 우리의 교재를 만들어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넷째, 예향인 선교회는 현재 아동임시보호소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과 시온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다. 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파듯한 손길이 되기 원하고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다.

이와 같은 예향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연중행사는 전체 M.T., 신입생 M.T., 임원 M.T. 등의 자체훈련과 지역봉사(아동 임시보호소, 시온의 집), 단기선교, 채플팀의 구성과 훈련등으로 구성되었다. 예향인의 경우 C.C.C.와 유사하게 비교적 단순하고 정례적인 행사를 추진하되 선교와 사회봉사, 채플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동아리가 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의 젊은 목사와 신흥대학의 젊은 교수가 한 팀이 되어 '찬양'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S.C.M.이나 예향인처럼 신흥대학에서

시작되는 자발적 기독동아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신홍대학에서는 기존의 3개 기독동아리가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복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범골 찬양제와 같은 기독동아리 연합 행사를 통해 지체의식을 고양하며 거교적인 전도와 기독교 문화 창달의 계기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독특한 목표를 가진 기독동아리가 더 많이 설립되어 능력 있게 학원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제 3 절 교직원선교회와 복음활동

학교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는 교직원들이다. 교직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발전이 좌우된다. 더욱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는 교직원들의 신앙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본 절에서는 교직원들의 제반 상황을 분석하고 현행 교직원 선교회의 활동을 고찰함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활동을 통한 학원 복음화'의 배경을 삼고자 한다.

#### 1. 교직원분석

대학 교직원간의 소그룹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사회는 위계질서가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약하다. 보직교수들은 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교수로 돌아간다. 교수들간에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교수사회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구성원간에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요구되는 소그룹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들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소그룹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위험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선교회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익명성(anonymity)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는 것이다.

둘째,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간 상의 제약이 대학 내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인 조건이 된다. 교수들의 강의시간, 개인 일정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공통된 시간을 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반면에 직원들은 일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점심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 외에도 지방 출장, 세미나 등의 돌발적 요소로 말미암아 부득이 예배 및 소그룹활동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소그룹 자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시간을 내기에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대학사회도 하나의 조직사회이므로 구성원 상호간에 갈등과 경쟁, 알력이 존재할 수 있다. 정기예배나 소그룹모임이 어떤 특정집단의 배타적 모임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배와 소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 활동 특히 정기예배에 교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며 나아가서 교직원의 대다수가 참여할 때 신흥대학은 명실상부하게 기독교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모든 학사, 행정, 인사 등 제 분야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나갈 것이다.

넷째, 다른 직장과는 달리 대학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교수들의 이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된 교수에 대해 재임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대학은 평생 직장이나 마찬가지이다. 신흥대학의 전임교원들은 본 대학을 평생 몸담고 일할 직장으로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학교직원의 신상에 별 변동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성과 나태함 가운데 빠질 수 있게 하는 위험성도 있다. 교직원의 신상에 변동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교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교수들은 사회 지도층이며 존경받는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는 정년이 다른 직종보다 가장 긴 직업이며 비교적 안정적이며 방학이 있으므로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직업이다. 직원들은 교수와는 달리 별도의 방학이 없고 사회적 신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신흥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4년제 대학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이고 교직원의 구성에 있어



서도 열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중견대학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른 전문대학보다는 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가. 교수분석

2000년 현재 신흥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들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신흥대학 교수현황(전임강사 이상)

성별	남: 94명    여: 35명
학력	석사: 59명    박사: 70명
거주지역	서울: 94명    의정부: 22명    고양시: 5명    기타: 8명
종교	기독교: 73명    천주교: 14명    불교: 3명    무종교: 39명
결혼	기혼: 122명    미혼: 7명
연령	30대: 40명    40대: 53명    50대 이상: 36명
자녀수	0명: 17명    1명: 41명    2명: 56명    3명 이상: 15명

신흥대학의 여교수는 전체 교수의 약 27퍼센트로 타대학보다 그 비율이 비교적 높다. 간호과를 비롯해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약 54퍼센트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 전문대학은 주로 실용적인 학과가 많으므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적은 경우가 많고 교수 임용에 있어서 4년제 대학과는 달리 반드시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점차로 박사학위 취득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또한 박사학위는 대부분 국내에서 취득하였다는 것도 전문대학 교수들의 현 상황이다.

교수의 약 73퍼센트가 서울에 거주하며 신흥대학의 소재지인 의정부에도 약 17퍼센트가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에는 약 4퍼센트가 거주하여 거주지의 서울 편중 현상을 보인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보다 더 심한 것으로 교육, 문화적 욕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경우 교수들의 약 57퍼센트가 기독교인이며 천주교는 약 11퍼센트, 불교는 약 2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목적으로는 교수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므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 대부분은 기혼자이고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약 41퍼센트, 30대가 약 31퍼센트, 50대 이상이 약 28퍼센트를 차지했다. 3, 40대가 전체의 72퍼센트를 차지하여 교수들의 연령이 비교적 젊다고 할 수 있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56명으로 전체의 약 43퍼센트였고 1명이 32퍼센트, 0명이 약 13퍼센트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약 12퍼센트에 달했다.

신흥대학 교수는 대부분 기혼남자에 박사학위를 소지했고 서울에 거주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연령은 40대로 두 명의 자녀를 가졌다. 연령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연령인 50대 초반의 교수는 많지 않고 50대 후반이나 60대의 교수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30, 40대의 교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원로교수와 소장 교수를 연결할 중간 연령의 교수가 적은 편이다. 소장 교수가 많으므로 앞으로 학원 복음화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 나. 직원분석

신흥대학에서 교수의 인사는 교무처의 소관이지만 직원의 인사는 사무처의 소관이다. 직원은 교수에 비해서 교육정도, 신분보장, 급여,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교수와 직원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교수와 직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학원 복음화의 동역자로서 화합하고 단결하여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대학 직원의 일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신흥대학 직원현황

성별	남: 39명    여: 21명
학력	고졸: 11명    전문대 졸: 34명    대학이상: 15명
거주지	서울: 25명    의정부: 25명    양주군: 5명    동두천: 3명    고양시: 2명
종교	기독교: 43명    천주교: 8명    불교: 2명    무종교: 7명
결혼유무	기혼: 34명    미혼: 26명
연령	20대: 23명    30대: 17명    40대: 14명    50대: 4명    60대: 1명    70대: 1명

신흥대 직원 전체 60명 중 남자가 65퍼센트, 여자는 35퍼센트였다. 여교수의 비중이 27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여직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무의

성격상 여직원이 다수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대 졸업자가 전체의 57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도 25퍼센트에 달했다. 고졸은 약 18퍼센트로 가장 적었다.

한편 거주지는 서울과 의정부가 각각 25명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83퍼센트를 차지한다. 특히 의정부에 거주하는 직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출근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신흥대학에서 가까운 지역을 택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의 약 72퍼센트를 차지하여 교수의 기독교인 비율인 57퍼센트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행정적인 체계에 의해 움직여지는 직원들을 잘 활용하면 학원복음화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직원의 57퍼센트는 기혼자이고 43퍼센트는 미혼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결혼하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연령에 있어서 20대가 전체의 3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퍼센트, 40대가 23퍼센트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직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직급까지 진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신흥대학의 평균적인 직원상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20대 기혼 남자로서 기독교인이며 서울이나 의정부에 거주한다. 직원의 수는 교수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된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학원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 2. 교직원선교회 연혁과 선교활동

교직원들이 소수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1992년 5월이었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도모임은 후에 '로고스 선교회'로 발전되었다. 교직원 선교회인 본 선교회는 기도회를 중심으로 모이다가 그 모임이 확대 발전하여 현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국내선교기관들과 교내 기독교동아리들을 직접, 간접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금요일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직원 선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선교회가 자발적으로 몇몇 교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동안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미흡하여 선교회가 마치 특정인의 사조직인 것처럼 왜곡되었다.

로고스선교회에서는 개강과 종강예배, 부활절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 등 학사일정과 주요 교회절기에 맞추어 거교적인 예배를 드려왔다. 금요일예배는 자발적 참여의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위에 언급한 예배는 전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예배와 각종 절기예배에 대한 교직원의 참여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정기예배의 활성화는 가장 시급하게 또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선교회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는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보조금과 장학금 지급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원복음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보조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독교동아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선교방송기관에 대한 지원도 정기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와 다방면의 선교, 봉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아직 선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직원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정기예배와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장에서는 신흥대학의 복음화현황을 지역사회의 분석과 아울러 살펴보았다. 신흥대학이 위치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지역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교육,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남북화해의 분위기 조성 과 통일의 전초 기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신흥대학은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 대학이지만 그동안 학원복음화 운동은 부진했다. 그러나 1999년에 교목실이 생기면서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이 필수과목으로 되고 기독교동아리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직원 선교회도 보다 학원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내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제 4 장

### 신흥대학의 복음화전략

신흥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신흥대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과 대학의 행정적 조직, 지역 사회, 미래의 비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제 1 절 신흥대학의 구성과 복음화의 주체들

##### 1. 신흥대학의 구성원

신흥대학은 크게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다. 교직원은 다시 교수와 직원으로 구분된다. 2000년 현재 교수는 129명이고 직원은 60명이다. 학생들은 크게 정규반학생과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구분된다. 정규반학생은 입시전형을 통해 주간 혹은 야간반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의미하며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 전형으로 입학하여 일과 후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신흥대학에는 정규반에 약 5,5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고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약 800명에 달한다. 정규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며 대부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이다. 반면에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다시 대학의 문을 두드린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산업체위탁 교육생들은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 공부하는 전형적인 주경야독의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다.

신흥대학 구성원의 특징을 먼저 면밀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먼저 교직원은 한 그룹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그룹에서처럼 교수

와 직원을 별도로 취급해야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기예배는 함께 참여하고 그 밖에 대내외적인 활동에도 함께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와 직원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야 효과적이다.

학생들의 경우 정규반과 산업체 위탁반을 별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규반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생의 범주에 들며 전업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학생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산업체 위탁 교육생들은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므로 야간에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학습 의욕은 높으나 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이다. 이들에 대한 복음활동에 있어서 보다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sup>84)</sup>

## 2. 복음화의 주체들

학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학교 당국의 방침과 비전이 복음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사장과 학장 등 최고 경영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학교의 학사, 행정, 산학협력, 복음활동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대학에 있어서 복음활동은 절대적으로 학교 운영자의 의지와 결심, 비전에 좌우된다. 그 영향력은 교직원과 학생 전체에게 파급된다.

실무적으로는 교목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교목실은 복음활동을 전담하는 핵심적 조직이므로 학교 운영자의 위임을 받아 복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목실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복음활동의 결과는 크게 좌우된다. 교목실을 단순히 학교 조직상의 한 부서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행정조직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 복음의 사명을 맡고 영혼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활동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된다. 교목실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84) 산업체위탁 교육생들은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므로 특별히 이들을 개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규 과목으로 수강하는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의 이해'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응답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되었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사회는 학교가 존속하는 배경인 동시에 학교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대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함께 발전해야 한다. 양자는 공생의 관계를 갖는다. 신홍대학이 소재한 의정부시는 신홍대학 교직원이나 학생의 대다수가 서울 등 의정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므로 지역사회로서의 애착이나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 사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경제활동이나 금전적 지출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의정부는 주거지로서의 기능 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꾸준히 기여해야 한다.

복음활동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과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여 추진해야 할 선교, 봉사 사업은 산적해 있다. 대학은 지역의 교회를 지원하고 지역교회는 대학을 지원하는 상호 공존의 입장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교회와 연결하여 교회가 학생들을 교인으로 받아 들여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교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다든지 필요하면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학교와 지역교회가 협력할 사항은 매우 많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가 전부 선교의 대상이다. 대학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선교의 책임이 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국내외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원복음화의 최일선에서 함께 동역해야 할 세 그룹은 교목실, 교직원 선교회, 그리고 기독동아리이다. 교목실은 대학의 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복음활동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장하며 집행하는 책임이 있다. 교목실은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동아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여 복음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의 유대와 협조도 교목실이 담당해야 할 일이다.

교직원선교회는 교직원의 입장에서 학원복음화의 사명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 먼저 자체적으로 선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예배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 교직원을 전도하며 결집된 힘을 교육과 지도, 양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쏟아야 한다.

교수들은 교수와 연구, 학생지도의 본연의 기능을 통해 복음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 가야 한다. 직원들은 행정적 지원, 학사업무의 보조 등의 기능이 복음적으로 수행되어 결국 학생들이 복음의 혜택을 입고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

기독동아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의 최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성격과 목적을 띤 기독동아리의 육성이 학원복음화에 필수적이다. C.C.C.나 I.V.F.와 같은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단체와 연결하여 그 단체의 지부로서 활동하는 동아리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다양한 종류의 기독 동아리도 필요하다. 예컨대 '찬양'을 주된 사역으로 삼을 수도 있고 '사회봉사' 혹은 '선교'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창조과학'과 같은 학술적인 성격의 동아리를 둘 수도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동아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기독동아리들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만 있다면 기독동아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만큼 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동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이다. 신앙과 인격, 실력을 갖춘 지도교수와 지도목사(전도사 혹은 간사)가 팀을 이루어 동아리를 지도해 갈 때 그 동아리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 기독동아리의 수가 많아지고 대학 내에서의 위상을 확립해 감에 따라 기독동아리의 연합체인 기독학생연합회를 구성하여 학생회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며 대학 내에 기독교 문화의 창달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원이나 학생들 중 예배 참석, 제자 훈련, 봉사활동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과반수가 된다면 그 학교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영위해 갈 때 상대적으로 소수의 믿지 않는 학생들도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보다 빨리 기독교인이 되리라고 믿는다.

평균적으로 신홍대학 학생 중 기독교인은 약 25퍼센트이다. 재학생이 6,000명이라고 할 때 1,500명은 기독교인이다. 한 동아리의 인원을 100명으로 할 때 이들 학생들을 전부 기독동아리에 소속시키고자 한다면 15개의 동아리가 필요하다. 반드시 선교회의 성격을 띠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성격의 동아리



가 필요하다. 스포츠, 봉사, 음악, 예술, 문학, 과학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기독교적 대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목실과 교직원선교회 그리고 기독교동아리들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주신 대사명인 '만민을 제자삼는 일'을 수행하는 데 연합해야 한다. 선교적 사명은 꼭 지역적, 문화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 된 뒤에 유대로 선교사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적으로 선교활동은 전개되는 것이다(행 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원 복음화의 일차적 대상(예루살렘에 해당)은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지만 지역사회와 국내의 여러 지역들, 나아가서 해외의 각 민족들이 전부 학원복음화의 대상인 것이다. 제자화된 학생들이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내외까지 선교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학원복음화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이 초기에 전국적으로 전도, 계몽 활동을 벌였을 뿐 아니라 해외까지 그 영역을 넓힌 사실은 학원복음화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 제 2 절 복음화의 내용과 활동

### 1. 학원복음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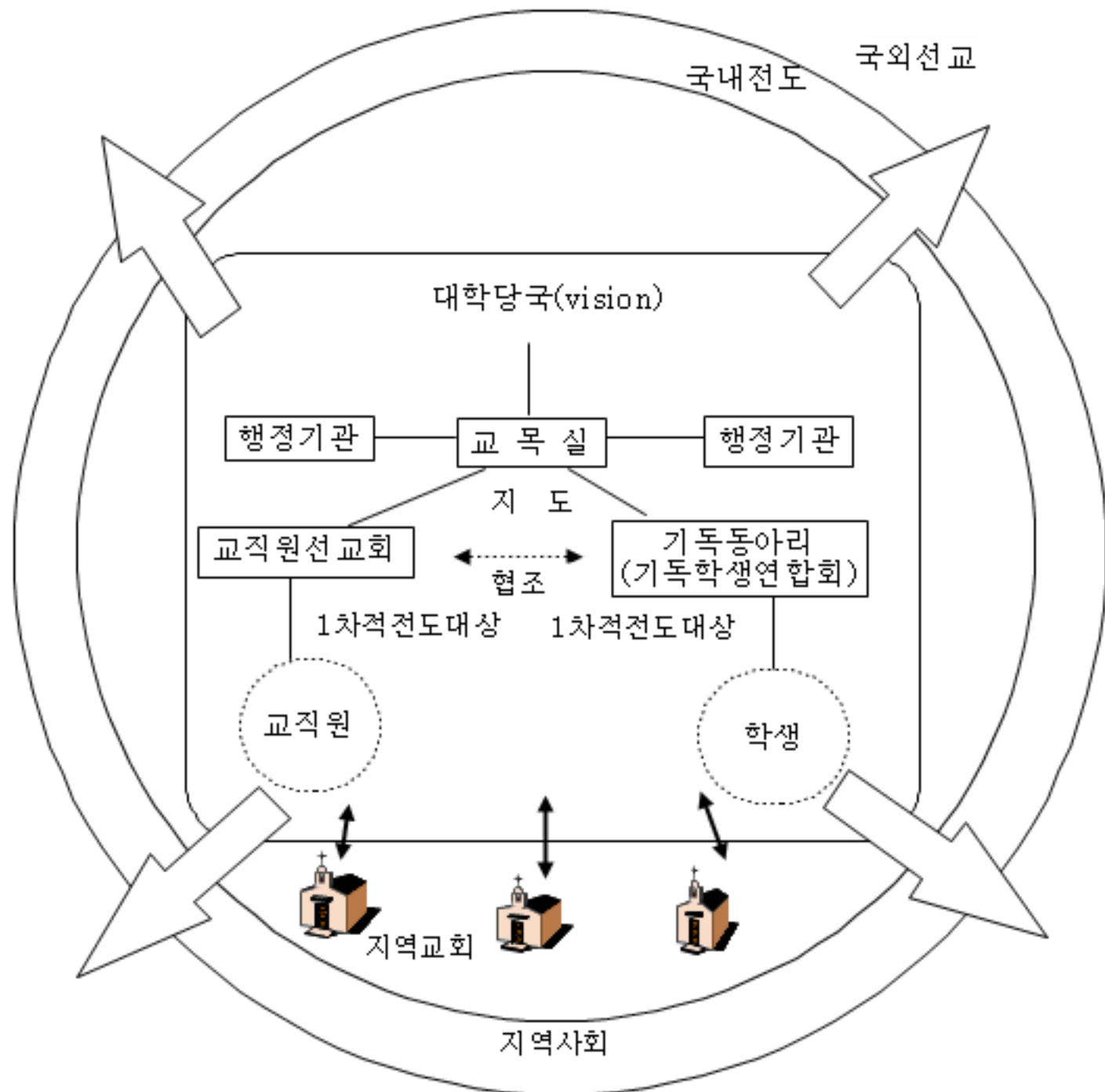
학원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당국의 선교에 대한 의지와 비전이다. 기독교 대학은 본질상 사립대학이므로 건학이념과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대학의 복음에 대한 접근방식이 결정된다. 명색은 기독교대학이지만 일반대학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운영자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대학이 신학교나 교회 이상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넘쳐서 왕성한 선교적 활동을 전개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대학당국의 비전에 따라 복음활동의 실무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교목실이 존재한다. 교목실은 복음활동의 핵심적 기관으로서 대학당국의 비전에 따라 대학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음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예산과 공간, 시설 소요 등 다양한 요구가 수반된다. 교목실은 직접적으로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를 관장하고 지도한다. 또한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는 상호 협조, 지원하는 관계를 가진다.

교직원선교회와 기독동아리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원사항을 교목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교목실 학교 당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구한다.

교직원 선교회의 1차 전도대상은 동료교직원이다. 교직원에 대한 전도와 양육은 교직원 선교회의 고유한 업무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 교직원 선교회가 성장하면 보다 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독동아리의 1차 전도대상은 동료학생들이다. 기독교인 학생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포함하여 믿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하여 신자로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기독 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는 '채플'이다. 교직원들은 기도 순서를 담당하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며 기독동아리는 찬양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은혜로운 채플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동아리의 수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기독학생 연합회 혹은 기독동아리 연합회의 형식으로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교직원선교회와 기독동아리가 우선은 교내 복음활동에 전념해야 하지만 점점 능력이 커지고 활동의 반경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선교에 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내외의 선교활동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복음화의 주요 주체들인 교목실과 교직원 선교회 그리고 기독 동아리들은 대학이라는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교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원복음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아서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활동으로 국한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이라는 토대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것도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탈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배경을 기초로 대학 내에서의 학원복음화 활동에 주력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과 봉사, 국내 전도와 나아가서 해외 선교가지도 활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학원복음화 전략모델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1〉 학원복음화 전략 모델



## 2. 복음활동의 내용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교직원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의 성장전략을 강구하자. 교직원선교회가 원활히 부흥, 성장하려면 공적인 예배와 소그룹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만 강조되고 다른 쪽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대그룹으로서의 정기예배가 활성화되어야 교직원선교회 전체가 힘을 얻고 교직원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소그룹을 통해 양육, 훈련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기예배의 육성에 우선은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시킨 뒤 자발적으로 소그룹활동이 시작되

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활동의 전개에 있어 유능한 리더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확보된다. 잘 훈련된 헌신적인 소수의 리더를 중심으로 작지만 알차게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이 훈련받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다수의 리더로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학생들의 경우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이라는 교과과정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이고 제도적인 대그룹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그룹의 형태를 띠는 기독동아리를 통해 개별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 기독동아리에서는 전체 예배가 대그룹의 일반적 형태이나 M.T.나 리더훈련, 순모임 등 소그룹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교직원선교회와 기독동아리간의 협조관계는 다방면에서 추구할 수 있다. 학원 복음화에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연합적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동아리들의 주요 선교대상이 학생들이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학원 복음화와 관련하여 교직원 선교회는 기독동아리를 지원하며 나아가서 연합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 특별예배와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봉사과 기타 선교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흥대학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특별예배를 드린다. 개강예배, 종강예배가 그것이며 또한 교회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특별예배를 드릴 때 교직원들과 기독동아리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상호간에 일체감을 확인하며 격려와 용기를 얻으며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직원이 중심이 되고 기독동아리들이 초대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앞으로는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동아리들이 동등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축제분위기의 특별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활절과 추수감사예배에는 주로 기독동아리에서 찬양을 담당케 함으로 평소에 채플을 통하여 찬양의 훈련을 받았던 기독동아리들이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흥대학에서는 2000년도 부활절예배를 학생들과 교직원의 연합채플로 드렸으며 기독동아리들이 연합하여 찬양을 드렸고 교직원들도 찬양 등 연합 채플의 여러 순서에 동참

함으로 일체감을 꾀할 수 있었으며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예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기독교동아리들과 교직원들이 연합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데 신흥대학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범골찬양제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범골찬양제는 1999년도에 시작한 찬양제로 신흥대학의 가을 학술제인 범골제 기간 중에 '찬양을 통한 선교'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이 찬양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진행하는데 기독교동아리들이 연대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범골찬양제가 신흥대학의 교내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찬양제로서 대외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편 범골찬양제에 교직원 선교회가 물심 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하며 찬양 순서의 일부를 맡아 기독교동아리와 함께 함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일체가 되어 전개하는 대표적 선교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도 교내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연 운동, 축제기간 중 기독교 문화활동, 교내 환경 정화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일회성 이벤트의 추진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기적 이벤트를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이벤트가 정착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이벤트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연합적 활동으로 대외적 성격을 띤 봉사 및 기타 선교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대외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대내적 연합활동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봉사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먼저 대내적으로 축적되어야 대외적 활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에 기독교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선교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지역의 여러 사회봉사기관과 연대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기독교동아리들이나 교직원선교회가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겠고 함께 연합적으로 전개할 성격의 봉사활동도 있다. 봉사활동의 성격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연합적으로 지혜롭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도 가깝게는 지역사회 멀리는 국내(예를 들면 농촌, 도서) 나아가서는 해외선교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신 것처럼 선교는

순차적이라기보다는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예루살렘) 나아가서 국내(유대) 더 나아가서 해외(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해외선교만 고집하는 것도 안되고 반대로 배타적, 국수주의적으로 국내선교만 고집하는 것도 안 된다. 본 대학에서는 기독교동아리 중 예향인선교회가 2000년 12월에 태국선교를 다녀왔는데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선교도 기독교동아리와 교직원선교회가 연합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직원선교회에서는 기독교동아리에 대해 장학금 지원, 재정적 지원, 기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연합적인 선교활동에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기독교동아리에서는 봉사인력의 동원, 연합적 선교행사의 일정 역할담당 등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 교직원선교회에서 기독교동아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일부 할 수도 있지만 각 동아리들은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는 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동아리의 지도목사나 지도전도사 또는 지도간사에 대한 사례, 찬양 악기의 조달 등은 동아리를 거쳐간 졸업생들이 동아리를 후원하는 전통이 수립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기독교대학 중 상당수의 대학은 대학자체에 대학교회가 있다. 신흥대학의 경우 아직 대학교회는 없지만 대학교회와 교직원선교회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학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교직원선교회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교회조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교직원선교회를 별도로 둔다면 불필요하게 조직만 이중적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편 교직원들이 대학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잘못하면 대학교회와 교직원선교회가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 대학교회에 출석하는 교직원과 그렇지 않은 교직원간에 위화감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대학 구내에 있지만 대학교회를 반드시 대학과 연결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인식한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교회는 교직원선교회와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4장에서는 학원복음화의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원복음화는 '학교'라는 배경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대사명에 순종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

직원 선교회, 기독 동아리, 교목실 등 선교의 주체들이 각 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선교를 학교 내의 활동에만 국한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학교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동시에 관심과 선교의 대상이 된다. 선교의 비전에 따라 교목실은 교직원선교회와 기독동아리들을 지도하고 교직원선교회와 기독동아리들은 서로 협조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1차 선교대상인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증대된 영적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내, 외까지 봉사과 선교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 제 5 장

### 소그룹을 통한 복음화전략

교직원들이 학교발전과 학원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자신들이 신앙과 사명감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소그룹 활동이 핵심적이다. 물론 소그룹 활동이라고 하여 '소그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관련하여 이해되고 분석된다.

학원복음화는 두가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 첫째로 소그룹과 대그룹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교직원선교회 자체 신앙역량의 강화와 둘째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연합적 활동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달성과 총체적 선교활동의 추진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연합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 4 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직원선교회 자체의 신앙역량 강화에 대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소그룹활동을 통해 양육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직원들을 통해 학원복음화는 크게 진전되는 것이다.

#### 제 1 절 소그룹의 근본요소

##### 1. 소그룹의 본질

###### 가. 소그룹의 정의

그룹은 상호간의 관계성이나 혹은 공동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유사성 때문에 같이 분류되는 일단의 사람들이나 사물을 의미한다.<sup>85)</sup> 여러 종류의 그룹이 존재하지만 특히 토의그룹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

85)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는 그룹원이 4명에서 6명인 경우이다.<sup>86)</sup> 미국의 경우 전체 성인의 40퍼센트 정도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sup>87)</sup> 물론 소그룹은 심리적 치료를 위한 소그룹,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소그룹(alcoholic anonymous) 등, 기타 지원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망라한다.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소그룹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독교 소그룹은 그 범위나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동체의 상실에 따른 '공동체회복'의 갈망과 '영성'(spirituality)의 추구이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활동은 인간 본연의 갈망인 '공동체'와 '영적인 삶의 추구'에 맞물려 있는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이론의 관점에서 존슨(David Johnson and Frank Johnson)은 소그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그룹은 2명 이상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상호작용을 하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그룹에 속하며 또 누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지 잘 알며 적극적인 상호 의존성을 유지하는 그룹이다."<sup>88)</sup>

아놀드(Jeffrey Arnold)는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헌신한 3명에서 12명까지의 의도적인 모임"이라고 정의했고<sup>89)</sup>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은 남녀가 피조물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증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모이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기초공동체"라고 정

86) 교회에서의 소그룹 같은 학습그룹에 있어서 인원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적의 숫자는 그룹의 임무, 그룹원의 구성, 가용한 시간, 대인 및 그룹 기술 등의 요소에 좌우된다. 한 그룹의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전체의 자원은 증가하나 반드시 가용한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원의 이질성이 증가한다. 셋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참여와 보상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원들이 그룹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정과 결집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선호, 지원, 가치부여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무단 결근, 형식화, 갈등과 불만족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감소될 것이다. David W. Johnson and Frank P.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Boston: Allyn and Bacon, 1997), 475-476.

87) Robert Wuthnow, Sharing the Journey: Support Groups and America's New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MacMillan Press, 1994), 4.

88) David Johnson and Frank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12.

89) Jeffrey Arnold,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9.

의한다.<sup>90)</sup> 그는 또 “소그룹은 통문화적(transcultural), 통세대적(transgenerational)이며 초월적(transcendent)이기까지 한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 형식이다”라고 주장한다.<sup>91)</sup>

이런 정의는 소그룹의 본질적인 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그룹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며 친교위주로 진행되는 소그룹도 있을 수 있고 ‘찬양’ 등 봉사를 위해 조직된 소그룹, 또 소그룹 리더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기 위한 소그룹 등 소그룹은 다양하지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적은 수의 모임이다. 그룹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원 상호간의 가능한 의사소통의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언어 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소그룹 인원이 2명이면 경우의 수가 2이고 3명이면 9, 5명이면 75, 8명이면 1,016 그리고 10명이면 5,110이 된다.<sup>92)</sup> 이와 같이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고 모임은 역동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소그룹 인원은 12명 이상이 되면 곤란하다.

셋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소그룹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그룹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소그룹은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의도적으로 진행되며 또 의도적으로 해체되거나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소그룹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이다. 소그룹의 공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데 있다.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그룹원들이 무언가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다.

아놀드는 소그룹의 목표는 ‘제자양성’(discipleship)이고 기초는 ‘리더십’이며 소그룹의 구조는 ‘공동체’라고 정의했다.<sup>93)</sup> 소그룹은 그 형태와 초점이 다른 기도그룹,

90)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4), 23.

91) Gareth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Inter Varsity Press, 1994), 13.

92) Carl F.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92), 127.

성경공부 그룹, 선교그룹, 나눔과 돌봄 그룹, 전도팀, 교회위원회, 새 신자반, 언약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망라되지만 제자양성이라는 목표, '리더십'이라는 기초, 그리고 '공동체'라는 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자란 깨달음과 순종의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 예수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sup>94)</sup> 제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며 제자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며 제자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바울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한 팀을 이루어 공동체적 관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다. 제자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소그룹이다.<sup>95)</sup>

#### 나. 소그룹의 성경적 배경

하나님께서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sup>96)</sup>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를 부르시며 공동체를 완성하신다. 사회와 교회의 기본단위인 가족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인간 삶의 기본적이요 본질적인 존재양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소그룹은 혈연에 기초한 가족관계보다 훨씬 깊은 영적 가족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된 사람들(형제, 자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삶을 나누며 기독교공동체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기독교 소그룹이다.

성경에는 소그룹목회에 대한 근거가 수다히 발견된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사역하신다. 신약에만 국한하더라도 소그룹 사역에 관한 다양한 모습이 소개된다. 예수께서는 소그룹으로 사역하셨다. 때로는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의 사역의 중심은 소그룹이었다. 예수께서는 친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셨다.

소그룹은 공동체의 개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

93) Jeffrey Arnold, Big Book on Small Groups, 11.

94) Ibid., 19.

95) Ibid., 19-22.

96) 공동체(community)는 '오다'(come)와 '하나를 이룬다'(unity)의 합성어로서 개개인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10.

하신다. 하나님은 다원적으로, 그룹으로, 가족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로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동체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완성하시어 영원하고 완벽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교회가 무엇이나 라는 근본적 질문에 뿌리를 박는다. 교회를 건물처럼 고정적인 개념으로 혹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교단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 있는 성전이며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이다.<sup>97)</sup>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양육, 봉사, 전도, 친교, 사역, 선교 등의 교회의 본질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다. 소그룹은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포가 모여 몸을 이루듯이 소그룹은 교회의 기본단위이다.

소그룹목회의 성서적 근거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소그룹이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 공동체로서 표현이 되었다. 인간은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것이다(창 1, 2장). 노아시대의 홍수심판 그리고 홍수 이후의 바벨탑사건 등은 파괴적인 공동체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개개인을 부르신다(창 12장). 이스라엘이란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즉 그의 가계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

97)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A Kingdom Manifesto)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69.

### (1)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께서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소그룹 상황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까지나 소그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 삶을 나누며 말씀을 연구하는 본질적인 구조는 소그룹이었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이며(고전 12장) 소그룹은 공동의 집을 나누며(갈 6장) 또한 은사들은 그룹의 성숙과 상호 섬김을 위한 것이다(엡 4장). 소그룹은 서로 배우며 격려할 뿐 아니라(히 10장) 소그룹은 서로 고백하며(약 5장) 상호 제사장적 공동체이며(벧전 2장) 소그룹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요일 3장).

초대교회는 전체예배로도 모였지만 소그룹으로도 모였는데 주로 가정에서 모였다(행 5:42). 또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으며(행 12:12) 바울의 편지에는 가정교회가 언급되었다(롬 16:5). 오늘날의 구역예배와 같이 소그룹이 어떤 도시나 지역교회의 기초였으며 초대교회는 박해 때문에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은밀하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sup>98)</sup>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할 때 그러한 정의에 걸맞는 교회의 본질적 구조는 소그룹이다. 세포 하나 하나가 모여 몸을 구성하듯이 소그룹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룬다. 또한 몸을 기능적으로 분석할 때 몸에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어 각기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듯이 다양한 종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소그룹이 존재할 때 교회 전체는 더욱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이다.

소그룹, 즉 기초 기독교공동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첫째, 유연성이다. 그룹이 작기 때문에 변천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혹은 상이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의 진행방향이나 기능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둘째, 유동성이다. 소그룹은 가정, 사무실, 상점,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든 회합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포괄적이다. 소그룹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이다. 넷째, 인격적이다. 소그룹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소그룹은 작은 규모일 동안만 효과적

98)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18.

인데 쉽사리 하나를 더 만들어 낸다. 여섯째,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일곱째,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여덟째, 소그룹은 제도적 교회에도 적용 가능하다. 소그룹은 교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조와 사역의 기본 요소로서 여겨진다.<sup>99)</sup>

소그룹이 견지하는 가치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목회자이다. 지도자들은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 다음으로 모든 소그룹은 재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소그룹은 기초 교회의 기능을 한다. 전도는 소그룹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소그룹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소그룹은 전체 교회로서 예배한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인다. 모든 차원에서 예비 지도자들이 양육된다. 모든 구성원은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 교회는 활동할 수 있는 단위들을 조직한다. 성공의 기준은 신약성경 공동체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계시며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구성원들은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 (2) 평신도목회와 소그룹

소그룹이 견지하는 가치와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구조는 평신도의 역할 및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그룹에서의 기본적 전제는 모든 성도들은 각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만인사역자라는 개념이다. 나아가서 소그룹은 성경적인 교회관의 확립에 기초해야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00)</sup> 첫째, 성경은 교회<sup>101)</sup>를 우주적, 역사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계획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두셨다(엡 1:20-23).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sup>102)</sup>의 사역(마 5:16)을 이 세

99)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160 이하.

100) Ibid., 69-71.

101) 어거스틴으로부터 종교개혁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직, 간접으로 교회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사람들'이지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George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9), 58.

102)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주권자각 주도권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 개념과 함께 흔히 쓰이는 동사로 '온다' 또는 '들어간다'(마 4:17; 6:16;

상에서 계속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둘째, 성경은 교회를 제도적이라기보다는 카리스마적 의미로 보고 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제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 하나의 카리스마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몸과 같이 생명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유기체인 것이다.

셋째,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 공간적이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되어 공동체의 일부가 될 사람들을 부르신다.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은 한 백성과 한 새로운 종족 또는 인류로서의 교회라는 것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교제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진실되고 심오한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백성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구약성경에 그 뿌리를 확고하게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백성은 희랍어로 라오스(laos)인데 이 말에서 평신도(laity)가 유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교회가 평신도이며 백성이라는 것을 제시한다.<sup>103)</sup>

역사적으로 교회는 제도적 범주에서 이해되어 계급구조의 정상에 목회자를 두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회를 살아있는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여기에는 목회자나

10:7; 12:28; 막 1:15; 9:1; 눅 10:9, 11; 11:2, 20; 17:20; 22: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눅 12:32; 눅 22:29; 막 4:11),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마 25:34; 막 10:15; 눅 18:17)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뜻한다. 위의 표현들이 내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힘으로 가능해 진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속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재하고 실재하며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룬다', '확립한다', 확장을 위해 '협력한다' 등의 동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행위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확립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주권의 영역에 들어와 그 주권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52.

103) Ibid., 72-73.

평신도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맞춘 목회관의 변화는 소그룹의 재발견에 힘입은 바 크다.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시적 기본 조직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꾀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그룹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고 진행된다.

목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목회를 위해 파송하는 데 있다고 오그덴(Greg Ogden)은 주장한다.<sup>104)</sup> 여기에서 목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봉사과 사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회자의 주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는 목회관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소그룹이 기본적 구조이며 둘째, 소수의 헌신된 자들을 선발하여 제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셋째, 은사의 발견을 격려하며 은사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5)</sup> 소그룹은 현대교회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 중 하나이다.

#### 다. 소그룹의 효과와 사명

소그룹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소그룹은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소그룹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신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마 28:18-20). 소그룹은 제자화에 있으며 '제자화'의 궁극적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소그룹활동을 통해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평신도 리더십을 배양하며 그룹원들에게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그룹에서의 찬양과 감사가 대예배까지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뿐 아니라 전도활동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수적인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sup>106)</sup> 아놀드는 소그룹의 5개의 핵심적 과업으로 성경공부,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를 제시한다.<sup>107)</sup>

하나님은 그룹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

104) Greg Ogden, The New Reform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0), 97.

105) Ibid., 124-129.

106)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31.

107) Ibid., 42.



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신 5:1-3)은 오늘날에도 소그룹이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원하신다.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은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방향, 목적과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소그룹 언약은 잘 정의된 목적과 리더십, 그룹행동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08)</sup> 그는 나아가서 구약의 십계명에 맞추어 소그룹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이 그룹은 오직 한 주, 하나님을 모신다.
2. 이 그룹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룹원의 관계와 일들을 처리한다.
3. 이 그룹은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4.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만난다.
5. 이 그룹은 서로를 존엄성, 영예,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대한다.
6. 이 그룹은 갈등과 분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룬다.
7. 이 그룹은 남녀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8. 이 그룹은 각 사람에게 공정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9. 이 그룹은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솔직하게 서로 나눈다.
10. 이 그룹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룹 안과 밖에서 신실한 봉사과 삶을 나누는 자세로 그 은사를 활용한다.<sup>109)</sup>

소그룹은 전도, 양육, 봉사 등의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며 소그룹은 부부그룹, 독신그룹, 전문가 그룹, 남성그룹, 여성그룹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sup>110)</sup> 소그룹은 서로간의 돌봄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그룹원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 소그룹은 목회의 기지이며 스스로를 목회팀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가 소그룹에 필요한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sup>111)</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 조지(Carl George)는 담임목사가 소그룹에 힘을 실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대예배만큼 중요성을 부여할 때 소그룹 활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12)</sup>

사명(목적 혹은 과업)이 없이 관계성만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의 삶의 온전한 방식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sup>113)</sup> 단적인 예로 친교와 사귄만으로 끝

108)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45.

109) Ibid., 64.

110)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59.

111)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335.

112)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60.

113)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24.

나는 소그룹은 결코 온전한 소그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칼 조지는 소그룹이 수행하는 목회의 네 가지 측면을 사랑(목회적 돌봄), 학습(성경공부), 의사결정(내부 행정) 그리고 행함(그룹 밖의 사람들에 대한 봉사)으로 분석하고 소그룹의 성격에 따라 위의 활동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14)</sup> 소그룹은 세포가 몸의 기본단위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초단위로서 예배와 봉사, 돌봄과 전도, 선교가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 2. 소그룹과 리더십

### 가. 소그룹 리더의 역할

어느 집단에 있어서나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유능한 리더를 통해 한 집단이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리더가 잘 못할 때 그 집단은 큰 어려움과 실패를 맞볼 수 있다. 소그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어느 집단보다 중요한 소그룹에서야말로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맥스 드프리(Max DePree)는 “진정한 리더는 발굴되고 양육된다”고 말한다.<sup>115)</sup>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는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주장하면서 봉사자적 리더는 먼저 봉사자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sup>116)</sup> 이어서 더 좋은 사회가 건설되려면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에 대한 봉사의 능력과 봉사자로서의 행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7)</sup>

소그룹에 있어서 리더십은 기초가 된다.<sup>118)</sup> 소그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리더십이다. 또한 리더십은 소그룹에 비전, 방향, 안내, 지식, 지혜와 책임감을 부여해 준다.<sup>119)</sup> 소그룹은 가족적인 체계이므로 리더는 소그룹이라는 가족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120)</sup> 소그룹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핵심적이므로 리더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소그룹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

114)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89.

115) Max DePree,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ell Publishing, 1989), 11.

116) 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New York: Paulist Press, 1977), 13.

117) Ibid., 49.

118) Jeffrey Arnold, Big Book on Small Groups, 11.

119)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89.

120) Ibid., 286.

적이다.

#### 나.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리더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은 리더십<sup>121)</sup> 이론가 사이에 해묵은 논쟁이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리더는 생득적인 요소와 함께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쿠투즈와 포스너(Kouzes and Posner)는 존경받는 리더의 특성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1987년의 조사에서는 정직성, 유능함,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영감있음(inspiring)의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했으나 1995년에는 정직성,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영감있음, 유능함의 순으로 바뀌었다.<sup>122)</sup>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독교적 차원이 아닌 일반적 차원에서 바라본 지도자 상이었지만 소그룹 리더는 이보다 더욱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

소그룹의 좋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며 그룹을 양육하고 능력있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sup>123)</sup>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야 한다. 성경은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딤후 3:1)고 하면서 동시에 네 자신을 위해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렘 45:5)고 경고한다. 자기 중심적인 야망은 잘못된 것이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자연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sup>124)</sup>

오스왈도 샌더스는 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훈련, 비전, 지혜, 결단력, 용기, 겸손, 성실과 신실성을 제시한다.<sup>125)</sup> 노먼 쇼척과 로저 호이저(Norman Shawchuck and Roger Heuser)는 교회지도자가 가져야 할 내적 태도로 어린아이 같음(마 18:3-5), 가난한 심령(마 5:3), 섬김의 자세와 자기 점검을 지적한다.<sup>126)</sup> 기독교

121) 해리스 리(Harris W. Lee)는 과거 50년간의 리더십 연구 조사 결과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적어도 350개가 있음을 발견했지만 “리더십은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현상중의 하나이지만 지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현상 중의 하나이다”고 결론지었다. Lovett H. Weems, Jr., Church Leade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5.

122) James M. Kouzes and Barry Z. Posner, The Leadership Challeng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5), 21.

123)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88.

124)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94), 29.

125) Ibid., 52-62

126) Norman Schchuck and Roger Heuser, Leading the Congreg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29-36.

지도자는 이 세상과 영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인기를 끄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의 성향처럼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다.<sup>127)</sup>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서 변화시키는 지도자(transforming leader)의 원형을 찾으며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변화시키는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추종자들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추종자들이 능력을 얻어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통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sup>128)</sup>

<표 12> 자연적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

자연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자기 확신적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람들을 압	하나님도 압
자기 스스로 결정함	하나님의 뜻을 찾음
야망있음	겸손함
방법을 강구함	하나님의 본을 따름
명령을 즐김	하나님께 순종함을 즐거워 함
개인적 보상을 추구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
독립적임	하나님을 의지함

리더십의 임무는 ‘변화’이다.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더 향상되고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현재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며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변화’에 대한 전문가이다.<sup>129)</sup>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하며(잠 29:18) 비전을 나눌 팀(공동체)을 형성해야 하며(고전 12:18-21)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고전 4:1-2).<sup>130)</sup>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

127) Henri J. M. Nouwen, *In the Name of Jesus* (New York: Crossroad, 1998), 71-73.

128) Leighton Ford, *Transforming Leadership*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1), 15.

129) Lovett H. Weems, Jr., *Church Leadership*, 11.

130) Ibid., 135-137.

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며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능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하며 늘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의 사역은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의 정착으로 나타난다. 소그룹 리더는 이상과 같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다. 소그룹 리더의 선발과 훈련

소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양육해야 하며 리더십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체득된다.<sup>131)</sup> 소그룹 목회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리더를 선발하고 훈련하며 능력을 부여하며 또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sup>132)</sup> “잘 훈련되고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며 훈련되지 않은 대중은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sup>133)</sup>는 말과 같이 비록 소수이더라도 훈련되고 헌신적인 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은 전도, 양육, 봉사 등의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며 소그룹 리더들은 목회자의 철저한 훈련과 감독, 지시를 받아야 한다. 소그룹 리더의 훈련과정은 임무 부여(assign), 감독(supervise), 훈련(train)이다. 소그룹 리더는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아야 동기유발이 된다.<sup>134)</sup> 소그룹 리더는 앞에서 언급한 리더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훈련을 성실하게 받기로 서약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리더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계발과 훈련을 통해 보다 성숙한 리더가 된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잠재적인 자연적 리더십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왈도 샌더스는 잠재적인 리더십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sup>135)</sup>

나쁜 습관을 고친 적이 있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자신을 통제하는가?

131)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90.

132) Ibid., 95.

133) John Mallison, Growing Christians in Small Groups (Sydney: Scripture Union, 1989), 4.

134)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44.

135)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36-37.

독립적으로 사고하는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다룰 수 있는가?  
 실망적인 상황을 창조적인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협조를 쉽게 얻으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확신을 얻는가?  
 권력의 남용 없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어렵고 미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는가?  
 정당하지만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당신의 관점이나 결정에 대한 반대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존적인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태도로 보고하는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전략적인가?  
 의지가 강하며 일관적인가?  
 남을 용서하는가?  
 어느 정도 낙관적인가?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열정이 있는가?  
 책임을 감수하는가?

이런 질문은 자연적인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준다. 그러나 영적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충만은 자발적으로 삶과 의지를 성령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그룹리더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소그룹리더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양식을 좇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취하셨던 행동에 믿음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맞출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께서 취하셨던 행위들은 고독과 침묵, 기도, 단순하며 희생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묵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생활이었다.<sup>136)</sup>

소그룹리더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소수의 헌신되고 신실한 리더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결과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36)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88), ix.

## 제 2 절 소그룹의 실제

소그룹은 다양한 성격의 그룹을 포함한다.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을 통해 신앙 수준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 관심사 등이 다른 사람들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모을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1. 소그룹의 유형

소그룹은 그 목표가 제자양성이고 기초는 리더십이며 구조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소그룹은 형태와 초점이 다른 기도그룹, 새 신자반, 선교그룹, 봉사그룹, 전도팀, 위원회 등 다양한 그룹을 포함한다. 수많은 소그룹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언약그룹, 성경공부 그룹, 전도그룹, 새 신자반, 제자훈련 그룹, 지원그룹, 회복그룹, 선교그룹 등이 포함된다.<sup>137)</sup> 미국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교회는 성경공부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봉사 소그룹, 구도자 소그룹, 후원/지원을 위한 소그룹의 다섯 가지 소그룹이 있다.<sup>138)</sup>

미국 남가주의 레이크 포리스트(Lake Forest)에 소재한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는 150개 이상의 지원그룹과 목회그룹이 있다. 주일학교 그룹, 편부모 그룹, 영적 성장그룹, 전도 및 선교그룹 등이 있다. 전도 및 선교그룹 산하에는 교도소 목회, 멕시코 고아원 선교, 멕시코 의료선교, 멕시코 교도소 선교, 여관 선교 등이 있다. 회복 축하그룹도 있고 생명지원 그룹으로 유방암, 암, 만성질환, 만성적 고통, 우울증, 이혼자, 불임, 별거중인 남자, 별거중인 여자, 십대 우울증 등에 대해 지원하는 그룹이 있으며 학원선교 그룹,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독신 그룹, 사업 및 전문가 그룹, 음악 사역팀 등 다양한 그룹이 있다.

한국교회 상황에 적합한 소그룹으로는 구역별 소그룹, 사역별 소그룹(교사, 성가대, 식당봉사, 교회관리, 차량안내, 병원선교, 의료선교, 외국인 선교, 컴퓨터선교, 장애인 선교, 노인선교, 새가정 선교 등), 초신자 소그룹, 제자훈련 소그룹, 후원 및 지원그룹 등을 제시할 수 있다.<sup>139)</sup> 남가주의 아나하임(Anaheim)에 위치한 남가주 사랑의 교

137)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369.

138)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21.

139) Ibid., 21.

회는 새 가족반, 새 일군반,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순장반의 순으로 신앙단계별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역그룹으로서는 예배개발원, 교제개발원, 훈련개발원, 사역개발원, 선교개발원, 전도개발원, 교육개발원의 7개 부서에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는 팀이 있다. 예배개발원에는 예배행정 사역원, 예배음악 사역원, 찬양 사역원이 있으며 교제개발원에는 새 가족사역반, 교구 사역반, 친교사역반(골프, 사진, 테니스, 그림, 바둑, 등산, 낚시 등의 친교그룹) 등이 있으며 기타 각 부서에 여러 종류의 사역팀을 두고 있다.

미국교회의 소그룹과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나 중요한 문화적 차이도 발견된다. 미국교회의 소그룹은 교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여 교회로부터 목회적 지원도 받고 그룹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한국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에 보다 치중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보다는 그늘진 곳에 숨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것은 한국의 '체면'이나 '수치'문화의 단면을 반영하는 현상인 것 같다.

## 2. 소그룹목회 사례

칼 조지에 의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을 기초로 하는 교회이다.<sup>140)</sup> 그의 말대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Portland)에 위치한 새소망 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는 학생, 미혼자, 남성, 여성, 직장인 등이 서로의 관심사에 의해 소그룹을 구성하여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실생활 적용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가진다. 소그룹 리더는 세심한 훈련과 감독을 받는다.<sup>141)</sup>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 베링톤에 위치한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의 열 가지 가치관 중 하나는 소그룹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최고로 일어난다고 믿는다”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확실히 그 내부의 변화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역사 하심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140)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41.

141)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81.



린과 빌 하이벨스(Lynne and Bill Hybels)는 고백한다.<sup>142)</sup>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새들백교회는 새들백의 목적진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의 가족에게 소속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계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준비시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 즉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찬미(magnify), 선교(mission), 소속(membership), 성숙(maturity), 사역(ministry)에 두었다.<sup>143)</sup> “교회는 항상 더 크게 성장하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는 릭 워렌(Rick Warren)은 동질의 소그룹은 교회가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모든 교인에게 개인적 돌봄과 관심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슷한 목적, 관심사, 연령, 주거지 또는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그룹망을 형성해야 한다. 큰 그룹 축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의 일부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한 축제는 불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교인들에게는 힘이 된다. 작은 동질그룹은 그와는 반대로 친밀감과 가까운 교제의 분위기를 창출하기에 적절하다.<sup>144)</sup> 새들백교회는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45)</sup>

1. 소그룹을 통해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3. 기도가 보다 의미 있게 된다.
4. 스트레스와 압력을 보다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5. 믿지 않는 친구, 친지나 직장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
6. 지도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7.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
8.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 중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에 가장 성공적인 교회 중 하나는 사랑의 교회이다.<sup>146)</sup>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담임

142) Lynne and Bill Hybels, 월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5), 349.

14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5), 125.

144) Ibid., 365.

145) Rick Warren, Why Join a Small Group? (Leaflet made by Saddleback Church).

146) 사랑의 교회를 설립한 옥한흠은 소위 광인공식(狂人公式)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목사의 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순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이 넘는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sup>147)</sup> 리더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소그룹으로서 제자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정착한 사례이다. 사랑의 교회 청년사역의 특징은 전문사역자를 확보하거나 배출하여 그들에게 사역의 전반을 상당 부분까지 위임하며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향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성격이 조금씩 다른 다섯 개의 대학부 중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년들도 토요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5개 이상의 사역에 다양하게 참여한다. 자신의 은사와 취향에 맞는 사역을 찾아 성장하도록 배려하였다. 학원복음화, 직장 복음화 측면에서 그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다. 또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48)</sup>

미국의 한국 이민교회에서 소그룹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된 교회는 남가주 아나하임에 위치한 남가주 사랑의 교회이다. 1988년에 창립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 순장이 인도하는 다락방 모임은 성경공부, 전도, 양육, 사랑의 교제에 중점을 두며 현재 100여 개의 다락방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순장반 등의 순차적 훈련 과정을 통해 소그룹 리더인 순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역 그룹을 통해 교인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149)</sup>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을 목회의 기본 구조로 하는 교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소그룹 목회가 정착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목회자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비록 소수 이더라도 신실하고 헌신된 리더를 확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장에서는 소그룹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그룹은 중요한 성경적 원리의 하나이며 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이는 적은 수의 공동체이다.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평신도의 사역자화'라는 개념

광인공식은  $C = B + E + V$  인데 C는 'crazy for Christ'이고 B는 'belief'(신념), E는 'enthusiasm'(열정), V는 'vision'(비전)을 뜻한다.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서울: 두란노, 1998), 34.

147) Ibid., 70.

148) Ibid., 235.

149)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세계 교회의 부흥 우리 평생의 소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소개책자).

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이며 기초적인 구조이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구조이며 소그룹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헌신적이고 충성된 리더의 확보를 통해 소그룹은 작지만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다.

## 제 6 장

### 신 흥대 학 교 직 원 의 소 그룹 활 동

본 장에서는 소그룹의 정착으로부터 사역과 선교까지의 단계와 관련된 소그룹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며 신흥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활동의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찰한다.

#### 제 1 절 소그룹활동의 연혁과 정착전략

##### 1. 소그룹활동의 연혁

신흥대학에서의 소그룹 활동은 1999년 1학기에 본 연구자가 신흥대학의 교목실장으로 부임한지 약 2개월이 지난 뒤에 시작했지만 리더의 선발과 훈련, 교재의 작성 등 소그룹 전반에 대한 계획과 전략의 수립이 없이 기존의 선교회원을 거의 의무적으로 소그룹에 할당함으로써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리더를 선발,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소그룹을 시작했다는 데 있다. 본 대학에서는 금요일마다 교직원 선교회 정기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행했지만 교직원들이 강의나 업무 등에 쫓겨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므로 소그룹 모임을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소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들에게 전적으로 소그룹을 위임하고 별도의 소그룹 리더 모임이나 훈련도 없이 진행해 왔으므로 현재는 소그룹 활동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이다.

소그룹은 다만 정기예배 때에 찬양이나 안내 등의 봉사를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했으나 소그룹 활동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이 교회 성장의 기초라는 사실이 대학사회에

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대학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그룹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2. 소그룹의 정착 전략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는 소그룹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소그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둘째로 헌신된 소수의 사람으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집사회, 주일학교 교사모임 등 기존의 소그룹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50)</sup> 일반 교회와는 달리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그룹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 소그룹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원인들을 분석하면 전체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선교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그룹활동을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대부분이었다. 또 리더의 선발과 훈련, 소그룹 활동의 전체적 기획 등 기본적인 단계를 무시하고 직접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도 한 이유이다. 현실적인 전략이 결여되었고 선교회원들에게 소그룹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거나 비전의 제시없이 구조를 바꾸려고 한 것도 소그룹 활동이 부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소그룹의 목적

#### (1) 교직원 선교회의 목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활동의 목적을 진술하기 앞서 먼저 교직원선교회의 목적에 대한 진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직원 선교회는 '학원복음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직원 선교회의 일차적 목표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준다(요 3:16)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무, 학사 행정, 학생 지도, 강의와 연구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

150)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37.

도록 하는 것이 학원복음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대학 구성원 개개인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개인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실천 윤리인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와 자원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와 평안을 확장해 가는 공동체적 삶이 영위되도록 하는 것이 교직원 선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교직원 선교회는 학원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교직원선교회의 존재목적은 한 마디로 예수그리스도의 선교명령(마 28:18-20)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신흥대학 교직원선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다. 신흥대학 교직원 선교회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나아가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소그룹의 목적

소그룹은 교직원 선교회의 존재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적 조직이다. 대학의 교직원은 비교적 동질적이며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칼 조지의 메타 교회모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교회가 크기에 관계없이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원리로서의 소그룹<sup>151)</sup>을 강조하기보다는 재직중인 교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독동아리들과 함께 동역하며 학교가 복음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영적 역량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소그룹 활동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야 한다. 신흥대학 교직원 소그룹의 목적은 학원 상황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공부와 예배, 기도 등을 통해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모이는 친밀한 대면집단으로서 가족적 공동체<sup>152)</sup>이다. 소그룹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을 나눌 때 소그룹은 강화된다.

151)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53.

152)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신흥대학 교직원 소그룹의 목적을 다음과 같다. 신흥대학 교직원소그룹은 학원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해 삶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소그룹 리더의 선발과 훈련

소그룹에 있어서 리더의 선발과 훈련은 핵심적이다. 소수의 헌신되고 신실한 리더들을 통해 소그룹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다. 리더는 첫째, 영적 리더의 잠재력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반드시 일정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리더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부합한 소그룹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상황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교목실에서 리더의 선발과 훈련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목실이 보다 목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반대로 그 활동이 위축된 학교도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학교 운영자가 교목실과 학원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교목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교목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소그룹리더는 정기예배나 기타 교내외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적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직원들 중에서 리더훈련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교수와 직원 소그룹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 그룹에서만 리더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수그룹과 교직원의 전체 숫자에 비례하여 리더를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0년 말 현재 교수는 129명이고 직원은 60명이므로 약 2 대 1의 비율로 리더를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여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자질을 갖춘 리더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리더의 훈련은 주어진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리더 훈련

---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자녀관계에 들어가며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산 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마 5:45). 예수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리게 하시는 분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중개하는 분이다(눅 11장의 주기도문, 막 14:36 겹세마네의 기도).

프로그램에는 교직원 선교회의 목적, 소그룹의 목적, 소그룹 언약, 소그룹 운영방법, 성경공부 방법, 기도하는 방법, 소그룹의 조직, 친교, 봉사, 전도와 선교의 의의, 소그룹의 발전단계, 분쟁의 해결 방법, 소그룹의 발전적 분할, 소그룹일지의 작성, 그룹내의 의사결정, 정기예배와 소그룹의 바람직한 관계, 소그룹의 평가 등 소그룹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부록에 자세히 수록하였다.

#### 다. 소그룹의 조직

소그룹은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이다. 소그룹을 지칭하는 이름들로 셀, 순, 다락방, 목장 등이 있다. 신흥대학에서는 “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보다 좋은 이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은 인원수에 있어서 12명을 넘겨서는 안되고 12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둘로 분할해야 한다. 보다 밀도 있고 친밀한 소그룹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5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소그룹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4-5명이라도 헌신되고 소그룹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소그룹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그룹의 구성에 있어 교수들과 직원들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교회성장학의 기초를 놓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하면 동질적 단위에 의한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sup>153)</sup> 학교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이지만 연령, 보직, 소속학과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동질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직원들은 교수들에 비해 지위, 교육의 정도, 시간사용의 융통성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교수들과는 다른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소그룹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교수들과 직원들의 정기 지도자모임은 별도로 가져야 한다. 정기 지도자 모임을 위해 교수들이 낼 수 있는 시간과 직원들이 낼 수 있는 시간에

153) Donald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7), 339.



차이가 있으므로 두 부류의 정기 지도자모임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수와 직원들이 배타적 감정이나 위화감 없이 융화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요 전체예배와 기타 전체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그룹에 대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각 자의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영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소그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에 의해 소그룹이 좌우되기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욕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좋다.

한 소그룹 내에는 리더와 보조리더 두 사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리더는 소그룹을 지도하는 한편 보조리더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 리더와 보조리더는 하나의 리더팀을 이루어 서로 맡은 역할을 조화롭게 담당해야 한다. 보조리더는 향후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룹활동을 통해 훈련과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는다. 소그룹 활동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을 둘로 분할하여 보다 깊은 나눔을 가져야 할 때도 있다. 이때 리더와 보조리더는 자연스럽게 각각 소그룹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보조리더는 소그룹리더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이 성장하여 분할을 할 필요가 생길 때 분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보조리더와 그룹원 일부를 잔류시키고 리더와 일부 그룹원이 따로 독립하여 새로운 그룹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방법인 것 같다.<sup>154)</sup>

대학교직원들은 비교적 자존심이 강하고 개성이 있으므로 리더와 보조리더를 계급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고 리더팀을 이루어 함께 동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와 보조리더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므로 리더로 하여금 보조리더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리더와 보조리더는 각각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언제든지 그룹이 성장하여 분할되어야 할 때 보조리더는 즉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조지는 그의 모델에서 그룹 리더들(X)과 스텝(D,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사이에서 그룹 리더들을 돌보는 코치(L)를 두었

154)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49.

는데<sup>155)</sup> 본 대학은 교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소그룹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코치 없이 본인이 소그룹을 직접 관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10개 이상의 그룹이 생긴다면 그룹리더들을 돌볼 수 있는 코치들을 둘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이며 일반 목회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공부 위주의 소그룹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성경공부 이외의 어떤 종류의 소그룹을 둘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향후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다.

교직원선교회에서 운영할 소그룹은 성경공부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지만 소그룹 활동이 성경공부라는 지식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며 캠퍼스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공부는 공허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룹원들의 관심에 따라 복음의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 봉사, 찬양,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에 초점을 둔 소그룹을 조직할 수도 있다. 소그룹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본질적인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 제 2 절 소그룹과 정기예배

소그룹과 정기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한 교회는 최소한 2개의 다른 규모의 모임, 즉 대규모 축제적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소그룹은 교회의 핵심이며 교회를 추진해 나가는 존재이지만 전체적인 예배가 없으면 그 중요성이 결여될 수 있다. 소그룹은 대그룹을 지지하며 대그룹은 소그룹 전략에 의미를 부여한다.<sup>156)</sup> 교직원 선교회에는 최소한 소그룹과 대그룹의 두 그룹이 존재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1. 정기예배의 의의

소그룹을 작은 규모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대그룹으로서의 정기예배는 큰 규모의 공동체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때

155)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23.

156) Ibid., 59-60.

공동체는 교제 혹은 코이노니아의 성격을 띠며 카리스마적 유기체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영적 은사와 도덕적 특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백성(라오스)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할 때 백성은 우주적, 역사적 실체이며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회중과 본질적으로 '새로운 인류'라는 점이 강조된다.<sup>157)</sup>

교직원선교회를 제도적 의미에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그룹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정기예배는 소그룹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며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같은 소그룹에 속한 그룹원뿐 아니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며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대그룹 예배에서는 소그룹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찬양, 설교나 드라마, 간증, 특별강사 초청 등 특별순서를 가질 수 있다. 소그룹은 정기예배를 지원하고 정기예배는 소그룹에 의미를 부여한다.

소그룹과 아울러 대그룹모임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구성원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도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요한 회집에 참석해야 힘을 얻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다. 기독교대학인 신흥대학이 명실상부하게 기독교대학으로서 정립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과반수가 정기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가. 신흥대학에서의 정기예배

정기예배는 교직원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드리는 대그룹 모임이다. 신흥대학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약 1 시간 동안 교직원들이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참석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세미나, 개인사정, 학위과정 수업, 강의의 중복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예배를 통해 얻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으므로 혹은 교직원 선교회인 로고스가 특정인의 사적인 집단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본인이 1999년 1학기에 교목실장으로 부임하여 금요일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로고스선교회

157)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73.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활발한 정기 예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정기예배에 대해 교직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정기예배가 대표성 없이 일부 특정 교직원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그룹 모임과 정기예배가 둘 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건강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며 교직원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예배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말씀선포를 포함하는 예배의 참여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sup>158)</sup>

예배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독교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과연 예배를 강요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학의 교직원들은 다른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우회'의 형식으로 자발적인 신앙인의 모임으로 결성될 수 있다. 다만 '신우회'란 이름 대신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 보다 선교적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신흥대학의 경우 비록 '선교회'란 명칭하에 활동했지만 지금까지 대내적인 모임에만 국한되는 신우회적인 성격이 강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이고 선교회가 영향력이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선교회가 특정인의 사적인 조직으로까지 비쳐지는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교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 나. 정기예배의 활성화방안

정기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당국의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기예배는 교직원들이 선교적 사명감을 새롭게 하며 일체감을 느끼며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기회가 된다. 또한 정기예배를 통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며 미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며 소그룹 전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정기예배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그룹활동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자연스럽게 배양될 것이다. 어느 정도 정기예배가 활기를 띠고 참석 인원이 증가해 갈 때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기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예배 자

158) 전통적으로 교회의 주요활동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말씀선포(kerygma), 봉사(diakonia), 친교(koinonia)가 그것이다.

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군다나 교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소그룹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이 과거 2년 동안 교직원 선교회를 지도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열린 정기예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소그룹활동을 통해 정기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정기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교직원이 과반수가 될 때 신흥대학은 명실상부한 기독교대학이 되는 것이다.

칼 조지는 소그룹과 중대그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든 교회는 지구를 구성하며 대륙은 대그룹 모임이며 섬들은 소그룹 모임들이며 지구축은 협조점을 의미하며 날짜 변경선은 새로 온 방문자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를 나타내며 대기는 기도를, 그리고 대양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아직 모임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sup>159)</sup> 사실 모든 건강한 성도들은 한번은 소그룹에 또 한번은 대그룹에 출석해야 한다.

또한 색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활동을 묘사할 수 있다. 자주색은 다스림(governance)이며 회색은 재정(finances), 적색은 예배(worship celebration), 주황색은 외부적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extension and auxiliary), 황색은 연결 기능(bridging and mezzanine), 녹색은 양육 및 목회 팀(nurture groups and ministry teams), 그리고 청색은 전화상담을 포함한 상담(telecare and counseling)을 의미한다.<sup>160)</sup>

특별히 적색과 녹색, 그리고 황색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적색은 교회의 축제적인 대규모 예배로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당에서 모인다. 대규모 예배는 복합적인 활동을 수반하므로 사회, 음악, 음향, 조명,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황색은 연결기능으로서 종종 25명 내지 175명의 회중이나 세미나 형태의 모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정 생활에 대한 세미나, 대규모 성경공부, 혹은 스포츠 활동 등이 이러한 황색 기능의 활

159)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56.

160) Ibid., 157.

동의 예가 된다. 녹색은 소그룹으로서 양육과 목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팀을 망라한다. 녹색 활동은 가정에서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양육과 친근한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소그룹 활동이다.<sup>161)</sup>

위와 같은 구조를 대학에서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배 안에도 황색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생활 세미나, 간증 등을 포함시킬 수 있고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등 특별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과 대그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소그룹과 정기예배의 운용전략

한 교회에 교인이 새롭게 들어오는 방법은 교회예배, 주일학교, 세미나, 지역봉사 활동 등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앞문(front door)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소그룹이라는 옆문(side door)을 통해 들어오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sup>162)</sup> 이것을 신흥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면 정기예배를 통해 교직원선교회에 가입하고 동참하는 경우와 소그룹을 통해 선교회와 연관을 맺는 경우이다. 소그룹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가 아는 사람들을 소그룹에 초청함으로써 점차 깊은 사귄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직원 선교회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이 옆문을 통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대학은 현재 소그룹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그룹을 일단 해체하고 정기예배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차적 과업이다. 부진한 소그룹을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교직원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없애고 정기예배의 부흥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정기예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예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기예배의 이름 자체가 '로고스선교회 예배'로서 예배 참석의 대상이 교직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정기예배의 참석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들,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찬양을 포함하여 예배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 활용하며 보다 은혜롭고 영감 있는 예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161)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61-162.

162) Ibid., 73-74.

정기예배는 전통적이며 수동적인 예배의 형식을 탈피하여 '열린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직원들의 근무 사정상 1주일에 1회 드리는 정기예배는 예배뿐만 아니라 연결기능으로 세미나, 간증, 특별찬양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자나 설교자가 고정되어 있는 천편일률적인 진행방식의 예배는 경직되고 폐쇄적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이 신흥대학의 교목실장으로 부임한 후 진행된 정기예배를 분석하면 사회자와 설교자가 늘 고정되어 있고 예배 진행방식도 동일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사정상(유학, 박사과정 수학, 군 복무 등)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

예배의 개혁과 갱신이 없으면 대그룹 모임인 정기예배가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심도 깊은 성경공부와 기도는 소그룹활동과 개인경건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기예배는 축제적인 열린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배가 정착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소그룹활동을 시작하되 먼저 자질있는 리더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도록 한다. 소그룹의 교과과정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본적으로 신앙단계별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룹의 성격규정이나 그룹원의 모집 등은 각 그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정기예배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며 점점 힘을 얻게 된다. 회원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봉사와 전도, 선교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정기예배에 관한 설문조사

정기예배와 관련하여 교직원 선교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30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정기예배는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자발적인 것이 좋다는 응답이 87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모이기에 편리한 시간은 현재와 같이 금요일 4시-5시가 가장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57퍼센트였다. 월요일 아침 수업 전인 8-9시에 모이자는 의견도 2명 이었는데 상당히 과격적이며 과감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표 13〉 정기예배에 관하여

정기예배 참여방식	현행과 같이 자발적인 것이 좋다: 26명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회'형식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좋다: 4명
모이기에 가장 편리한 요일과 예배시간	현행처럼 금요일 4시-5시: 17명 수요일 오후 4시-5시: 3명, 월요일 오전 8시-9시: 2명 기타: 8명
정기예배를 위한 조치	수업,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명 현행처럼 형편이 허락하는 사람만 참석하면 된다: 12명
정기예배의 형식	지금처럼 전통적이며 고정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4명 기존의 형식을 고수하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 (찬양, 진행방식 등): 13명 기존의 형식을 고수하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 1명 기존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증,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열린 예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기예배의 장소	현행 본관 2층 교수회의실이 좋다: 15명 도봉관 지하세미나실이 좋겠다: 15명 기타 다른 장소: 참여인원 증가후 세미나실에서 모이자.

정기예배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기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현행의 형식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7퍼센트였고 기존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증,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열린 예배의 형태가 좋다는 의견도 43퍼센트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배의 장소는 현재의 장소가 좋다는 의견과 보다 넓고 쾌적한 도봉관 지하 세미나실이 좋겠다는 의견이 각각 50퍼센트였다.

이외에 정기예배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시간 시작과 총 진행시간이 때로는 지켜지지 않고 길어지는 관계로 수업준비에 무리가 있다. 예배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 점차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회원들에게 미리 모임에 대해 통보하거나 후보 등을 불참자에게 전해 줄 경우 관심과 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셋째, 외부에서 강사를 자주 초청하는 영적 모임이 필요하다. 넷째, 찬양 및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라 개강, 종강, 부활절, 추수감사절 예배는 공식 행사화하여 전체 교직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여섯째, 교목실에서 사회 등의 전반적 진행을 맡아 운영하고 기도 등만 교직원이 교대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와 기타 건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정기예배는 자발적으로 모이되 모이는 시간은 현행과 같이 금요일 4-5시가 좋고 수업이나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도록 하며 정기예배의 형식은 간증, 찬양 등의 순서를 포함시켜 기존의 형식에 변화를 주거나 과감하게 열린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예배장소에 있어서는 발전적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목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선교회원들은 정기예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정기예배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므로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나. 소그룹에 관한 설문조사

다음으로 소그룹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표 14〉 소그룹 활동의 필요성

소그룹 활동의 필요성	매우 강하게 느낀다: 3명	약간 느낀다: 10명
	별로 느끼지 못한다: 12명	거의 느끼지 못한다: 6명

소그룹활동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58퍼센트로 현재의 소그룹활동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5〉 소그룹의 모임회수

소그룹의 모임 회수	1 주일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4명 2 주일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13명 1 달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8명 기타: 그룹별로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소그룹활동의 모임 횟수에 대해서는 2주일에 1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2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6퍼센트, 1주일에 1회가 13퍼센트였다. 지금까지 소그룹모임을 1주일에 1회 가지도록 하였으나 소그룹에 대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1주일에 1회 모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다.

〈표 16〉 소그룹 활동의 우선순위

소그룹 활동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으세요	종합 결과: 1. 성경공부 2. 친교 3. 기도 4. 전도
-----------------------------------	-------------------------------------

소그룹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공부였고 그 다음이 친교, 기도와 전도 순이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룹원간에 친교를 나누는 즐거움이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상당히 실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인 것 같다. 기도와 전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경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그치고 친교가 친교로만 그침으로 기도와 전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그룹을 통한 개인의 신앙성장과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표 17〉 소그룹 활동의 시작

소그룹 활동의 시작 방법	회원들을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소그룹에 소속시켜 일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0명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31명
---------------	---

응답자의 전원이 소그룹활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소그룹활동은 작고 알차게 자율적으로 그룹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하는 것이다. 종래에 교직원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원 전원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소그룹에 할당하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많았던 것 같다. 리더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그룹을 인도해야 하고 일부 그룹원들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므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체가 리더나 그룹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출석률이 저조하고 리더는 더욱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며 모임은 점점 활력을 잃어 갔던 것이다. 향후 전개될 소그룹활동에서는 선교회원들의 의견과 같이 리더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아울러 자원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18〉 소그룹 활동의 배분

소그룹 활동의 배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성경공부, 기도, 친교, 전도 등의 활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7명 처음에는 “친교”에 중점을 두어 서로 친해진 다음 점차로 성경공부, 기도, 사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좋다: 23명
-----------------	--

소그룹에 있어서 각 영역의 활동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들(77퍼센트)이 처음에는 친교에 중점을 두어 서로 친해진 다음 점차로 성경공부,

기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V자 날개 사이클 전략과 일치한다. V자 사이클 방식이란 소그룹의 동적인 운용방식으로서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인 성경연구(딤후 2:15), 보살핌과 교제(골 3:12-17), 그리고 확장(골 4:3; 마 25장)을 점검하고 그룹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그 때마다 우선순위를 확인해 주는 것인데 1단계인 탄생 때에는 보다 그룹세우기에 역점을 두어 보살핌과 교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2단계에서는 성경공부와 봉사, 사역에 중점을 두며 3단계에서는 이것을 보다 강화하며 마지막 단계인 종료와 재탄생 단계에서는 다시금 그룹세우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sup>163)</sup>

〈표 19〉 소그룹의 종류

소그룹의 종류	영어 성경공부, 친교, 기도, 봉사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 것이 좋다: 22명 규격화 된 표준적인 소그룹들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6명
---------	---

소그룹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9퍼센트가 영어 성경공부, 친교, 기도, 봉사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선교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그룹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룹원들이 열의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소그룹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참신한 소그룹을 고안하더라도 그 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없으면 그 소그룹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헌신된 리더의 양육과 훈련이 늘 계속되어야 하고 풍성한 리더그룹이 형성되면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63)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44.

〈표 20〉 소그룹과정의 종료방식

소그룹 과정의 종료 방식	어떤 과정에 기간을 두어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시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6명 과정을 이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 그룹이 커져서 둘로 분할 할 때까지 2, 3년 정도 계속 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21명
------------------	--

소그룹의 진행에 있어 어떤 과정에 기간을 두어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시키는, 기계적인 형식보다는 한 그룹이 성장하여 둘로 분할 될 때까지 계속 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룹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교직원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21〉 소그룹 활동의 시간과 장소

소그룹 활동의 시간과 장소	그룹별로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룹원의 시간에 맞추어 교내 혹은 교외에서 하자 정규예배 후에 모이는 것이 좋다 시간은 소그룹에서 정하고 장소는 본관 교수회의실이 좋다
-------------------	--

소그룹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전체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보다는 각 그룹이 자율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그룹활동에 필요한 교재는 기존의 성경공부교재가 좋다는 의견과 본 상황에 맞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평평히 맞섰다. 기존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교직원 선교회의 상황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경공부 교재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계속적으로 개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22〉 소그룹활동 교재

소그룹활동의 교재	기존의 성경공부 교재(C.C.C., 네비게이토 등 발간)가 좋겠다: 10명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10명 별도의 교재 없이 성경의 각 권(예: 마태복음, 로마서)을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6명
-----------	--

다음 질문은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관한 것이다. 소그룹 활동은 대그룹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그룹인 정기예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정기예배의 활성화와 궤를 맞추어 소그룹활동을 전개해 갈 수도 있다.

〈표 21〉 소그룹활동의 시작시기

소그룹 활동의 필요성과 시작 시기	정기예배만으로 족하다. 소그룹활동은 부담만 가중시킬 뿐 큰 효과는 없다: 3명 정기예배가 활성화된 뒤 모이는 것이 좋겠다: 10명 정기예배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우선 자발적으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17명 정기예배와 함께 모든 교직원들이 각종 다양한 소그룹에 의무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1명
--------------------	---

소그룹활동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예배의 활성화와 함께 혹은 충분히 활성화된 다음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7퍼센트로 지배적이었다. 선교회원들은 정기예배의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소그룹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 같다. 둘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질적인 소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의견은 지금까지 소그룹활동이 치밀한 계획 없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소그룹

이 질적으로 알차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정기예배, 찬양연습, 소그룹 성경공부 등에 시간할애가 많아져 부담이 된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주가 되어 점차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교직원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정기예배와 찬양연습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활동이 어느 하나도 알차고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소그룹활동은 전체적인 진행 계획과 리더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리고 정기예배가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할 생각이다. 찬양연습의 경우 교직원선교회 합창단이 보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월요일마다 2시간 쯤 모여서 연습하고 있지만 지휘자가 선교회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합창단이 정기예배에서도 찬양을 가끔씩만 봉사하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회 합창단과 선교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이원화된 느낌이다. 차제에 선교회 합창단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필요하면 지휘자를 교체하여 영감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합창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합창단 연습으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교합창단이란 이름대신 찬양소그룹이라는 찬양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소그룹의 개인적 친교가 이루어지면 성경공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딱딱한 교리보다 주변의 일상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에서의 신앙체험이 소그룹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은 앞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의견이다. 친교와 교제를 통해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친교와 교제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성경공부와 기도, 전도 등의 활동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교직원 선교회 자체의 정체성과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것을 통해 기존의 로고스 선교회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중 58퍼센트가 선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명(改名)을 포함하여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개명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전 교직원이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선교회의 성격과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24〉 교직원선교회에 관하여

기존의 로고스선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여부	우리 대학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정통성있는 선교회이므로 계속 존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10명 선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명(改名)을 포함하여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14명
교직원선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	1. 교내선교(교직원 선교, 학생선교, 교내 봉사 포함) 2. 지역사회 전도와 봉사 3. 전도
대학교회의 설립 필요성	본 대학에 대학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16명 본 대학에 굳이 대학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12명
교직원 선교회에 대한 학교의 지원 필요성	신앙수련회, 세미나, 기도실확보 등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13명 교직원선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신앙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16명

교직원 선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교내선교와 봉사가 일차적인 사명이라고 응답하였고 나아가서 지역봉사와 선교,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교회원들이 선교회의 사명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의식이 있음을 반영한다. 의식상으로 국내전도와 국외선교까지 선교의 범위를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원 선교회는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신흥대학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퍼센트가 대학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독교대학으로서 복음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회가 설립되어 채플과 각종 찬양집회, 특별예배, 기도회 등에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복음화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학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직원선교회와 대학교회의 관계가 정립된다. 교직원선교회와 대학교회는 별도로 조직되어야 하며 대학교회는 학원복음화의 사역을 위해 대학구내에 위치하며 지역사회 복음화도 아울러 추진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교직원에 대해서 대학교회 출석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대학교회 출석여부에



따라 인사상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교내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다수가 선교회의 자율적 활동을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45퍼센트가 신앙수련회, 세미나, 기도실 확보 등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직원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 재정을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퍼센트를 차지했다. 선교회원들이 선교회의 제도적인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선교회 자체의 자율성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을 강제적으로 소그룹에 소속시키는 것에 대해 일치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에 의해 거듭 확인된다. 기타 교직원선교회와 관련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형식으로든 주일을 포함하여 신학대학의 정기예배가 필요하다. 섬기는 교회가 없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명실공히 창학이념에 부합되는 학원복음화를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정기예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견은 대학에 궁극적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둘째, 한 학기 한번 이상 수련회 및 교육모임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교회원들이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련회와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선교회원 상호간에 친교와 사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목실 중심으로 예배 및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목실이 복음활동의 중심에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전문적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교직원 중심의 자체적인 활동을 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직원 선교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학원복음화를 위해 교목실이 중심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복음활동에 대한 기획과 총괄, 진행은 교목실의 고유 업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목실이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활발히 했으나 상대적으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점이 많다.

넷째, 우리 대학의 설립목표에 가장 적합한 선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직원선교회 임원의 헌신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선교회 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임원들에 대한 지도와 훈련이 부족했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목실에서는 임원들에 대한 훈련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소그룹활동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사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로 소그룹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선교회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보편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그룹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소그룹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 3. 방학 특별 프로그램

정기적인 소그룹활동은 학기중에 계속되지만 학교의 특성상 방학이 되면 교수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방학중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은 가지기 힘들며 대신 대그룹 모임의 차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1회 신앙수련회를 가짐으로써 소그룹 구성원 상호간에 또한 전체적으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선교회 전체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봉사과 선교활동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도 계획할 수 있다.

방학중에 학교를 떠나서 수련회를 갖되 칼 조지가 제안한 것처럼 황색모임 즉 연결기능의 역할을 하는 모임의 성격도 갖도록 다양한 신앙수준과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련회가 소그룹과 정기예배에 참여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다 깊은 영성을 계발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그룹원 간에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수련회는 정례화 하는 것이 좋다.

교직원들로 하여금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선교회에 있으며 선교회에 속한 교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방학중에 별도의 소그룹을 계속 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그룹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다. 방학기간 중의 특별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정례화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이다.

#### 4. 학교당국의 지원사항

신흥대학에서 교직원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해 온 로고스선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소그룹활동이나 정기예배 기타 선교적 활동에 대단히 중요하다. 교직원 선교회를 자치적인 신우회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제도적 조직으로서 전 교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선교회로 둘 것인가는 양쪽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기도, 성경공부, 정기예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간과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 가. 선교회의 성격

로고스 선교회가 자체적인 신우회의 성격을 띠고 선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학원복음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로고스 선교회가 10년 정도 지속되었지만 선교회가 특정인의 조직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자율에만 맡겨 옴으로 인해 선교회가 상당히 침체에 빠졌다. 따라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선교회를 육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회원들은 교직원선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존의 선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대학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정기예배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정기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많아야 한다.

세미나, 수련회 기타 교회행사에 있어 선교회나 기독동아리 자체의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학교 당국에서 일정한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하며 기독 동아리 특히 교직원 선교회가 자립하여 기독동아리도 충분히 지원하고 기타 선교적 활동을 수행함에 자비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나. 시간과 공간의 확보

교직원선교회의 정기적 활동은 교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각종 소그룹활동과 정기모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기도를 위한 기도실도 확보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기도와 경건의 시

간, 소그룹활동, 정기예배가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다.

소그룹모임은 각 그룹에게 모이는 시간과 공간을 자율적으로 맡기되 정기예배는 모든 구성원이 모이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정기예배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이 예배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특히 직원들은 정기예배에 부담감 없이 참석하도록 예배시간에 한해 자유시간을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어서도 아늑하면서도 경건하고 친밀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선교회가 현재 모이고 있는 장소는 교수회의실로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며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며 전 교직원을 위한 예배장소로는 협소하다. 따라서 본교에서 새로 신축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제 3 절 소그룹의 발전단계와 사역

생명체와 같이 소그룹에는 발전단계가 있다. 소그룹이 탄생하고 성장하여 분할, 재생산되다가 언젠가는 종료되는 일련의 단계가 있는 것이다. 소그룹은 또한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없는 교제와 친교는 공허하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의 발전단계에 따른 특징과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소그룹의 사명을 조명한다.

#### 1. 소그룹의 발전단계

##### 가. 시작단계

소그룹의 시작단계에서는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의 목적에 찬동하고 일정한 소그룹 운영규칙에 동의한 뒤에 소그룹을 시작해야 한다. 한 소그룹에는 리더와 보조리더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처음에는 친교에 중점을 두어 그룹원들이 서로 친해지고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견고한 결속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야구장 다이아몬드 전략이다. 이것은 소그룹이 탄생시기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보여주는 구도이다. 이 전략에 의하면 1루는 자기소개로 자기자신을 선물로 내어 보이는 것이며 서로를 알기 위한 시간이다. 2루는 긍정의 과정이다. 서로의 이야기에 대한 긍정을 통해 '관계성'이 창조된다. 또한 수용과 긍정은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3루는 목표설정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결속,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하시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홈베이스는 '코이노니아' 즉 '친교'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sup>164)</sup>

#### 나. 성장단계

성장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그룹 전체적으로 전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 온전한 교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면 제자훈련과 사역을 위해 그룹원들이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성장단계에 있어서는 보살핌과 교제의 비중은 다소 줄이고 성경공부와 기도 등 영성의 계발과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전도와 확장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상처를 입었거나 소속이 필요한 사람, 영적 교제에 갈급한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소그룹활동에 초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성장하는 소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하라.
2. 모든 잠재력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최고로 실현된다는 점을 인식하라.
3. 협력과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4. 내적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5.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6.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
7. 영적인 전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8. 풍성한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sup>165)</sup>

성공적인 소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첫째, 성경적 철학과 목표, 즉 비전이 있으며

164)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47.

165) Ibid., 61-65.

둘째, 목회적 지원과 참여가 있다. 선교회 차원에서는 교목실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그룹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소그룹이 교회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며 삶의 터전인 대학에서 소그룹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교직원의 과반수가 가질 수 있다면 성공적이다. 넷째, 잘 준비된 지도력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에서나 교직원 소그룹활동에서나 '지도자'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기독교 동아리에 있어서 지도교수와 지도목사(전도사 혹은 간사)의 리더팀이 확고하면 그 동아리는 잘 성장할 수 있다. 소그룹 활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융통성 있는 구조의 확보이다. 사람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앞서면 안 된다.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그룹과 활동이 요구된다. 여섯째, 목적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그룹모임이 진행된다. 소그룹모임이 비효율적이고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진행된다면 그 모임은 곧 활기를 잃고 침체하고 만다. 소그룹은 잘 계획되고 삶과 관련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시간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질적, 양적 성장이 있다. 영적인 성장과 아울러 수적인 증가는 성공적으로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 다. 분할 및 확대 재생산단계

소그룹이 성장하여 일정한 수가 넘게되면 분할해야 한다. 건강한 세포가 성장하여 분할하듯이 소그룹은 성장, 분할의 과정을 거쳐 전체 소그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한 그룹이 성장하여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예비 리더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조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 보조리더는 그 역할이 보조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장차 새로운 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 예비 리더인 것이다.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리더와 보조리더가 각각 중심이 되고 기존의 그룹원들을 적절히 둘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 소속시키는 것이 무난하다. 이 때 리더가 약간의 그룹원을 이끌고 기존의 그룹에서 나가서 새로 개척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보조리더가 새롭게 개척하는 방법도 있다. 그룹의 분할과 확대 재생산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그 그룹에 적

결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한 유기체에는 반드시 생명의 주기와 일생이 있듯이 소그룹도 일정한 주기와 일생이 있다. 소그룹은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 위험, 변화, 성장, 전환, 인내, 성숙의 과정을 거치며 친교와 교제의 내적 공동체(코이노니아)로부터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외적 공동체(디아코니아)로 발전해야 한다. 그룹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뒤 그룹원들이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여 그룹원들이 혼란과 당혹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그룹이 개혁을 시도하여 새로운 그룹으로 변신하며 새로운 비전과 언약을 제시하여 보다 사명의 수행에 주력하는 그룹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그룹활동을 진행해 가며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며 보다 선교적 사명에 충실을 기하는 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 소그룹을 크게 친교그룹과 사역그룹으로 나누어 친교그룹은 소그룹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적인 친교 공동체로 육성하고 친교그룹이 성장하여 분할될 때 일부는 사역그룹으로 가고 일부는 친교그룹에 남아 새로운 그룹원을 돌보는 사역을 수행하면 신앙의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친교그룹에서의 사역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의 목회철학에 따라 소그룹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일정기간 모든 소그룹이 친교적 소그룹의 성격을 띠고 활동하다가 신앙의 성숙과 함께 “사역”을 지향하는 소그룹으로 발전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할 것이다.

## 2. 소그룹의 사역

“신흥대학 교직원 소그룹은 학원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해 삶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그룹의 목적에 따라 소그룹은 학원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은 소그룹이다. 소그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 훈련받은 교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은 일차적으로 학원 복음화이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국내 전도, 세계 선교이다.

### 가. 학원복음화

교직원선교회의 일차적 사명은 학원복음화에 있다는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신흥대학의 경우 매년 약 3천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산업체 위탁생까지 합하면 약 3천 5백 명의 학생이 매년 학교에 들어오는데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신흥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의 이해'와 '채플' 등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동아리들을 육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선교회에서는 교수와 직원의 입장에서 접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윤리적 삶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신흥대학의 어떤 교수는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 교직원 선교회는 일차적으로 사역의 초점을 동료 교직원에게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교직원들이 영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학생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직원들이 학원선교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다.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들은 '학원 복음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점과 기능을 인정하고(고전 12:12-27)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교직원선교회에서는 기독교동아리들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선교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며 공동예배, 찬양 축제 등 선교적 행사를 통해 단합된 모습으로 공동의 사역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학교회가 설립된다면 결신한 학생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공식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은혜와 영감이 넘치는 공동의 예배를 드린다면 교직원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나. 지역사회 봉사

선교회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학원복음화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들어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산학협동'이라는 명제하에 학교와 산업체가 직접 도움을 주고받는 양식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협력은 선교회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학교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봉사의 성격에 따라 어느 차원에서 지역사회 봉사를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례로 수년 전에 의정부 일대에 수해가 났을 때 신흥대학에서는 수재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외환위기 때에도 실업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숙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선교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데 지역의 사회봉사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하는 활동이 한 예가 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해 복음의 포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할 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 다. 전도와 선교

소그룹활동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sup>166)</sup>에 연결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신흥대학 교직원선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신흥대학 교직원 선교회원들은 선교회의 사명을 비교적 좁게 인식하여 학원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소그룹은 교회의 기초단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각 소그룹 차원에서부터 분명히 인식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예루살렘부터 복음화하고 그후에 유대를 복

166) 편의상 '전도'는 동일문화권에 대한 복음전파를 '선교'는 이질문화권(예를 들면 외국 선교)에 대한 복음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음화하는 식의 순차적인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따라 동시에 행하여야 하는 선교명령이다. 스테반의 순교로 온 교회가 사도만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선교를 하게 된 것(행 8:1)도 선교명령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교회는 친교와 교제, 성경공부와 기도 등 지나치게 내부 지향적인 활동에만 치중했는지도 모른다. 소그룹도 친교와 교제 등 내부지향적인 성격을 띠면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게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

전도와 선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기독교동아리들과 교직원 선교회가 특히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긴밀하게 동역해야 함은 필수적인 일이다. 지역사회 전도를 포함하여 국내 전도에 있어서 지역교회들 혹은 국내의 교회들과 기독교 방송 등 선교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일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독교동아리에서도 산간이나 도서지방의 교회들과 연결되어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 선교회에서도 국내 선교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전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목실을 중심으로 교직원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들이 함께 동역할 필요가 있다. 해외선교는 단기선교 중심으로 하되 역시 교직원 선교회와 기독교동아리가 연합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수들은 의료, 건축, 컴퓨터 등 전공분야를 활용하며 학생들은 찬양과 기타 노력 봉사를 담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열매있는 선교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기독교동아리와 교직원 선교회가 공히 믿음의 담력을 얻고 소그룹이 더욱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다.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과 '기도'라는 영적 호흡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운동을 통해 개인과 소그룹이 나아가서 교회와 각 선교회가 더욱 강건해 지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공동체의 모형이다. 소그룹에 대한 열정과 투자, 노력과 기도는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일구어 낸다.

6장에서는 신흥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활동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

색하였다. 소그룹이 지향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교목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되 훈련을 통해 헌신된 리더들을 양성하며 리더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교직원선교회가 정체성과 역량을 확보했을 때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선교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같은 전략의 타당성을 나타낸다.

## 제 7 장 결 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학원복음화'라고 할 수 있다. 학원복음화는 흔히 제도적 차원에서 채플과 기독교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학원복음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직원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과소 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직원들은 직업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교직원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바로 선교지이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많은 각 급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다. 기독교 학교들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회에 대해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다. 교회와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은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복음 전도와 사회계몽과 개혁 그리고 애국 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전통의 맥락에서 해방 후에도 기독교 대학들이 크게 활약했다. 학원복음화 운동은 전통적으로 예배와 기도회, 부흥회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은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소그룹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소그룹이 확고한 성경적 원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소그룹은 적은 수가 모여 긴밀한 교제와 기도, 성경공부 등을 통해 사역과 선교로 연결되는 공동체이다. 소그룹은 교회의 기초 조직이며 양육과 섬김, 봉사, 예배 등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살아 있는 세포와 같은 조직이다. 소그룹의 목적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제자화 운동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학원복음화와 관련하여 소그룹은 교직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직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전도를 통해 교직원 선교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직원들은 학원복음화를 더욱 능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기독교동아리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복음화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통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역사회 봉사과 선교, 국내전도와 해외선교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학원복음화도 선교명령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원이라는 배경에서 일차적인 선교활동의 장은 학원이다. 그러나 사역과 선교를 학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고 반면에 사역과 선교를 지나치게 외부 지향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지나친 부담 때문에 탈진에 이를 수도 있다. 학원 상황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선교 사역의 추진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선교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대그룹 모임인 정기예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직원들은 소그룹과 정기예배에 공히 참여하여야 균형있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소그룹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소그룹에 대한 목회자의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비록 적은 수라도 신실하고 헌신된 소그룹 리더가 확보될 때 소그룹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저절로 성장하거나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그룹리더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실하고 헌신된 소그룹 지도자들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사역을 담당하는 소그룹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며 모양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 몸을 이루듯이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국내와 국외까지 선교사역을 힘있게 전개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들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실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신흥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활동이 전체적인 복음화 전략의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소그룹'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그룹 활동이 앞으로도 다양한 목회적 상황에서 적용되어 선교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사역을 강화하여 나아갈 것이다.

## 부록 1

## 소그룹 개발계획

소그룹 개발계획은 신흥대학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활동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 다룬다.

## 1. 소그룹 프로그램 실시 전 준비사항

## 가. 소그룹의 목적과 비전의 확립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그룹의 목적과 비전을 확립하는 일이다. 신흥대학 교직원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며 사명은 학원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하여 삶을 나눔으로써 달성된다.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을 둘 필요가 있고 또 두어야 하지만 소그룹의 기본적인 목적과 비전은 동일하다. 친교, 봉사, 성경공부 등 소그룹 내부적 활동과 외부적 활동의 초점은 그룹원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데 있다.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비전이 널리 확산되고 교직원 선교회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나. 정기예배의 활성화

소그룹활동을 전개하기 앞서 정기예배가 활성화되고 복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 정기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모임이 부진하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소그룹'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선교회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대한 영적인 필요성

을 절실하게 느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예배가 활성화되어 보다 친밀한 공동체의 삶을 갈구하는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된다.

정기예배가 열린 예배의 형식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참석 대상이 교직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지역의 주민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찬양, 기도, 간증 등의 순서를 포함한 예배를 잘 준비하여 누구나 쉽게 은혜롭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예배의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은 편의상 교직원의 과반수가 예배에 참석하느냐 여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교직원의 과반수가 꾸준히 정기예배에 참석한다면 소그룹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 다. 소그룹정착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

소그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그룹정착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급격한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교직원선교회 전체를 소그룹체제로 일시에 제도적,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리더 훈련, 소그룹 서약서의 작성 등 기본적인 단계를 무시하고 직접 활동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실패를 가져 올 확률이 높다. 소그룹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소그룹도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없이 시작하는 소그룹도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소그룹 리더들에 대한 통제가 결여된다면 역시 소그룹에 잠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그룹원들의 훈련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치료와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소그룹이 부진하게되는 요인이다. 임무를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사역에 몰입하게 되면 소그룹 활동이 큰 짐으로 느껴지며 결과적으로 소그룹이 침체하게 된다. 소그룹을 제도적, 관료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소그룹이 융통성을 잃고 탄력을 상실한다. 소그룹에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소그룹의 운영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한다.



## 라. 리더의 확보

소그룹 리더의 확보는 소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리더는 적은 수라도 심사숙고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해야 하며 반드시 일정한 리더훈련을 받은 자라야 한다. 우선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실성, 일관성, 책임감, 겸손함, 적극성 등 리더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춘 자로서 소그룹의 목적과 비전을 확실히 인식하며 일정한 리더훈련을 받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

잠재적인 소그룹 리더는 정기예배 출석, 신앙경력, 교회에서의 직분, 대학 내에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녀의 성별과 교수와 직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소그룹이 교직원 선교회 전체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리더의 선정과 아울러 리더의 균형 있는 배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2. 소그룹 리더의 훈련

### 가. 소그룹 리더 훈련 대상자의 모집

소그룹 리더는 헌신되고 신실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소그룹 훈련을 받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소그룹 리더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훈련하는 것보다는 3-4명이라도 분명하고 강도 있게 훈련하여 리더팀으로서의 동료의식과 팀웍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훈련을 받기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리더훈련의 요구사항과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 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소그룹리더 훈련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리더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리더훈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과 공개적으로 리더훈련 프로그램을 공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청서를 받는 방법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리더훈련의 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리더훈련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나. 소그룹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소그룹훈련 프로그램은 교직원들의 연간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통상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시업무가 시작되어 명년 3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중 교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입시업무에 매달리므로 훈련 프로그램을 이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과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학기 중에는 교직원들이 학교에 출근하므로 비록 강의, 연구, 기타 학사업무로 바쁘지만 모이기가 용이한 반면 여름방학에는 일상적인 업무는 없지만 교수들의 경우 각 자 나름대로 국내외 연수, 여행 등 계획이 있으므로 공통의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직원들의 경우 짧은 휴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므로 공통의 시간을 내는 것이 교수들만큼 어렵지는 않다.

소그룹 훈련프로그램의 기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참가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훈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훈련을 언제 가지며 얼마의 기간 동안 실시할 것인가는 훈련 지원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일에 1회씩 8주 내지 10주 정도 모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며 학기 중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방학중에 진행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 수요자들에게는 훈련 기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수요증을 수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소그룹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및 보완

소그룹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프로그램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리더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훈련의 내용을 훈련 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보완될 수도 있다. 소그룹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훈련프로그램이 보완,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소그룹이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몇 차례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소그룹에 대한 목적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시행착오와 실패를 넘어 소그룹은 반드시 정착될 것이다.

### 3. 소그룹활동의 실시

#### 가. 소그룹의 종류

소그룹의 목적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궁극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그룹의 주된 사역이지만 선교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개성과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이 연합하고 동역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소그룹을 만들 것인가는 리더의 은사와 관심사 그리고 그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소그룹이든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소그룹 운영지침이 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의 진행에 있어서 기도, 성경공부 등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소그룹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을 토대로 각 그룹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이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만 모양과 기능이 각각 다르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소그룹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특징과 고유한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소그룹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 나. 그룹원의 확보

그룹원은 그룹의 리더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룹의 독특한 성격과 특색에 맞게 그룹원을 모집할 때 리더와 그룹원이 공고한 팀워크를 이루고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룹원을 확보

할 필요는 없고 3-4 명 정도로 소박하게 시작하여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때 그룹이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소그룹의 성격이 독특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룹원의 모집이 힘든 경우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각 소그룹의 인원이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룹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리더들끼리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룹원이 남녀의 성별이나 소속 학과나 부서 등에 편중이 있어서는 안되고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좋다. 소그룹이 폐쇄적인 집단이 되거나 그룹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소그룹은 열린 소그룹이 되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그룹활동에 동참시킬 때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

#### 다. 소그룹의 장소와 시간

소그룹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는 소그룹이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모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소그룹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미리 계획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소그룹은 적어도 2주일에 한번은 모여야 하며 교수 연구실이나 기타 방해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인다. 여러 소그룹이 같은 시간에 비교적 넓은 동일한 장소에 흩어져서 모이는 것도 서로 자극과 격려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를 선택하되 소그룹모임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그룹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하며 리더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한다. 모이는 시간은 그룹원간의 소그룹 연약서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그룹원간의 동의에 의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모임을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모임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므로 가능하면 그룹원들이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라. 리더 모임

소그룹 담당자는 소그룹 리더모임을 최소한 1달에 1번 소집하여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며 아울러 교육과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 리더들은 정기모임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를 구하며 기도와 나눔을 통해 리더팀의 결속을 든든히 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리더 모임은 비전을 나누

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 자리도 된다. 리더 모임은 리더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며 교직원 선교회의 사명인 학원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리더들은 보조리더와 함께 리더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한 소그룹에서 리더와 보조리더가 함께 참석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며 보조리더가 장차 리더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에서 리더와 보조리더가 공고한 리더팀을 이루어야 그 그룹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리더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리더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 4. 정기예배와 소그룹의 연결

##### 가. 정기예배와 소그룹의 관계

정기예배는 축제적인 대그룹모임이다. 정기예배에 참석했다가 소그룹에 연결되어 소그룹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기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기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소그룹은 정기예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에는 참여하지만 정기예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기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와 특성에 맞는 소그룹을 찾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기예배와 소그룹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면 소그룹이 순번을 정해 정기예배에서 봉사와 안내를 담당한다든지 혹은 간증이나 소그룹 소개를 하는 것도 정기예배와 소그룹을 연결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정기예배는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나눔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나. 수련회 및 야유회

정기예배와 소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교직원들을 정기예배와 소그룹에 연결시키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수련회와 야유회 같은 특별활동이다. 정기예배 때에도 세미나 등을 통해 선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나 수련회와 야유회는 '학교'라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행사인 것이다. 수련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강과 찬양, 간증, 기도, 친교 등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어야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수련회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에는 보다 야외활동에 초점을 맞춘 친교와 활동 중심의 수련회가 되는 것이 좋겠고 겨울에는 성경묵상과 기도, 특강 등 내적 성찰과 영성의 계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1년에 2회 수련회를 갖는 것이 어렵다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1회 실시하되 겨울방학이 시기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야유회는 야외에서의 친교가 주요한 활동이다. 친교와 교제를 통해 교직원들이 더욱 가까워지며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야유회는 가능하면 교직원들의 가족까지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사권을 통해 정기예배나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직원들을 모임에 초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교직원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야유회는 세상적인 다른 야유회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제공하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야유회로서 믿지 않는 교직원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강한 도전과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소그룹을 통한 전도와 선교

### 가. 학원선교

소그룹은 그 자체가 학원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조직이다. 소그룹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학원선교 사역이 있고 선교회 전체가 연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역이 있다. 학원선교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소그룹은 선교회의 지시와 조정,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성격상 소그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 선교회가 동참해야 하는 일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 대표성있게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기독동아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떤 소그룹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선교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봉사를 중점적 활동으로 추진하는 소그룹이 있다면 기독동아리의 지역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비록 한 소그룹이 단독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선교회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지역사회 봉사

대내적인 학원복음화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전개하는 것도 선교회의 주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 지나치게 힘을 쏟아 학원복음화와 선교회 자체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선교회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도 따라야 하나 봉사와 함께 전도, 즉 말씀의 전파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나친 책임의식을 가질 때 오히려 선교회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교직원 선교회에서는 교육기관인 학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이야말로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 다. 국내전도, 국외선교

국내전도와 국외선교는 소그룹이 선교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학원복음화를 통해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접, 간접으로 국내 전도와 국외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그룹과 선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셈이 되지만 선교회와 소그룹이 직접, 간접으로 국내전도와 해외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명제이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소그룹과 선교회가 학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외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할 때 자칫 내부 지향적이고 교제 중심적인 경향에 빠지기 쉬운 선교회와 소그룹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전도는 선교기관이나 교회의 지원을 비롯하여 자매 학교 기독학생회 지원

등 많은 방법이 있다. 국외 선교의 경우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포함하여 직접 단기선교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기 선교의 경우 학생들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교가 되도록 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



## 부록 2

## 소그룹지도자 훈련 및 참고교본

이 교본은 소그룹지도자를 훈련하는 교범인 동시에 그룹 리더들이 그룹을 인도해 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고안되었다. 소그룹리더들에 대한 훈련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며 본 교본은 리더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표준적인 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그룹리더들이 훈련받은 내용은 실제로 리더들이 소그룹을 진행해 나갈 때 있어서 참고할 내용이다. 본 훈련 프로그램은 전부 12주에 걸쳐 진행하도록 구성되었으며 훈련 참가자는 반드시 과제를 해 와야 한다.

## 제 1 주 소그룹의 기초

1주의 훈련에서는 소그룹 전반에 관한 사항 즉 정의, 목적, 성경적 배경, 종류 등에 대해 다룬다.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은 3-12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는 의도적인 모임이다.

신흥대학 소그룹의 목적

신흥대학 교직원 소그룹은 학원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해 삶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그룹의 장점

소그룹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대규모 그룹에서는 친근함이나 헌신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소그룹 내에서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삶을 나눌 수 있다.
2. 포괄적: 소그룹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아무도 무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그룹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3. 적응성: 소그룹은 구조와 형태, 운영방침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소그룹은 어떤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평신도 지도력의 배양: 소그룹은 전문적인 지도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정한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소그룹 지도자가 될 수 있다.
5. 이동성: 소그룹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진다. 장소적으로 소그룹은 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는다. 편의에 따라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6. 재생산적: 소그룹은 성장과 분할을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하지만 소그룹의 기본구조를 견지하며 개인적인 돌봄과 깊은 사귀기를 유지할 수 있다.
7. 전도와 사역의 효과적인 구조: 소그룹은 '교제'라는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그룹은 은사의 계발, 사역의 수행을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소그룹은 그룹원을 위한 사역이 있으며 각각의 그룹들은 활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

### 소그룹의 성경적 배경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역하신다. 신약에 국한해도 소그룹 사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소개된다. 예수께서도 소그룹으로 사역하셨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소그룹이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셨다. 초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은 인간 삶의 기본적이요, 본질적인 존재양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소그룹은 혈연에 기초한 가족관계보다 훨씬 깊은 영적 가족관계에 기초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삶을 나누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기독교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공동체의 개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하나님은 다원적으로, 그룹으로, 가족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완성하시어 영원하고 완벽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소그룹목회는 교회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교회가 무엇이라는 근본적 질문에 뿌리를 박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 있는 성전이며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이다. 소그룹은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포가 모여 몸을 이루듯이 소그룹은 교회의 기본 단위이다. 소그룹 목회의 성서적 근거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다. 소그룹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 공동체로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것이다.

노아시대의 홍수심판 그리고 홍수 이후 바벨탑사건 등은 파괴적인 공동체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개개인을 부르셨다. 이스라엘이란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즉 그의 가계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께서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같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소그룹 상황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까지나 소그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 삶을 나누며 말씀을 연구하는 본질적인 구조는

소그룹이었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이며(고전 12장) 소그룹은 공동의 짐을 나누었다(갈 6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그룹의 성숙과 상호 섬김을 위한 것이다(엡 4장). 소그룹은 서로 배우며 격려할 뿐 아니라(히 10장) 소그룹은 서로 고백하며(약 5장) 상호 제사장적 공동체이며(벧전 2장) 소그룹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요일 3장).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할 때 그러한 정의에 걸맞는 교회의 본질적 구조는 소그룹이다. 세포 하나 하나가 모여 몸을 구성하듯이 소그룹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룬다. 또한 몸을 기능적으로 분석할 때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 각기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듯이 다양한 종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소그룹이 존재할 때 교회전체 혹은 선교회 전체는 더욱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이다.

#### 소그룹이 견지하는 가치

소그룹이 견지하는 가치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든 구성원이 목회자이다.
2. 지도자들은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3. 모든 소그룹은 재생산하도록 되어있다.
4. 소그룹은 기초교회의 기능을 한다.
5. 전도는 소그룹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6. 소그룹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7. 소그룹은 전체교회로서 예배한다.
8. 기도는 교회를 움직인다.
9. 모든 차원에서 예비 지도자들이 양육된다.
10. 모든 구성원들은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
11. 교회는 활동할 수 있는 단위들을 조직한다.
12. 성공의 기준은 신약성경 공동체이다.
13.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계시며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14. 구성원들은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 소그룹의 종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새 가족을 위한 소그룹, 봉사를 위한 소그룹, 지원과 회복을 위한 소그룹, 전도를 위한 소그룹 등 특성화되고 다양한 소그룹이 필요하다. 성경공부 소그룹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소그룹이지만 성경공부 소그룹 안에 기초 교리 소그룹부터 시작하여 신앙 단계별로 다양한 소그룹을 둘 수 있다.

소그룹은 다양한 형태와 초점을 가지고 있다. 기도 소그룹, 성경공부 그룹, 선교 소그룹, 나눔과 돌봄 그룹, 전도 팀, 초신자 그룹, 언약그룹 등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그룹은 제자훈련 그룹, 협력과 회복 그룹, 셀그룹, 통합그룹, 기초언약 그룹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1. 제자훈련 그룹: 이 그룹은 가장 헌신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다.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장차 소그룹 리더로서 사역할 사람들로써 리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자훈련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2. 협력과 회복그룹: 이 그룹은 교회내의 소극적인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그룹이다. 알코올, 도박, 이혼, 폭력, 성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룹으로서 단기간의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험과 훈련을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셀그룹: 셀그룹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단위인 세포와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장과 확대 재생산을 꾀하는 소그룹이다. 리더와 보조 리더가 있어서 상호 긴밀한 협조 가운데 사역을 확장하며 소그룹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둘로 분할하여 새로운 셀을 구성한다. 셀그룹에서는 리더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소그룹 목회 철학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형태의 소그룹이다. 본 신학대학에서는 셀그룹 형태의 소그룹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통합그룹: 이 그룹은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각 그룹(주로 구역)에서 다시 묵상하고 배우는 매우 강력한 조직으로서 목회자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룹의 결속력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룹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5. 기초연합그룹: 이 그룹은 셀 그룹과는 달리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언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모임을 진행하는 형태를 취한다. 언약에는 모임의 목적, 모임의 장소, 시간, 모임의 진행 방법, 준수해야 할 규칙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언약에 근거한 모임이므로 그룹원들이 도중에 그룹 모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모임이므로 주인의식과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계약적인 면을 강조하면 모임이 경직되고 율법적일 수 있고 가족적이며 공동체적인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 소그룹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룹원의 동의하에 기초적인 소그룹 언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소그룹 기초 서약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은 공동체와 연관된다. 언약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을 한데 묶어준다. 언약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한 구속력 있고 엄숙한 합의이다. 언약은 작은 가족적 그룹과 직결된다. 소그룹은 방향과 목적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소그룹 서약서는 분명한 목적, 리더의 인도와 그룹원의 주인의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소그룹 서약서는 이상적인 소그룹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룹원들을 성숙시키고 세워주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그룹이 기꺼이 밟아 가려고 하는 단계들을 말한다. 소그룹 서약서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1. 그룹의 의도를 분명히 해 준다.
2. 그룹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
3.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 준다.
4. 그룹의 헌신을 강화한다.

5. 그룹의 평가기준을 제시해 준다.
6.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7. 그룹의 목적, 목표와 사명을 밝혀 준다.
8. 그룹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9. 그룹의 형태와 규칙들을 요약해 준다.
10. 그룹의 경계선을 설정해 준다.
11. 그룹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한다.
12. 그룹의 바람과 두려움을 반영한다.
13. 그룹의 일치와 하나됨을 개발시켜 준다.

소그룹 서약서의 주요 사항들은 관계, 성경, 기도, 열심, 지도력, 계획수립과 의사일정, 만남의 분위기 등이다. 관계(relationships)의 관심사는 그룹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와 나눔을 원하느냐는 것이다. 성경(scripture)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기도(prayer)를 얼마나 강조하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열심(intensity)은 그룹원의 헌신과 직결되며 그룹활동에 어느 정도의 헌신과 노력, 열심을 투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도력(leadership)은 소그룹의 지도형태에 관련되며 목표 달성과 활동 전개에 있어 책임의 담당에 관한 것이다. 계획수립과 모임의 진행(schedule and agenda)은 시간 사용과 계획수립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임에 있어 각 순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분위기(meeting environment)는 모임을 위한 환경의 정비에 관한 것으로 모임의 장소, 모임을 위한 분위기의 조성, 그 외에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전화, 휴대전화, 팩스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소그룹 기초 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모든 모임에 참석할 것, 시간을 잘 지킬 것, 잘 참여할 것, 그룹의 비밀을 지킬 것, 요청 받을 때만 충고할 것, 그룹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 등이다. 소그룹 서약의 속성은 책임성의 서약(covenant of accountability), 긍정의 서약(covenant of affirmation), 도움의 서약(covenant of availability), 비밀 유지의 서약(covenant of confidentiality), 정직성의 서약(covenant

of honesty), 개방성의 서약(covenant of openness), 기도의 서약(covenant of prayer), 민감성 서약(covenant of sensitivity) 등이다. 즉 서약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그룹원들의 소그룹 활동을 긍정하며 도움이 필요한 그룹원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그룹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과 기도하며 서로에게 민감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소그룹 기초 서약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모임의 목적은 \_\_\_\_\_입니다.
2. 우리의 세부적인 목표는 \_\_\_\_\_입니다.
3. 우리는 \_\_\_\_\_ 주에 \_\_\_\_\_ 번씩 \_\_\_\_\_ 요일에 만날 것이며 정기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평가할 것입니다.
4. 우리는 \_\_\_\_\_ 시에 만나서 \_\_\_\_\_ 시까지 모일 것이며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우리는 \_\_\_\_\_에서 만날 것이며 모이는 장소는 매번 정할 것입니다.
6. 우리는 모임을 위해 다음의 기본 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책임: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자세로 헌신함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긍정: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긍정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도움의 제공: 우리는 서로에게 늘 도와주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비밀 유지: 모임에서의 이야기는 외부에 비밀로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정직: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자세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개방: 우리는 서로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기도: 우리는 그룹 안과 밖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민감성: 우리는 서로 사랑의 자세로 민감하게 돌보겠습니다.

### 제 1 주 모임의 질문

-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 과거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의 소그룹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 어떤 점에서 교직원 선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그룹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 소그룹에 있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그룹의 목적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 소그룹의 기초적인 사항들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소그룹 서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제 1 주 모임의 과제

신약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 훈련의 과정에 대해 연구해 오십시오.

### 제2주 소그룹 지도자의 자질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소그룹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소그룹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훌륭한 품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타고난 지도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서 만들어진다. 훌륭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성장하며 리더십은 다양한 모습을 띤다. 소그룹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이다(servant leadership). 성경적이고 건강한 소그룹 지도자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숙하기 위해 헌신하며 소그룹의 목표를 향해 소그룹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

1. 소그룹 지도자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드러난다.

소그룹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다. 기독교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은 죄의 본질적 모습인 교만과 이기심의 반대 속성이다. 겸손한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행함으로 만족을 얻는다.

## 2. 소그룹 지도자의 성품은 개인적인 삶에서 드러난다.

지도자는 그들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기꺼이 사용한다. 또 지도자는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안다. 지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분야의 책임을 맡아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또한 도덕적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리할 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 3. 소그룹 지도자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소그룹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돌보며 양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한다. 또한 지도자는 그룹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도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듣는 것과 아울러 필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개인과 그룹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약 1:19).

지도자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밀을 다 밝혀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지도자는 또한 섬기는 종이여야 한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을 섬기게 된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마 20:28)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6-9). 섬기는 지도자는 섬김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도자로 인정받는다.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사람이다. 소그룹이 성장해 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게 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지도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있다면 소그룹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 소그룹 지도자의 덕목

소그룹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잘 들어준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배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3. 남을 통제하기보다는 섬기려는 자세를 가진다: 소그룹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4. 행동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파악해야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
5. 판단하거나 비판적이지 않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판단이나 비판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6.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도자로서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7. 가르침을 받으며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훈련받으시고 배우셨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수용할 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
8. 계속해서 헌신한다: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다. 시간과 물질, 정력 등을 투자할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9. 단호하고 지도력을 발휘한다: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단호함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판단력을 기초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10. 위험을 감수한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곧 장사를 시작한 청지기들처럼 지도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11. 관계확립에 열정적이다: 공동체는 결국 “관계성”의 확립에 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확립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이다.
12. 유모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다: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지도자는 유머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13. 자기 수양이 되어 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비난이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
14. 그룹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지도자와 그룹원들이 서로 정직하게 인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식이나 권위 등으로 진정한 인간적 교류가 방해받을 때는 안 된다.

####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

1. 기도: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모임의 전, 후에 또한 모임 중에 기도해야 한다.
2. 준비: 소그룹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일을 위임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그룹을 도와줄 사람들을 확보하고 모임의 진행, 모임 중의 질문,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모임의 환경도 중요하다. 보다 쾌적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3. 지도: 지도는 지도자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모임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한다. 시간의 사용, 토론의 흐름, 모임에서 다룰 내용의 결정, 그룹원들 간의 대화 등이 지도의 구체적 내용들이다.
4. 돌봄: 지도자는 민감하게 그룹원의 필요, 어려움, 감정 등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특히 무시되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공격받은 사람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모임 후에 혹은 모임 중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리더십의 발전

리더십은 그룹원들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가장 초보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그룹원들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룹원의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리더와 그룹원간의 관계도 밀접하지 않다. 목표나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이 아직 떨어지지만 리더와 그룹원간에 보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리더는 코치나 멘토의 역할을 하여 그룹원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룹원들이 목표나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이 계발되었지만 관계성에 있어서 아직 리더가 그룹원들을 밀접하게 돌보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리더십의 주요한 내용이다. 가장 고도의 리더십은 위임이다. 그룹원들이 목표와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리더의 긴밀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즉 그룹원들이 최고로 준비된 상태에서는 위임이 가장 적절하다. 이 경우 동기유발과 파송 등이 주요한 리더십의 형태이다.

소그룹에 있어서 상황과 그룹원의 준비상태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는 리더가 일일이 가르치고 지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그룹원들을 지원하고 권유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룹원들에게 과감히 위임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리더는 그룹원들에게 보여 주고 본을 보이며 지원하고 격려하여 그룹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그룹원들이 파송되어 새로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2 주 모임의 질문

-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이 내린 지도자의 정의에 비추어 당신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리더십에 있어서 '성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은 지도자로서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질에 비추어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건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겠습니까?
- 지도자로서 크게 성공을 거둔 경험과 반대로 실패를 거둔 경험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역사상 많은 국내외의 지도자와 성경의 지도자들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 2 주 모임의 과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에 관하여 연구하십시오.

### 제 3 주 성공적인 소그룹의 열쇠

소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원 각자의 은사와 잠재력을 인정하라: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독특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 소그룹을 통해 각 자의 은사와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인식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2. 모든 은사와 잠재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와 잠재력이 발견되고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이 될 수 있다.
3. 협력과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소그룹은 그룹원들의 총체적인 노력과 협조, 나눔이 있을 때 소그룹으로서의 역동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그룹원들이 짐을 나누어지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 그룹원 모두가 동의하는 소그룹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서약서를 기초로 하여 희생과 노력과 협조를 함께 경주해야 한다.
4. 내적 변화를 추구하라: 그룹원의 삶이 성숙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가능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결단과 내적 변화를 추구하며 그룹원간에 서로 격려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한 소그룹을 유지할 수 있다.
5.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은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서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역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소그룹을 위해서 열려있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6.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통해 영

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교제와 섬김과 사역이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말씀을 통한 양육이 있을 때 건강한 소그룹을 유지할 수 있다.

7. 영적인 전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영적인 전체성이란 그룹원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편향됨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관, 경제 생활, 감정, 인간관계, 생활방식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체성을 고려하여 소그룹 활동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시간 면에서도 골고루 안배하여야 한다.

8.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룹원간에 풍성한 교제는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동체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게 한다. 강박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교제가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부연하기로 한다.

1.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그룹원들이 동의하는 계약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룹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2. 좋은 출발: “시작이 반이다”,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소그룹은 첫 번째 모임부터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룹원 초대, 모임의 준비 등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좋은 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도움이 되는 지도자: 지도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활동적이어야 한다. 소그룹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4. 대화의 유형에 대한 개발: 소그룹의 대화에 있어서 그룹원간에 대화의 기회가 공평해야 하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이며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해야 한다.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내적이고 영적인 대화로 발전해 갈 때 위험성은 증대하지만 소그룹은 더욱 성숙해 지고 건강해 진다.
5. 가치 있는 내용: 소그룹의 활동 내용이 가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본으로 책, 테이프,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가 동원되어야 하며 좋은 질문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열정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6. 증대되는 신뢰와 보살핌: 가치를 나누며 감정을 드러내고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그룹 전체의 일치를 재확립할 수 있다.
7. 예수 그리스도 중심: 기도, 리더십, 제자화, 책임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화'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그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8. 과제, 사역, 선교: 사역과 선교는 소그룹 활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사역과 선교는 개인화 되고 동역과 연합을 통해 달성된다. 즉 개인적으로도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동역과 연합을 통해 사역과 선교가 열매 맺는다.
9. 긍정적인 결정: 가장 좋은 의사결정은 동의(consensus)에 의한 것이다. 활발한 토론과 기도를 통해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이다.

### 제 3 주 모임의 질문

- 지금까지의 소그룹 경험에서 건강했던 측면과 건강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 당신과 판이한 성격과 취향,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룹원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그룹에서 사역과 과업의 성취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치 있고 소중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 제 3 주 모임의 과제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제4주 소그룹에서의 보살핌과 교제

소그룹에서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그룹 모임의 중



요한 부분으로 교제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특히 소그룹의 초기 단계에서 교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소그룹에 있어서 보살핌과 교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제 이상의 아무 것도 지향하지 않는 소그룹은 본질을 상실한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소그룹에서의 보살핌

소그룹에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현실성, 수용, 자극과 리더십의 개발이 그것이다.

1. 현실성: '현실성'은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의 한계와 잠재력을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실상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실 인식이다. 악한 세상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현실 인식이다. '현실성'이 소그룹의 삶의 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 정직, 그리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겸손은 그룹원 상호간에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약점을 알면서도 수용해 준다면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소그룹은 보살핌과 정직이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수용: 장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고 새롭게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 받을 때에만 소그룹은 효과적인 소그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며 성공했을 때 부드러운 격려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양육은 일어난다.

3. 자극: 소그룹에서는 그룹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 성장을 위한 자극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현상에 대한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배우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 큰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식이다. 사람들은 매혹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더 배우려고 한다. 세 번째는 지식을 토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리더

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소그룹에서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소그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한다. 2) 어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3) 서로를 향한 그룹의 보살핌을 진작시켜라. 4) 중보 기도 에 힘써라. 5) 당신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리를 명심하면 소그룹 안에서 보살핌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는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1.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2. 사람들은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3.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4. 남자의 문제는 남자가 여자의 문제는 여자가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5.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혹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등의 형식적인 답을 주지 말라.
6. 사람들과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 친교그룹

친교그룹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룹원들 사이에는 승리뿐 아니라 실패도 나누며 비판이나 경직함을 받을 염려 없이 또 지나치게 많은 충고를 받을 염려 없이 기쁨과 슬픔, 확신과 의심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다. 성경에는 친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다(행 2:42; 고전 1:9; 10:16; 고후 13:14; 요일 1:6, 7; 히 13:16). 친교(koinonia)의 어원을 보면 동반자, 참여, 사회적 교류, 물질적 시혜, 대화, 분배, 교제 등을 의미한다.

소그룹에서의 교제는 함께 참여하여 나누며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그 중심

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보살핌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다소 일방적인 어감이 있는 반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상호성과 동등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제 4 주 모임의 질문

-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람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 보다 활발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룹원 중에 성적인 문제(외도)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리더로서 어떻게 돕겠습니까?
- 그룹원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 교제와 보살핌의 중요성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 제4주 모임의 과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제와 오늘날의 교제를 비교해 보십시오.

#### 제5주 소그룹에서의 성경 공부

소그룹의 본질적인 모습중의 하나는 '성경공부'이다. 소그룹의 성경공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진리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기 위한 노력이다. 가장 효과적인 성경공부의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이다.

#### 성경공부의 기본원칙들

성경공부는 강의가 아닌 토론이다. 성경공부에 있어서 적합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성경공부의 초점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에의 적용이다. 성경공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들이 본문의 유인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선택된 본문을 읽는다.

3. 창조적인 침묵을 사용한다.
4. 시각과 촉각, 청각, 사고력을 총 동원한 전인적인 성경공부가 되어야 한다.
5. 하나 하나의 구절에 집중해야 한다.
6.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공부가 역동적이고 흥미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 귀납적 성경공부

성경본문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교훈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귀납적 성경공부이다. 귀납적 성경공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찰: 이 단계에서는 성경의 본래적 상황에 걸 맞는 사실을 추출하여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작업을 한다. 육하원칙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것이 관찰의 단계에서 할 일이다.
2. 해석: 관찰 단계에서 얻은 사실을 근거로 “해석”을 시도하며 모든 사실을 엮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그 당시 성경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고 오늘날 그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3. 적용: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파악되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 단계는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먼저 저자의 의도와 교훈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 사람들과 내가 처한 상황과 태도와 이해를 비교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문이 나의 삶과 믿음에 대해 말하는 바를 파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 취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소그룹의 리더는 귀납적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리더는 그룹을 인도하기 앞서 본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록자와 기록 시기, 주제, 목적 등을 공부해야 하며 필요하면 성경사전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 성경공부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권(예: 마가복음)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논리적으로 공부한다.

3. 성경공부를 할 특정한 문단에 대한 질문을 미리 작성하여 1주일 전에 그룹원들에게 나누어준다.

4. 그룹원들이 예습해 온 것을 기초로 귀납적 성경공부를 인도한다.

리더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질문들을 준비해서 그룹 안에서 활발한 토론과 나눔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귀납적 성경공부를 위한 열쇠는 다음과 같다.

1. 본문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2. 본문에만 집중해야 한다. 다른 본문들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에만 충실해야 본문으로부터 정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3. 질문을 주요 정보와 정의에만 국한해야 한다.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그룹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말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5. 성경공부 인도자가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답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6.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이 답을 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답이나 혹은 언급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성경공부는 어떤 유일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누는 과정이다.
7. 하나의 질문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골고루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8. 답의 발견에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9. 진행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지 말고 활기 있는 속도로 질문을 진행해야 한다. 소그룹은 역동성과 활기가 있어야 한다.
10. 성경공부에 필요한 질문보다 많은 수의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11. 성경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 소그룹 내에서의 바람직한 질문

소그룹 성경공부는 그룹원들이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 성경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통한 접근 방법이다. 소그룹 내에서 바람직한 질문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는 폐쇄적인 질문은 피하고 가능하면 개방적인 질문 (open-ended question)을 한다.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그룹원들의 다양한 느낌, 생각, 가치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
2.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하는 것을 피하고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함으로 그룹원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4. 질문에 대해 그룹원들이 억지로 대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답하도록 하지 말고 그룹원이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넘어가도록 한다.
5. 질문은 간단하고 단순하며 분명해야 한다. 모든 그룹원이 질문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 모든 그룹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7.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그룹원들에게 시간을 공평히 분배해야 한다.
8.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리더가 직접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거나 적절하고 신선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9. 소그룹 진행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 배치방법은 원형이다. 처음에는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하여 그룹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룹활동이 익숙해지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그룹원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10. 주어진 시간 안에 그룹원들의 답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11. 최상급이나 절대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12.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수의 질문을 준비한다.
13. 개인적인 가치, 비전, 감정, 경험 등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14. 전체 그룹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대신 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15. 질문 후에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그룹원들에게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16. 그룹원들이 자유롭게 생각과 감정,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엄숙한 분위기는 활발한 성경공부가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의 형성을 위해 친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17. 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그룹을 다시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뒤 추후에 다시 모여 각 그룹에서 토의된 내용을 나눈다.
18. 그룹원의 대답을 들은 뒤에 그에 대해 적절한 조언(feedback)을 주며 다른 그룹원들이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
19. 질문과 답을 다 나눈 뒤에 시간이 남으면 관련된 주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 심문하거나 조사하는 듯한 질문은 삼가고 궁금해서 묻는 듯한 질문을 한다.
21. 그룹원들로 하여금 질문에 대해 답을 한 뒤에는 그룹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 각자의 질문을 하도록 한다.
22. 그룹원들의 답이 질문과 관계없고 다소 불명확한 것이라도 그 답을 정중하게 특별한 것처럼 수용한다.
23. 그룹원들이 모두 답할 기회를 주되 특별히 중요한 질문에는 모든 그룹원들이 답할 수 있도록 한다.
24. 그룹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고치거나 수정하여 그룹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의 예

-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배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분명하지 않거나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 당시의 이 말씀 속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본문 속에서 동감이 가는 일이나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 본문이 떠올리는 과거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 본문의 어떤 부분이 과거의 상처받고 억압받은 감정을 회복합니까?
- 본문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본문을 통해 받는 고통이나 상처 혹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 본문을 통해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 본문은 가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실 것을 원합니까?
- 본문에서 당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본문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 제 5 주 모임의 질문

-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 소그룹에서 진지하게 성경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 위에 언급한 요소 외에 효과적인 성경공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 좋은 질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룹원들로부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 제 5 주 모임의 과제

-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법의 특징을 연구하십시오



- 성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성경구절들을 찾고 그 중에 최소한 한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 제6주 소그룹에서의 기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다(살전 5:17). 예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기도이다. 소그룹 상황에서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는 다른 특징이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예배,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력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도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다. 기도의 주요한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1. 경배: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2. 고백: 경배의 첫 응답은 회개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으므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 고백의 목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소그룹 상황에서는 그룹 기도에서 침묵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신뢰의 정도가 깊어지면 그룹원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 응답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요 15:7).

기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성령의 사랑의 행위를 듣고 경험하며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재에 들어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에 있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적 친교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이

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는 행위이다. 기도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반복이나 열심, 지식, 경험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기도는 많은 목소리들과 잡다한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기도는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책임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묶는 행위이다.

### 기도의 형태

기도는 다양한 모습을 띠 수 있다. 찬양(adoration)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의 완전하심과 영광에 대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임재를 묵상하는 것이다. 고백(confession)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범한 실수와 과실, 죄악과 실패를 돌아보며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적 삶의 과정에서 받은 상처, 두려움, 근심, 분노, 그 외에 어둡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빛에 조명하고 부정적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누리는 귀한 은택, 즉 건강, 가족, 직장, 친구들, 음식, 재능, 좋은 성격 등 모든 좋은 것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들, 실패, 병, 물질적 어려움, 아픔 등에 대해서도 감사(thanksgiving)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용서의 관계 속에 살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원천이 되기를 소원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감사이다.

교제(communion)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

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교제의 토대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제이다. 묵상(meditation-reflection)은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이다. 묵상은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상처의 치유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유와 인내하심의 풍성함과 깊이를 생각하는 것이다.

불평(response-complaint)도 기도의 한 형태이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바를 하나님께 말하되 세상의 불합리성과 고통 등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다. 좌절감, 실패, 걱정, 느낌 등을 늘어놓는 것이다. 헌신(dedication)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또한 공동체 앞에 어떤 헌신과 서약을 했고 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것도 헌신에 포함된다.

중보의 간구(intercession-supplication)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영적 성장과 온전함,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그룹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적인 축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 간구하며 적은 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위한 간구(petition-supplication)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와 치유,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며 미래를 위해 깨달음과 비전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amen)은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올바르고 적합한지 먼저 분별하고 확인해야 한다.

#### 관계적 기도의 두려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이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과 아울러 하

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관계적인 기도를 할 때 특히 가족,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지한 관계적 기도를 꺼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빈약한 모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 대한 좋은 모델이 많지 않다.
2. 일상성과 사소함: 일상 생활 속에서 드리는 관계적 기도는 피상적이고 사소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을 꺼린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진부함과 부적합성: 흔히 진부하고 판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상황과 연결된 구체적인 기도 대신 부적절하고 혼미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4. 형식성과 거리감: 기도에 대한 인상 중의 하나는 형식적이고 대중적인 의식과 관련되었다. 그러한 의식에서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고 전문적인 기도만을 들으신다고 생각하게 된다. 완벽함과 형식의 추구, 제도주의는 관계적 기도의 암적인 요소이다.
5. 필요와 의미의 결여: 기도를 필요 없거나 무의미한 활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삶 자체가 기도이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며 기도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이며 친밀한 존재로 경험하기 힘들다.
6.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기도를 친밀한 행위로 보고 그룹 내에서 그러한 친밀함을 부정적으로 본다.
7. 완벽주의: 자유롭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8. 언어적 장애: 바른 기도의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경우 기도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으로 축소된다.

### 소그룹 내에서의 기도

소그룹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1. 리도중심의 기도: 시작과 끝에 리더가 기도하는 것으로 목회적 차원의 기도이며 소

그룹 내에서의 가장 초보적인 기도이다.

2. 그룹 침묵기도: 개인, 일대일, 혹은 그룹 전체가 할 수 있다.
3. 하부그룹 기도: 일대일 기도, 3- 4 명이 함께 하는 기도, 소그룹을 두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4. 공동기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기도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기도, 리더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5. 직접 작성한 기도: 그룹원이나 그룹이 기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리더가 임명한 자원기도: 미리 계획할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7. 지정기도: 리더나 그룹원이 지정하기도 하며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8. 자발적인 기도: 리더 혹은 그룹원이 주도할 수 있다.
9. 대화식 기도: 단어, 혹은 문장, 대화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
10. 고백적 기도: 기도를 통해 느낌, 고통과 상처, 죄를 고백한다.

### 제 6 주 모임의 질문

- '관계', '대화'와 같은 개념이 기도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겸손'이 중요합니까?
- 당신의 말로 '기도'에 대해 정의를 내리십시오.
- 소그룹에서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외에 기도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십시오.
-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효과적이고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그룹 내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 제 6 주 모임의 과제

“기도”에 관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 제 7 주 소그룹의 예배

### 예배의 의의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배우게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근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것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그 원초적인 형태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이다.

1. 찬양: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와 직결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행위를 생각하며 믿음과 경배로 응답한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은 첫째, 기대(anticipation)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해 주실 위대하고 복된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 둘째, 감사(appreciation)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경외(awe)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부드러운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2. 감사: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다. 인간은 축복의 근원을 쉽게 망각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중요하다. 좋은 일이나 혹은 좋지 않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
3. 우리의 삶을 드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롬 12:1). 예배는 개인적인 표현이며 헌신에 뿌리 박은 응답이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알고 봉사하는 데 온전히 드려야 한다.

### 소그룹에서의 예배

온 회중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면 교회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 소그룹 상황에서는 시편의 낭독,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사용, 나눔과 기도 등의 활동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간을 일부 할당하여 경배와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작게 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찬양과 시편 낭독 등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예배는 또한 자발적이어야 한다. 역동성 있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룹원들이 창조적으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 7 주 모임의 질문

- 예배의 목적을 당신 자신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 예배의 여러 순서 중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 대예배이든 소그룹 예배이든 예배를 통해 크게 은혜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 제 7 주 모임의 과제

시편을 읽고 시편에 언급한 찬양과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 제8주 소그룹에서의 전도와 선교

소그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소그룹의 궁극적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 전도의 의미

전도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다. 객관적으로 복음은 진리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복음은 자리를 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은 전도에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온 경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주관적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배우며(객관적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는다(과정). 전도는 항상 기도로 시작한다. 전도에는 겸손과 사랑, 확신이 있어야 한다.

### 소그룹에서의 전도

소그룹에서의 전도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그룹의 목표와 전도의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전도한 뒤에 따라야 할 것은 전도한 사람을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
2. 리더는 전도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룹원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전도의 비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소그룹 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그룹이 필요하다: 건강한 그룹에서 소그룹 전도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4. 전도는 의도적일 필요가 있다: 소그룹은 전도와 관련하여 취할 행동과 방법, 전도해야 할 이유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성장하며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은 언젠가는 분할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서 리더는 준비를 해야 하며 새 그룹을 인도할 리더를 확보해야 한다.

소그룹에서 전도활동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룹 모임에 빈자리를 하나 두어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는 '빈자리 전략'도 효과적이다. 소그룹 전도나 혹은 전도 일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다. 전도계획을 그룹원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 선교의 의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공부, 예배,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축복의 결과로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 구원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 소그룹에서의 선교

선교를 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 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워라: 선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거나 선교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거나 함으로써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 기도하라: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특정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다른 사람을 지원하라: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도울 수 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한 예가 된다.
4.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로 가라: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데 동참한다든지 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5. 해외 단기선교를 가라: 짧은 기간이라도 해외선교를 가면 큰 영적 유익과 담력을 얻게 된다.
6. 해외 장기선교를 가라: 장기 선교의 사명을 받고 해외로 가는 사람들을 기도와 물질, 선교지 연구 등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 영적 묵상을 통해 소그룹을 사역과 선교로 이끄는 방법

영적 묵상을 통해 소그룹을 사역과 선교로 이끄는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제 1 단계: 자주 생각하라

사회적 관심사와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룹 활동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룹 토론 중에 떠오르는 사역과 선교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그룹일지나 기록철을 보관하라.

1. 개인묵상 기록들을 함께 나눌 때에 떠올랐던 선교와 사역에 대한 관심사를 기록하라.
2. 그룹원들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관심사들을 기록해 놓으라.
3. 묵상, 기도, 나눔의 시간에서 부각되는 전체그룹의 공통의 관심사를 기록하라.
4. 그룹원들이 출석하고 있거나 관여하는 교회의 선교위원회나 선교기관들에 문의하라.
5. 나눔의 시간이나 묵상, 기도 시간에 사역과 선교에 대해 그룹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기록하라.
6. 계획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그룹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 특히 사역과 선교활동에서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 제 2 단계: 인내를 갖고 계획하라

사역이나 선교활동을 전혀 한 경험이 없는 그룹이라면 한가지 행사 혹은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 행사를 해야 한다. 너무 규모가 크면 그룹원들이 좌절할 위험성이 커서 다음 사역과 선교 활동에 지장이 된다.

1. 지역교회나 선교사역 기관을 통해 그룹에 적합한 기존 활동계획을 조사한다.
2. 그룹에 가장 적절한 사역이나 선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도울 전문가나 다른 그룹의 자문을 구한다.
3.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계획안을 놓고 그룹원들과 상의한다.
4. 둘 이상의 선교사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그룹 전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5. 최소한 하나의 계획서에 대해 그룹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그룹 전체의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는 그룹원은 다른 대안을 택하거나 기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3 단계: 신중하게 실행하라

사역과 선교활동은 그룹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협에 잘 유의하면서 실행계획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위협이 낮은 사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협이 높은 활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

1. 간단하고 위협수준이 낮은 사역 선교 활동을 전체 그룹이 참여하라. 전 그룹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친 후 다음 활동으로 이행하기 전 첫 번째 활동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 제 4 단계: 신속하게 평가하라

그룹이 한 선교 사역을 수행한 뒤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그 활동에 대한 그룹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그룹 전체를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선교 사역활동을 평가하라.
2. 다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룹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 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제 8 주 모임의 질문

- 당신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 당신은 전도를 확신 있게 효과적으로 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 있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잘 알며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신이 듣고 알았던 선교사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열정 때문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선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선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소그룹의 다른 그룹원들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하는 선교사역 활동에 참여한 후의 신앙적 나눔을 위한 질문임)

- 소그룹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대한 당신의 의견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 선교사역을 하려 했을 때 당신의 관심사와 느낌, 두려움과 바램은 무엇이었습니까?
- 선교 사역의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계획과 활동 중 좌절감이나 기쁨을 주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만일 이 활동을 다시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 이 그룹에서 다음 번 선교 사역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의논과 계획 과정에서 이 일을 다시 한다고 할 때 더 잘 하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 활동 중 즐겨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싫어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 그룹이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영적으로 의논해 가는 일들이 선교와 사역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관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제8주 모임의 과제

그룹이 구체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적어도 10개를 찾고 그 중에서 최소한 1구절을 암송하십시오.

### 제 9 주 소그룹의 조직

소그룹도 하나의 조직이다. 소그룹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셀그룹을 전제로 한다. 셀그룹은 마치 세포조직과 같이 성장과 분할을 통해 확산되는 소그룹 형태이다.

### 셀그룹의 발전단계

셀그룹은 일반적으로 준비, 모범적(원형적: prototype) 소그룹의 형성, 확산의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지향하는 가치를 내재화하며 구조를 셀그룹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모범적 소그룹의 형성 단계에서는 리더들을 모으고 세우며 적절한 셀그룹의 형태를 고안하며 지향하는 가치를 가르치고 내재화하며 셀의 하부구조를 개발한다. 또한 지원 핵심 그룹을 모으고 기타 셀그룹의 요소들을 적용하며 기초적인 회중을 형성한다.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으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삶을 나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셀그룹의 확산과 지도자의 확산이다. 결과적으로 왕성한 성장이 일어난다.

셀그룹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거쳐야 할 단계를 순서적으로 밟아야 한다. 단계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셀그룹 구조로 바꾼다든지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분명한 셀그룹의 비전과 잘 훈련되고 헌신된 리더의 확보가 셀그룹 활동의 전제 조건이다.

어떤 조직이나 생명체도 무한히 성장할 수 없다. 일정한 생명주기에 따라 탄생, 성장, 발전, 종결,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계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탐색-다양성의 희생 위에 단일성을 지향함: 처음 소그룹을 시작할 때 소그룹 활동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므로 그룹원들은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일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 단계는 소그룹 단계에서 가장 쉬운 단계이다.
2. 전환-단일성의 희생 위에 다양성을 추구함: 소그룹은 강력한 리더의 주도하에 그룹원들은 단순히 따르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양성되기 어렵다. 활발한 나눔이 진행되다보면 성격, 신념, 경험, 신앙의 경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원들간에 다양성이 나타난다. 건강한 그룹은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신념이 다르며 각 사람은 독특한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룹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리더는 그룹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
3. 행동-다양성 속의 통일: 이 단계에서는 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새로운 그룹원들은 그룹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룹원들은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정기적으로 그룹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열려있

고 정직하며 돌봄이 있는 이 단계에서 그룹원들은 개인적으로도 공정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로 맞볼 수 있다.

4. 종결-일치됨의 확인과 그룹의 종결: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 아무리 건강한 소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그룹은 1년 혹은 10년까지 지속하지만 그룹과 그룹원들의 유익을 위해 그룹이 해체되어야 하는 때가 불가피하게 온다. 종결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소그룹 서약서이다. 모임의 빈도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룹 활동 중에 소그룹 서약서는 재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종결에 대한 절차도 서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종결은 그룹이 지나온 날을 되돌아 보며 축복과 어려움, 교훈 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적인 시간이다.

소그룹의 발전단계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탐색: 소그룹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2. 시작: 모델을 확립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3. 동화: 모델이 요소들을 모으는 단계이다. 그룹원의 모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확장: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모델들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5. 확신과 안정: 핵심적인 모델의 유지와 지원구조의 개발
6. 통합: 핵심적인 모델을 재검토하고 부차적인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7. 갈등과 위기: 모델의 한계가 노출되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다. 리더는 좌절하고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8. 외부의 도움 요청과 종결: 평가와 진단, 그룹 내외의 도움을 구하지만 변화가 모색되지 못하고 부정되는 단계이다.
9. 새로운 주기의 시작: 새로운 계획과 개혁을 시도한다.

### 소그룹 활동의 분배

소그룹은 제자훈련 그룹, 언약그룹, 셀그룹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갖출 수 있다. 리더훈련 그룹은 성격상 제자훈련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 형태는 셀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룹이든지 종류에 관계없이 소그룹으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활동이 있는 것이다. 찬양, 기도, 교제, 성경공부, 전도와 사역 등이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의 발전 단계에 따라 성경공부, 교제와 사귄, 사역과 봉사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이 탄생하여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친교와 사귄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그룹이 잘 세워지도록 하며 성장단계에서는 성경공부와 봉사와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종료와 재출발 단계에서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그룹 활동을 마치고 재출발할 수 있도록 위로와 수용, 격려,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다.

그룹원들이 그룹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룹도 수적으로 성장하여 분할해야 할 때 한 그룹은 보다 성경공부와 사역과 봉사에 치중하는, 한 단계 성장한 그룹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다른 그룹은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그룹을 세우는데 주력하는 친교 그룹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의 형성과 함께 한 소그룹 안에서도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리더와 보조리더

한 그룹에는 리더와 보조리더의 리도쉽 팀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 지도와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리더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보조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보조리더는 앞으로 리더로 사역하기 위하여 지도, 훈련을 받으며 그룹에서 리더를 도와 활동한다. 보조리더를 선택, 발굴하며 보조리더를 지도하고 훈련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다.

리더는 보조리더가 실제적 상황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업무를 위임하며 소그룹을 단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그룹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며 정기적으로 리더에게 보고하는 일도 보조리더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 소그룹분할의 방법

소그룹이 성장하여 인원수가 많아지면 둘로 분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리더가 일부 그룹원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리더가 일부 그룹원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보조리더가 기존의 그룹에 남고 리더가 일부 그룹원을 데리고 나가서 새 그룹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룹 분할은 각 그룹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룹원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욱 깊은 성경공부와 봉사 사역을 감당하고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러한 필요성과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새 그룹을 만들고 보조리더는 그 동안 배우고 훈련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소그룹을 인도 하되 새로운 그룹원들을 초청하여 그룹을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보조리더는 그 동안 몸담고 생활했던 기존의 소그룹이 인도하기에 편하고 부담이 적을 것이다. 보조리더를 도와 함께 사역할 좋은 그룹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제 9 주 모임의 질문

- 소그룹의 조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신앙의 수준, 남녀 비율 등)?
- 소그룹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룹원이 전원 합의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소그룹의 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소그룹리더들과 보조 리더들의 정기모임은 얼마나 자주 모이는 것이 좋으며 모임의 내용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 소그룹 활동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소그룹 자체의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 제 9 주 모임의 과제

소그룹의 각 발전단계에 있어서 리더가 해야 할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 제 10 주 그룹내의 분쟁과 문제의 해결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그룹도 나름대로의 문제와 갈등, 어



려움이 있다. 분쟁과 문제는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과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 그것이 오히려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그룹내의 분쟁

1. 소그룹 내의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 1) 분쟁을 일으킨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2)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룹내의 다른 두 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체 그룹의 모임을 갖는다.
-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중재케 한다.
- 5)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룹내에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룹을 떠나 있을 지 결정한다.

2. 그룹내의 어떤 사람이 불량한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을 때:

- 1) 그룹내의 한 사람이나 지도자가 일대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만나야 한다.
- 2)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룹내의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 3)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체 그룹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
- 4)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 사람의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룹을 잠시 떠나 있을 것을 부탁한다.

### 소그룹을 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1. 한 개인의 감정, 생각, 의견, 비판과 판단 등이 계속적으로 그룹을 지배할 때
2. 그룹이 특정한 유형의 행동이나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
3. 그룹에서 위기가 닥쳐 그룹 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하고 효율적인 그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할 때

4. 그룹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룹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5. 큰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토론 없이 그룹원들이 특정한 활동이나 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
6. 일정한 기간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그룹을 지배할 때
7. 그룹 리더나 그룹원들이 그룹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 소그룹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방법

#### 1. 소그룹이 배타성을 가질 때

소그룹이 성장하지 않고 또 몇 사람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며 새로 온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깨지 않을까 우려하는 배타적 분위기에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빈 의자를 놓아두어 누군가가 새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그룹 기초 서약서에 전도와 그룹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때때로 그룹 서약서의 내용을 상기하는 것이다. 리더가 보조리더를 충실하게 양육하여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켜 인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룹의 배타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 2. 대화와 깊은 나눔을 갖기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

12명 이상이 꾸준히 모임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면 그룹을 둘로 분할하여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으나 그룹원이 7명 이상이 되면 깊은 대화와 나눔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한 그룹을 둘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할 때 리더와 보조리더가 각각 한 그룹씩 인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3. 새로운 사람이 소그룹에 참석할 때

소그룹이 시작된 후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 그들을 소그룹에 정착시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룹원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공부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유익한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소그룹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그룹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담은 쉬운 성경공부를 다시 함으로 그룹원들은 이전에 가졌던 확신과 기쁨을 다시 누리며 새로 온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소그룹에 참여하게 한다. 새로 온 사람의 신앙과 기타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룹활동에 동참하도록 모든 그룹원들이 세심하게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 10 주 모임의 질문

- 과거 소그룹 활동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소그룹 활동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갈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 그룹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성경공부 중에 공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공부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 새로 온 사람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소그룹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한번 두 번 그룹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 제 10 주 모임의 과제

소그룹활동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십시오.

### 제 11 주 소그룹 인도의 실제(1)

여기에서는 소그룹이 조직되고 첫 모임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소그룹리더로서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연습한다.

모임장소: A 교수 연구실(A 교수가 리더이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1시-2시 30분(그룹원들의 동의하에 결정한다.)

첫 모임에 오기로 한 사람들: A, B, C, D 교수(모임 하루 전에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통보한다)

모임을 위한 방 준비:

1. 소파에 원형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탁자 위의 장식물이나 시각적인 방해물을 치운다.
3. 전화와 휴대전화를 차단한다.
4.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한다.

모임의 진행:

1. 첫 시간에는 소그룹의 목적, 의의,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 등 소그룹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며 그룹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모임인 만큼 부드럽고 친교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리더인 A 교수가 모임 시작 10분전에 교본을 참고로 작성한 소그룹 기본 서약서 초본과 찬송가, 복음송 2-3 곡, 그리고 소그룹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교재를 참가인원 수만큼 준비하여 기다린다. 연구실 문은 열어 놓는다.
2. 사람들이 도착하면 반갑게 영접하며 가벼운 대화를 통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음료를 제공한다. 시작 시간까지 전부 모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5분 이내에 시작한다. 시작 기도는 리더가 한다.
3. 준비한 찬양을 2-3 곡 부른다. 그 후에 그룹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한다. 한 사람의 소개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는 것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4. 소그룹의 기본 사항을 다룬 유인물을 그룹원들에게 배포하며 하나 하나 공부해 가며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진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법을 참고하여 미리 충분한 수의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5. 그 다음에 소그룹 기초 서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소그룹 서약서를 만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리더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토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룹원들로 하여금 서약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읽도록 하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서약서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서약서는 다음 시간에 마련하여 모든 그룹원이 서명하도록 한다.
6. 그룹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마치는 기도를 한다.
7. 다음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다음시간에 다룬 성경공부 교재를 미리 배부한다.
8.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 제 12 주 소그룹 모임의 실제(2)

여기서는 소그룹의 두 번째 모임을 가정하여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을 연습한다.

모임 장소: B 교수 연구실(B 교수가 장소의 제공자이며 초청자이다.)

모임 시간: 매주 1시-2시 30분

모임을 위한 환경의 정리와 다과 준비는 B 교수의 책임이다. 소그룹의 보조리더가 정해졌다면 보조리더가 모임 장소와 시간을 해당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리더와 보조리더는 모임 10분전에는 미리 모임 장소에 와 있어야 한다. 리더는 부를 찬송을 미리 준비하고 성경공부 교재 여분을 준비하여 교재를 지참하고 오지 못한 그룹원들에게 나누어준다.

모임의 진행:

1. 리더는 그룹원들을 환하게 맞이하며 가벼운 대화를 통해 교제를 나눈다.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나누어도 좋다.

2. 모임 시간이 되면 리더가 시작기도를 하거나 그룹원 중의 한 사람을 지정하여 기도하게 한다.
3.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며 즐거웠던 일, 괴롭고 어려웠던 일, 감사한 일 등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룹기도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찬양을 2-3곡 부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5. 성경본문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룹원들은 성경을 미리 읽고 예습을 해야 한다. 또 주어진 질문에 대해 충실하게 답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소그룹 기본 서약서에 포함한다.
6. 리더는 질문을 통해 성경공부를 인도하되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성경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내용을 각 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7. 성경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는 의미에서 각 자 돌아가면서 결단의 기도를 한다. 특히 빈자리를 하나 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 소그룹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
8. 소그룹 서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본에 각 자 서명한다.
9. 다과를 하며 친교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 부록 3

## 기독교의 이해 설문조사(2000년 5월, 11월 실시)

아래의 설문은 여러분들의 영적생활을 돕고 더욱 알찬 '기독교의 이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소속과:
2. 성별: 남( ) 여( )
3. 거주지:
4. 나는 현재 기독교인이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5.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 예( ) 아니오( )
6.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7. 출석하는 교회의 교파는?(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8.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과거에는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예( ) 아니오( )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9.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 아니오( )
10. 한국의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2) 긍정적 3) 그저 그렇다 4)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6) 모르겠다.
11. "기독교의이해"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매우 부정적이며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12. "기독교의이해"를 수강한 뒤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 1) 기독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보다 독실한 신앙인으로(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한다.
  - 2) 기독교를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 3) 그저 그렇다(별다른 변화가 없다)
  - 4) 기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 5) 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13. 강의실 환경 등 “기독교의 이해”와 관련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4. 장래에 대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며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 학교 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취하고 싶은 것, 바람직한 대학의 모습, 기타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4

## 채플 설문조사(2000년 5월, 11월 실시)

아래의 설문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돕고 보다 은혜로운 '채플'을 드리기 위하여 교목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소속과:
2. 성별: 남(     ) 여(     )
3. 거주지:
4. 나는 현재 기독교인이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5.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  
예(     ) 아니오(     )
6.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7. 출석하는 교회의 교파는?(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8.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과거에는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예(     ) 아니오(     )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9.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10. 한국의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2) 긍정적    3) 그저 그렇다    4)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6) 모르겠다
11. '채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매우 부정적이며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12. '채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 )찬양 ( )설교 ( )예배의 질서(친절한 안내, 시간의 엄수...)

( )예배의 환경(예배실 분위기, 음향시설...) 기타( )

13. '채플'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1) 기독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보다 독실한(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한다.

2) 기독교를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3) 그저 그렇다(별다른 변화가없다)

4) 기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되었다.

5) 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14. '채플'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채플 시간의 길이, 예배실의 환경, 설교, 찬양,...)



## 2. 소그룹과 관련하여

## 1) 소그룹의 필요성을

- 매우 강하게 느낀다.(     )     - 약간 느낀다.(     )
- 별로 느끼지 못한다.(     )     - 거의 느끼지 못한다.(     )

## 2) 소그룹활동의 모임 회수는

- 1주일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     - 2주일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
- 1달에 1회가 가장 적당하다.(     )     - 기타(     )

## 3) 소그룹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으세요

- 성경공부 (     )     - 친교 (     )     - 기도 (     )
- 전도 (     )     기타(     )

## 4) 소그룹활동은

- 회원들을 강제적인 방법을 서서라도 소그룹에 소속시켜 일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 강제로 해서는 안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 5)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 처음부터 성경공부, 기도, 친교, 전도 등의 활동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
- 처음에는 “친교”에 중점을 두어 서로 친해진 다음 점차로 성경공부, 기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좋다.(     )

## 6)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 영어 성경공부, 친교, 기도, 봉사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
- 규격화 된 표준적인 소그룹들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

## 7)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 어떤 과정에 기간을 두어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시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어떤 과정을 졸업하면 다음 과정으로 옮겨감). (     )
- 과정을 이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 그룹이 커져서 둘로 분할 할 때까지 2, 3 년 정도 계속 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



- 신앙수련회, 세미나, 기도실 확보 등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 교직원 선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신앙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기타( )

5) 기타 교직원 선교회에 대한 의견, 건의 사항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적

- 김병철 외. 기독교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0.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영철. 한국 기독교 청년 운동사.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3.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 김준곤. “한국 학생 기독교 집회의 근황,” 기독교 사상 1966년 4월호.
-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40년사(상, 하).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9.
- 바비승. “학생운동과 교회,” 복음주의적 학생운동. 서울: IVP, 1985.
-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백년사(I, II, III).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신흥대학.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연구. 의정부: 대신기획, 1999.
- \_\_\_\_\_. 대학요람. 2000.
- \_\_\_\_\_. 학생생활연구. 제 2집. 2000.
- 양승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대학.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93.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 Vols. 1-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서울: 두란노 서원, 1998.
- 의정부시. 제 37회 '99 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1999.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장익. 한국대학생 선교회 현황보고서. 서울: 한국대학생 선교회, 1993.
-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서울: 중앙일보사, 1995.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한국기독교학생회. 빛으로 소금으로. 서울: IVP, 1980.
- \_\_\_\_\_.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P, 1984.
- \_\_\_\_\_. 지성사회 복음화 30년. 서울: IVP, 1986.

## 2. 번역 서적

- Baxter, Richard. 참 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Hasakins, C. H. 대학의 기원. 김호권 역. 서울: 삼성 미술 문화 재단, 1978.
- Harward, David M. 학생 운동과 세계 복음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Hybels, Lynn & Bill.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 Ladd, G. 신약신학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성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 McGavran, Donald. 교회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7.
- Smith, Oswald J. 구령의 열정.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Tippett, A. R.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장중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78.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 3. 외국 서적

- Arnold, Jeffrey. The Big Book on Small Group.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 Autrey, C. E.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1954.
- Banard, F. M. Christian Witnessing.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59.
- Blauw, Johannes. The Minist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Mcgraw-Hill, 1962.
- DePree, Max.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Bantam Double Day Dell, 1989.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5.
- Ford, Leighton. Transforming Leadership.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1.
- George, Carl.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2.
- Greenleaf, Robert K. Servant Leadership. New York: Paulist Press, 1977.
- Icenogle, Gareth. W.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 Johnson, David W. and Frank P.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Mallison, John. Growing Christians in Small Groups. Sydney: Scripture Union, 1989.
- Niebuhr, Reinhold. "The Two Sources of Western Culture." The Christian Idea of Education. Edited by Edmund Fuller.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Nouwen, Henry. In the Name of Jesus. New York: Crossroad, 1998.
- Sanders, J. Oswald.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94.
- Shawchuck, Norman and Roger Heuser. Leading the Congreg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Warren, Rick. Why Join a Small Group? (Leaflet made by Saddleback Church).
- Weems, Lovett H. Church Leade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Willard, Dalas. The Spirit of the Discipline.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88.
- Wood, A. Skevington. Evangelism, Its Theology and Practice. Grand Rapids: Zondervan, 1966.
- Wuthnow, Robert. Sharing the Journey: Support Groups and America's New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MacMillan Press, 1994.

Vita of  
Byung Chul Kim

Present Position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Head of the Chaplain's Office  
Assistant Professor of Theology and Accounting  
Shinheung College, Uijongbushi, Kyunggido,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December 27, 1957  
Marital Status: Married to Sung Hwa Kang  
Home Address: 332 Kwansan-dong, Dukyang-ku, Koyang-shi  
Kyunggi-do, Korea  
Phones: Home: (031)-963-2877  
Office: (031)-870-3516  
Denomination: Church of God-Anderson, U.S.A.  
Ordained: September 15, 1996

Education: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80  
M.A.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 1988  
M. 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1993  
M.S.B.A.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O. 199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1

Pastoral Experience:

2/98 to present: Pastor, Anheung Presbyterian Church, Dongduchon  
8/93 to 1/98: Pastor, Korean Paradise Church, Garden Grove, CA.  
7/92 to 7/93: Educational Pastor, Choong Hyun Mission Church,  
Glendale, CA.

Academic Experience

3/99 to present: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Head of the Chaplain's Office  
Assistant Professor of Theology and Accounting  
Shinheung College, Uijongbu, Korea  
3/98 to 2/99: Head of Dept. of International Trade,  
Assistant Professor of Accounting,  
Ansan College of Technology, Ansan, Korea